LOBOTOMY CORPORATION

FACE THE FEAR
BUILD THE FUTURE

관리자님을 위한 로보토미 회사 매뉴얼

1. 관리자님이 해야 할 일 01
2. 엔케팔린을 추출하는 방법 03
3. 격리실의 구조 05
4. 도대체 환상체가 뭡니까? 07
5. 우수한 우리의 직원들 11
6. 비상상황 15
7. 비상상황 통제 17
8. 장비설명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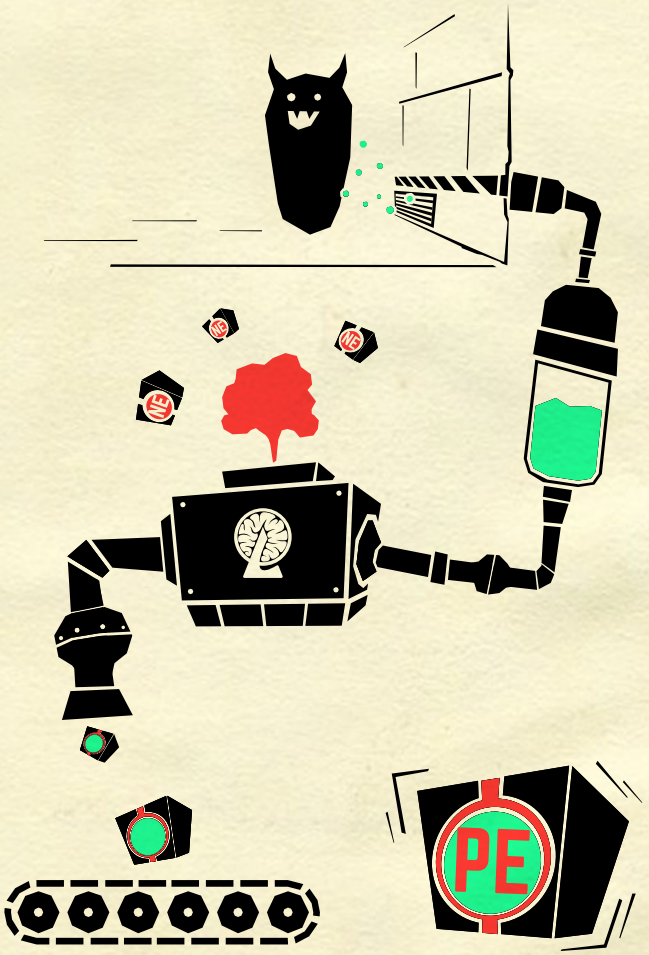
환상체 도감

25 ZAYIN
37 TETH
53 HE
81 WAW
115 ALEPH

공포에 직면하여 미래를 창조하라

LOBOTOMY CORPORATION
FACE THE FEAR, BUILD THE FUTURE

환영합니다. 관리자님. 로보토미에 입사한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는 에너지 회사입니다. 당연히 에너지 회사의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은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겠죠. 하루마다 각 지부의 담당 관리자들에게는 수집해야 하는 에너지 할당량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관리자님의 우수한 능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당신을 관리자로 임명하였습니다. 반드시 하루의 에너지 할당량을 채워주세요.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관리자 직에서 영구 제외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항은 상호 계약서에도 명시한 내용이니 반드시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여러 날개를 비롯해 많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환경적 파괴 없이 에너지를 제공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답은 '엔케팔린'입니다. '환상체'라는 존재로부터 '엔케팔린'이라는 에너지를 얻고, 정제하고, 이를 판매하는 단순한 프로세스입니다.

2 엔케팔린을 추출하는 방법

환상체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면 됩니다.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그들이 만족하면 엔케팔린을 방출할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수집합니다.

환상체의 기분을 어떻게 좋아지게 하죠?

우리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환상체라는 존재들에게 유효한 작업 방식은 4종류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자 그대로 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이 희생되었죠. 시간이 남는다면 잠시 묵념을 해보도록 하죠) 4종류의 작업 중 환상체가 제일 좋아하는 작업을 찾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에너지 수집 과정의 첫 번째입니다

어떤 작업들이 있죠?

본능 작업 / 통찰 작업 / 애착 작업 / 억압 작업이 있습니다. 환상체라는 존재는 매우 섬세함과 동시에 오묘합니다. 까탈스러운 아이를 만족시켜주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대가가 좀 따를 뿐이죠. 환상체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과 유사하게 생기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무생물 그 자체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외형을 가지고 있든 환상체들은 기본적인 욕망과 의지가 있습니다.

본능 작업

환상체의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작업입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주로 이뤄집니다. 생체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을 공급하거나, 청결을 위해 몸을 닦아주거나 합니다. 개체마다 적합한 방식이 매뉴얼대로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까지 관리자님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위험하고 복잡한 절차는 관리직 직원들의 몫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접촉이 잦은 작업이다 보니 그들의 대담한 용기가 필요하겠죠.

통찰 작업

환상체의 환경을 개선해주는 작업입니다. 환상체의 격리실은 항상 최적의 환경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물질의 제거, 쾌적한 공기, 안정되게 하는 음악 선정 등 여러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개체는 더럽고 불쾌한 환경을 좋아하기도 하겠죠. 각 개체에 맞는 적합한 환경개선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담당 직원의 명석한 지혜가 요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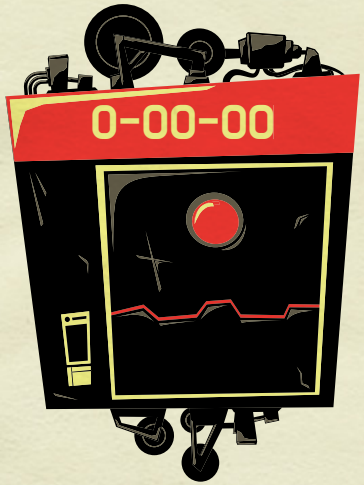
애착 작업

환상체의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켜줍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환상체는 어떤 형태를 띤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욕구와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사회적 욕구 또한 존재합니다. 애착 작업을 통해 환상체들의 말 상대를 하거나, 놀아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담당 직원의 절제입니다. 이곳에서 선을 넘게 된다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억압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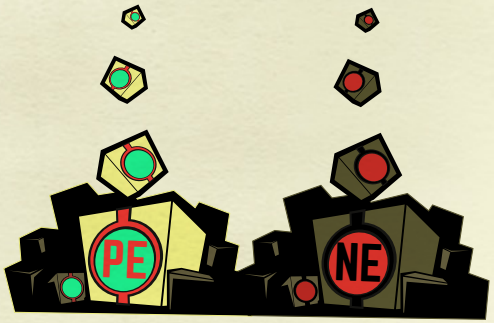
환상체의 존재를 억누르는 작업입니다. 앞의 세 작업은 환상체의 비위를 맞춰주는 역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억압 작업은 그들의 욕구를 억누릅니다. 환상체들은 그다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환상체 스스로 자신의 욕구와 의지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주할 수 있습니다. 억압 작업을 통해 환상체들의 분노, 슬픔, 기쁨을 조절해줘야 합니다. (당부드리건대 이 과정만큼은 구체적으로 아시려고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억압 작업 담당 직원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정의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알량한 정의감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가치판단입니다. 직원 스스로가 억압 작업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은 직원은 먹히고 말 것입니다. 환상체에게든 자신에게든 말이죠.

환상체는 격리실에 있고 관리자님은 격리실을 통해 에너지가 어떻게 모일지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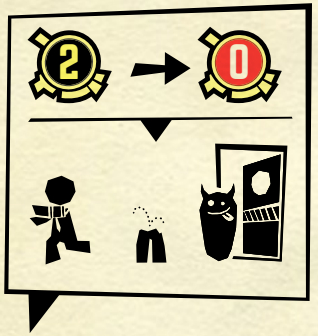
엔케팔린 박스

환상체의 기분이 좋아지면 양성 엔케팔린 박스(PE-Box)가 생성되고, 반응이 좋지 않으면 음성 엔케팔린 박스(NE-Box)가 생성됩니다. NE-BOX가 정제될 때 작업 중인 직원은 환상체로 인한 피해를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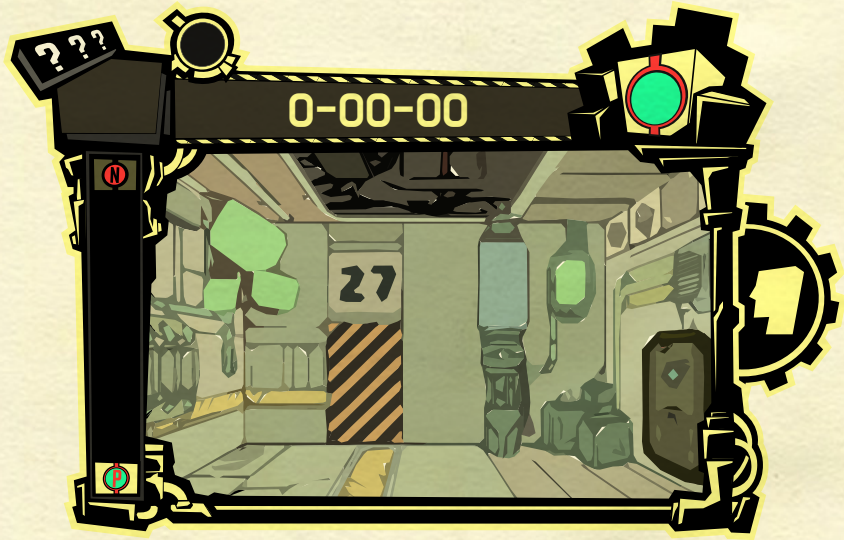
위험등급

클리포트 카운터



클리포트카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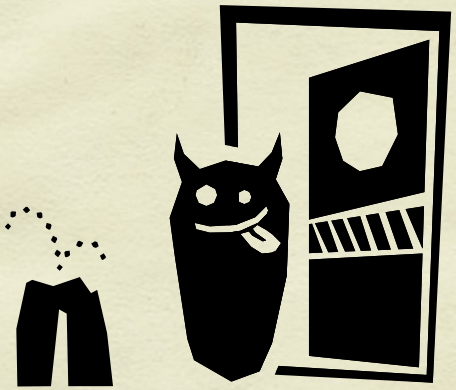
격리실에는 계수기가 달려있습니다. 꽤 복잡한 장치이긴 하지만 관리자님은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계수기가 0이 되면 환상체는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중에는 환상체의 탈출도 포함됩니다.



잠깐, 환상체가 탈출을 한다고요?

네. 그렇고 말고요 관리자님. 이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상황 항목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환상체에 대해 설명해 드릴 시간이군요. 환상체는 인류의 깊고도 오랜 꿈속에서 나온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들은 관리자님이 보시기에 괴물일 수도 신일 수도, 사람일 수도, 아니면 그 밖의 무한한 가능성의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에게서 비롯되었고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환상체는 위험한가요?

네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말고요. 세 번이나 강조한 것은 그만큼 새겨들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무언가를 얻으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에너지 회사보다도 신속하고, 어떠한 환경파괴도 없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세상에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환상체라는 위험한 존재를 격리하고 있습니다. 환상체마다 위험의 정도는 다릅니다만 최악의 결과로는 단순히 Lobotomy Corporation의 날개 자격 박탈뿐 아니라 인류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말 시나리오 전개의 가능성은 다른 날개들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환상체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네, 정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환상체들을 관리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충실한 안내자입니다. 우리는 환상체의 정보를 기록한 도감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감을 통해 관리자님은 더욱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감에 정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처음 관리하게 되는 환상체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환상체의 관리로 누적된 PE-BOX를 통해 정보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PE-BOX 자체를 소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환상체만의 고유 식별번호 PE-BOX가 누적되고 이를 통해 도감을 개방하고 장비 제조를 위한 재료 또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이란 게 있네요?

환상체들은 온순하여 직원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을 유형이 있는가 하면 매우 공격적이고 잔인하여 신중한 작업이 필요한 환상체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따라 5가지 위험 등급으로 이들을 분류하여 얼마만큼 신중히 처리해야 하고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에 대해 명확한 안내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뿌리 깊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모든 환상체는 위험합니다. 물론 저희가 사무직 직원들에게 배포한 전용 매뉴얼에는 '환상체는 안전합니다!'라는 문구가 있긴 하지만, 관리자님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든 환상체는 어떤 위험 등급이던 위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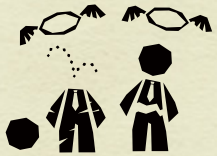
F - 잊혀진 이야기, 구전, 민담, 전설

ZAYIN

가장 낮은 공격성을 가진 ZAYIN 등급의 환상체는 직원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그나마 제일 낮을 것입니다. 대개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모든 환상체들이 ZAYIN에 그쳤다면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격리실을 만들 필요도 없었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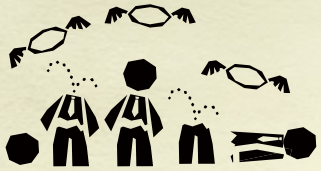
TETH

이 환상체들은 직원에게 약한 상처에서부터 중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관리법을 잘 지킨다면 큰 피해는 입히지 않을 것입니다.



HE

직원 수 명 정도는 손쉽게 죽일 수 있을 등급입니다. 아마 관리자님은 ZAYIN 이나 TETH에게 쏟는 관심의 두 배 이상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피 흘리며 쓸려 나가는 여러 직원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큰 걱정까지 필요 없는 단계입니다. 관리자님의 우수한 능력이라면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T - 강렬한 개인의 경험, 끝찍한 공포, 감정

WAW

해당 등급의 환상체를 맞닥뜨렸다면 슬슬 걱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들은 위험성이 높으며 파괴력도 무시무시합니다. 아마 WAW 등급의 환상체에게 부서들은 과자로 만든 집에 불과하겠죠. 사상자는 수십 명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직원들에게 적대적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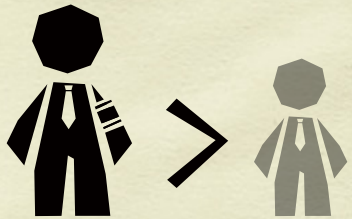
O - 강과 바다 경계 너머, 원인불명, 자연발생, 제작, 우물

ALEPH

가장 위험합니다. 이 환상체가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순간, 당신은 최대한 할 수 있는 엄청난 집중과 관심을 계속해서 기울여야 합니다. 해당 등급의 환상체를 격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어마어마한 자본이 소비되었습니다. 이 환상체가 부서 전체를 파괴하지 않고 제압이 끝났다면 그걸로 다행일 것입니다. 당신과 직원들은 모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겠죠. 부디 우리의 경고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나요?

물론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은 관리자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것입니다. 관리자님이 직접 환상체를 관리하다니 말도 안 되지요. 그런 위험한 작업은 모두 관리직, 사무직 직원들이 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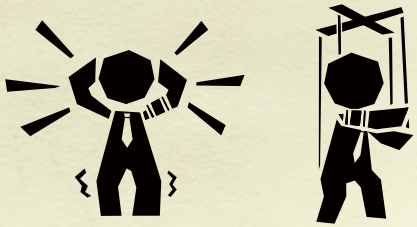
관리직은 뭐고 사무직은 뭐죠?

관리직은 환상체를 관리하는 직원들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입사시험에 통과하여 엄선된 인재들입니다. 환상체의 제압 역시 이들의 주된 업무입니다. 그렇기에 신체적 능력 또한 우수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성입니다. 이 적성에 대해서는 E.G.O 장비 설명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직들 또한 훌륭한 인재이긴 합니다만, 관리직에 비교하면 복지가 다소 부족합니다. 안타깝지만 보호 절차 우선순위에서도 자동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도 사무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잡한 서류절차부터 격리실 상태 점검까지 사소하지만 중요한 일들이 돌아가는 것일 테죠.

결국 인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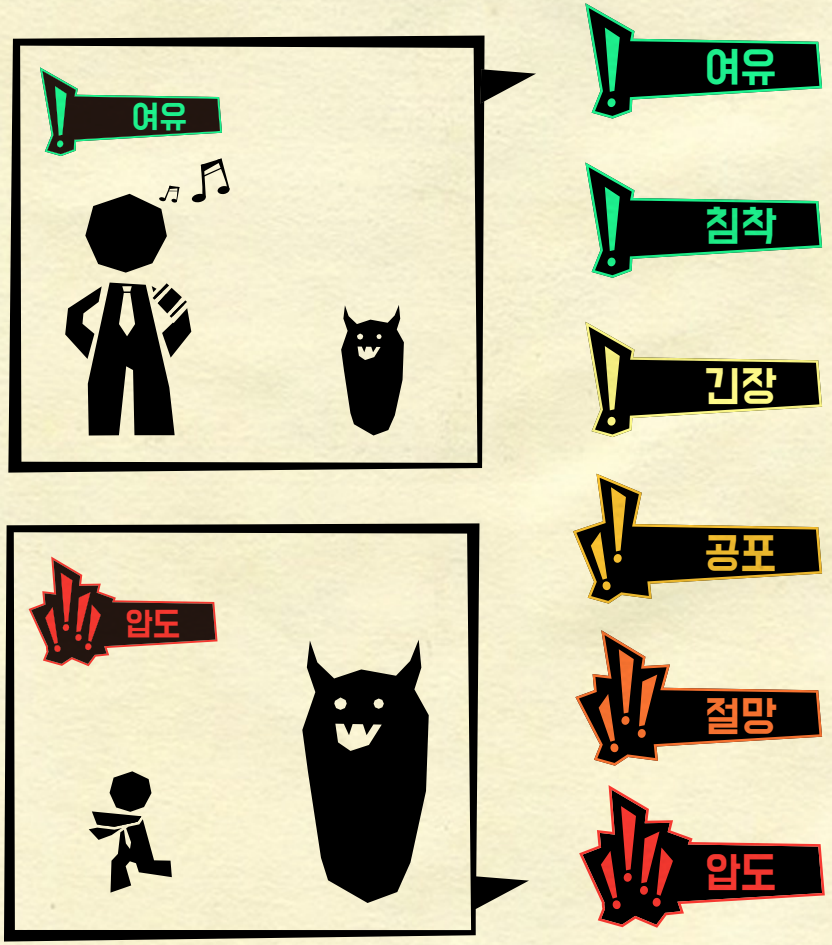
그 어떤 우수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결국 인간에 불과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공포에 직면하면 그들은 미쳐버리게 될 거라는 뜻이죠. 여기서 관리자님이 명확히 구분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미쳐버린 직원이 사무직일 경우 대개 내버려 둬도 됩니다. 그들은 한동안만 시설을 절규하며 돌아다니거나 자신의 안식을 알아서 찾을 테니까요. 하지만 관리직일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들은 모두 우수한 이들이기에 정신이 오염되었을 경우 관리자님은 신속히 이들을 제압해야 합니다.

관리직의 오염을 회복시키려면 오염된 정신력만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추후 알려드릴 White / Black 속성의 공격만이 유효할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사망하거나, PE-BOX를다 모으고 업무를 종료하실 경우 이들은 처분됩니다.



직원과 환상체의 조우

환상체와의 첫 조우는 누구에게나 긴장되는 일입니다. 특히 위험한 환상체일수록 그럴 것입니다. 직원들은 격리실에서든 밖에서든 환상체와 마주하면 정신적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높은 베테랑 직원들은 위험한 환상체를 보더라도 정신적 피해가 적을 것입니다. 반면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한 직원들이라면 금방 무너져버릴 것을 기억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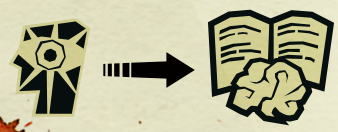
5 우수한 우리의 직원들

우수한 우리 직원들의 선별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4종류의 가치관들을 정립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가치관이 있겠지만 원활한 작업 프로세스를 위해 4가지로만 정립하였죠. 각각 용기/지혜/절제/정의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4종류의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의 상태를 명확하게 취득하기 위해 일정 시기마다 관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치관 검사를 합니다. 어떤 경험을 얼마큼 쌓았는지에 따라 가치관의 숙련도가 달라집니다. 1등급부터 시작하여 최대 5등급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각 가치관 등급의 합을 계산한 후에 우리 쪽에서 직원의 자동 승급심사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날 비웃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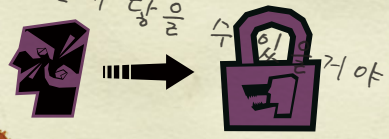
용기

직원의 육체적 강도가 더해질수록 용기 가치관이 증가합니다. 직원의 체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본능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용기가 쌓인다면 더 대담해지고 궂은일에도 쉽게 피로하지 않는 체력을 가지게 되며 물리적 공격에도 쉽게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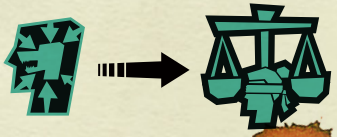
지혜

직원의 정신력이 강해질수록 지혜 가치관이 증가합니다. 직원의 정신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통찰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지혜가 늘어난다면 그들은 웬만한 스트레스에는 무디어질 것이며 환상체들의 정신 공격에도 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절제

직원의 작업속도, 작업 성공률이 상승할수록 절제 가치관이 증가합니다. 작업속도와 작업 성공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한 [애착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높아진 절제로 인해 그들은 어떤 일이라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부지런함과 작업의 성공을 이끄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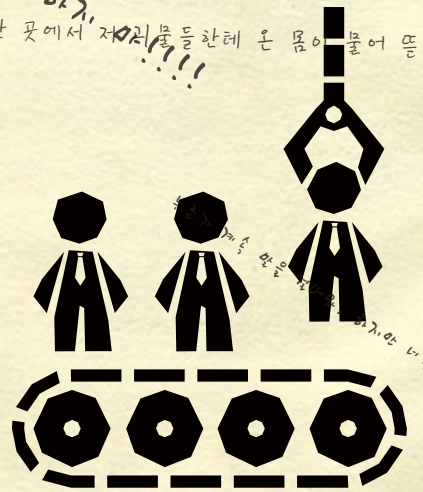
정의

직원의 공격속도, 이동속도가 상승할수록 정의 가치관이 증가합니다. 공격속도와 이동속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정의가 필요한 [억압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정의의 상승은 망설임이 없는 공격과 어떤 격리실을 향하더라도 거리낌 없는 발걸음을 끌어낼 것입니다.

각 가치관의 등급이 상승하게 되면 상위 작업이 진행됩니다. 용기 1등급 직원은 [Lv1 본능 작업]을하게 되지만 용기 3등급 직원은 [Lv3 본능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환상체의 종류에 따라보다 상위의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곧 만나러 갈지도 몰라.

이렇게 죽으려고 이 곳에 온게 아니잖아!



이 친구들이 나가고 싶다고 내게 아우성치고 부탁했어!

관리자님 반드시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직이든 사무직이든 결국 우리는 에너지 회사이기에, 에너지를 모아야 합니다. 그들은 소모품입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경보가 울리는데요?

그 경보가 혹시 'First Trumpet'인가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아직은 괜찮은 단계라는 뜻입니다. 업무 도중 일이 잘못 흘러가게 되면 일의 심각성에 따라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이것은 비상상황이며 총 7종류의 비상 상황이 있습니다.

First Trumpet

환상체가 탈출하여 시설과 직원에게 어느 정도 소소한 위해를 가하는 상황입니다.

Second Trumpet

상황을 개선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유능한 관리자님이라면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직원의 희생은 필수불가결하겠지만 말이죠.

Third Trumpet

만약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대다수 직원은 이미 사망한 상태이며, 탈출한 환상체들의 수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Fourth Trumpet

해당 지부는 끝났습니다.
관리자님의 역할도 끝났습니다.

Fifth Trumpet

이 경보를 관리자님이 들을 수는 없습니다. 매뉴얼적으로만 존재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여러 지부가 Fourth Trumpet 상황을 맞이하였고, 대다수의 환상체가 세상 밖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Sixth Trumpet

이 경보가 울렸을 때, 우리는 아마 날개의 지위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환상체에 인해서든, 다른 날개로 인해서든 말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 회사의 통제상황을 벗어난 것입니다.

Seventh Trumpet

끝났습니다. 환상체로 인해 인류는 수습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어떤 희망도 바라지 못하는 종말입니다. 이 상황은 언제까지나 최악 중 최악의 상황만을 가정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통제하죠?

비상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환상체든, 미쳐버린 직원이든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관리자님의 결단과 지혜가 요구됩니다. 각 환상체에게는 유효한 제압수단이 있습니다.

RWBP

우리는 여러 시행착오 끝에 4가지 공격유형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각 환상체들은 4종류의 공격유형을 가집니다.

RED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공격 유형입니다. 작은 생채기부터 곤죽으로 만들어 버리기까지 유혈 낭자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RED 수치가 높은 환상체라면 겉보기에는 자그맣고 귀여워 보이더라도 한 번의 공격으로도 직원의 형체를 못 알아보게 만들겠죠.

WHITE

RED가 물리적인 피해를 일컫는다면, WHITE는 정신적인 피해을 뜻합니다. 작게는 땀에 젖어 깨어나게 되는 악몽부터, 평생을 고통스럽게 보낼 반영구적인 트라우마 혹은 정신 붕괴를 통한 자살까지 이르게 합니다.

BL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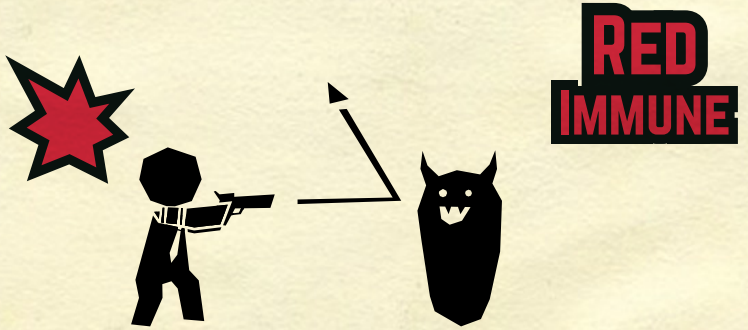
육체와 정신 피해의 복합체입니다. BLACK은 대상을 침식합니다. 몇 안 되는 생존자의 보고에 따르면 검은 가시들이 몸과 뇌에 파고드는 느낌이라 하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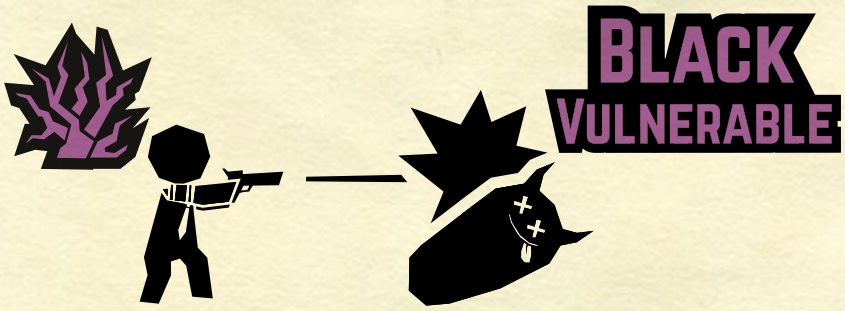
PALE

죽음 그 자체입니다. PALE은 영혼을 깎아냅니다. 그 어떤 강인한 육체나 뛰어난 지혜도 소용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저 평등할 뿐입니다.

올바른 제압방법이란?

환상체들은 저마다의 약점과 강점이 있습니다. 어떤 개체는 RED 피해에 면역이지만 BLACK 피해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얻고 각 개체에 효과적인 방법의 피해를 주어 제압하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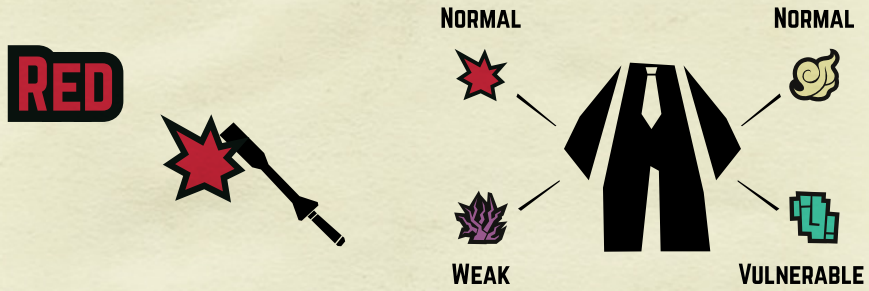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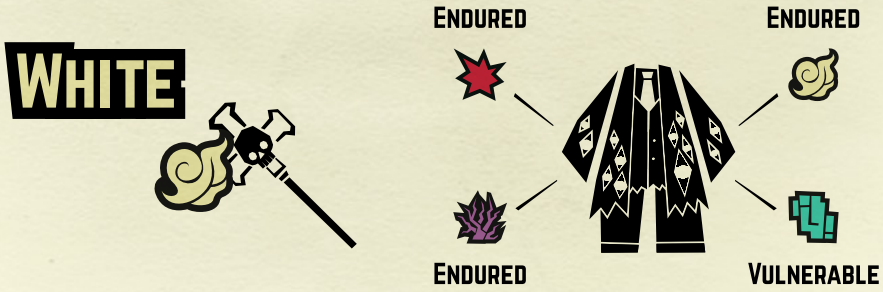
E.G.O

저희는 환상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결국 환상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E.G.O(Extermination of Geometrical Organ)는 환상체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비들을 지칭합니다. 공격수단과 방어 장비인 E.G.O Weapon과 E.G.O Suit가 존재합니다. 환상체들부터 추출한 원형으로 가공한 장비인 만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RWBP 유형의 공격을 가하거나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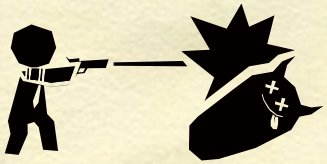
E.G.O 장비



E.G.O의 위력

각각의 E.G.O는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ZAYIN등급 E.G.O부터 ALEPH등급 E.G.O까지 천차만별의 위력과 효과를 가집니다.다만 아셔야 할 점은 높은 등급의 E.G.O일수록 환상체에게 가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받는 피해가 적어진다는 점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낮은 등급의 E.G.O로는 높은 등급의 환상체에게 적은 피해를 주고, 높은 피해를 받는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E.G.O Weapon Level < Risk Level



E.G.O Weapon Level > Risk Level

E.G.O Suit Level > Risk Level

E.G.O Suit Level < Risk Level

그럼 사무직들이
사용하는 권총은 무엇이죠?

일반적인 9mm권총입니다. 사실 관리자님에게만 공개되는 정보이긴 합니다만, 그들에게 지급되는 권총은 환상체 제압을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직 매뉴얼에는 호신용과 위급상황을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지만 말이죠. 권총의 사용법은 끝에 몰린 순간 스스로가 알게 될 것입니다.

E.G.O는 어떻게 얻는 것이죠?

E.G.O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당 환상체의 원형을 추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형은 어떻게 추출할 수 있냐고요? 원형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일정 관찰수준을 만족해야 하며, 해당 환상체의 고유 PE-BOX를 소모해야 합니다. 누누이 언급한 것처럼 PE-BOX는 환상체의 관찰을 진행하게 해주며 공격수단과 방어 장비를 추출하게 해주는 훌륭한 자원입니다. 환상체마다 PE-BOX를 얻는 난이도가 다를뿐더러 요구량도 다르니 이 점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G.O는 어떻게 장비하죠?

도감에서 PE-BOX를 지급하고 E.G.O를 만드셨다면 배치파트의 E.G.O List 버튼으로 보유한 E.G.O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G.O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직원이 장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E.G.O마다 장비하기 위한 직원의 가치관 적성 요구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G.O를 장비한 직원이 죽었어요!

만약 E.G.O를 장비한 직원이 사망하거나 처분된다면 해당 E.G.O를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PE-BOX를 모으고 추출해야겠죠.

환상체도 E.G.O도 결국 모두 인류 무의식의 원형으로부터 비롯된 존재입니다. 앞으로 관리자님이 만나게 될 직원, 환상체, E.G.O 모두 한 꺼풀 벗겨내면 그 본질은 인간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상체 기록

공포에 직면하여 미래를 창조하라

ZAYIN

No. O-03-03
단 한번의 악과 수백가지의 선행

그것은 사람의 대화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악'을 먹는다.

선과 악의 모순성에 대해 알고 있고 텅 빈 눈구멍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응시하기만 하는 말 없는 환상체.

십자가에 거대한 두개골이 가시나무 왕관으로 같이 묶여 있는 모습이다. 바닥에서 약 2m 정도 띄워져 있다.

그것은 사람의 대화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악'을 먹는다. 투입된 직원은 앞에 앉아서 (일어서도 되는 것 같다) 자신이 행한 '악' 에 대해 고해를 해야 한다.

〈실험기록 일부 발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를 3단계로 구분을 하여 각각 1, 2, 3단계로 정의했다. 1, 2단계 일 때는 에너지가 미약하게 상승했다. 이후, ■■■■ 직원을 투입해 3단계 수준의 잘못을 고하게 했다.

직원이 투입 된 지 1분 후 환한 빛이 번쩍이더니 회사 전체가 정전되었다. 해당 직원은 약 6년 간의 모든 기억을 잃었다. 이후 실험은 중지됐다.

〈녹음 기록 일부 발췌〉

■■■■ 직원: "이건 ■■■■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당시 나랑 같이 다니던 친구들 몇 명이 있었어. 그냥 파티 같은 거였는데, 동물 분장을 하기로 했거든? 그중 한 명은 사슴 분장을 했어. 사슴 분장 이래 봐야 뿔 같은 게 달려 있고 칙칙한 무늬가 박혀 있는 옷에 불과했어. (중략) 걔가 어떻게 해서 그 숲속으로 들어갔는지는 몰라. 걔가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건 한 시간쯤 지난 후였어. 우리는 나무 사이에서 헤매던 그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고, 소리를 질렀지. 하지만 그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인 줄 알았나 봐. 우리를 발견하고 뛰어오려 했어. 그리고 어디선가 총알 소리가 몇 발 들렸고... 피가 내 발끝까지 닿는 게 보였어.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동물 분장을 하지 않았지. 그게 다야. 근데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거 맞아?"〈기록 종료〉

이후 우리는 자세한 경위를 알기 위해 해당 직원의 고향에서 해당 시기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저스틴 이란 이름의 남자아이가 사슴 사냥철에 사슴 옷을 입고 숲에 들어가 사냥꾼들의 엽총을 3발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의 고해와는 다르게 저스틴이라는 아이는 또래들 사이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였으며 엽총 소리가 들리기 직전, '달려, 저스틴, 달려!' 라고 아우성 치는 아이들의 고함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했다. 이후 사건에 관련된 아이들은 모두 이사를 갔고 사슴 사냥은 금지되었다.

참회

E.G.O

얇은 이해를 뜻했다. 우리는 원형을 추출해서 물질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관찰자는 이를 무기로써 재형상화했다. 이것이 우리가 관찰하는 행위를 중요시한 이유다.

공허한 두개골 속의 눈구멍은 죄를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감싼 면류관은 죄를 탓하고 있다. 더 커다란 선을 위해서 피를 보게 될 의지가 있는 자에겐 기꺼이 사용이 허락될 것이다. 하지만 정의라는 걸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ZAYIN

No. F-05-52
뚜껑 따인 웰치어스

어디선가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직원들의 기록 (출처불명)〉

모두 알다시피 이 회사에는 직원들이 모이는 동호회 같은게 여러 개 있음. 어느날은 너무 심심해서 정모 한번 나가봄.

모임장이 와서 웰치어스를 들고 오더니 하나씩 나눠주더라. 뚜껑이 따져있었는데 그냥 캔 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해서 따줬나 싶었음ㅋ 고맙다 하고 벌컥벌컥 마셨지

그리고 동호회장이 이제 장소 이동하자고 자기가 봉고차까지 렌트했다고 그래서 다들 차에 탐. 근데 갑자기 급 피곤해지면서 잠이 오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도 좀 피곤한 것 같다고 그래서 나도 걍 의자 펴고 눈 감음.

하…뭘 믿고 쳐잤는지.. 꿀잠 자고 있는데 어디서 갈매기 소리가 들림??? 핸드폰 알람인가 싶어서 잠시 뒤척였는데 이번엔 파도 소리가 들리 는거야. 알람치곤 지나치게 생생한데? 싶어서 눈 뜨니까

갑판이었음ㅋㅋㅋㅋ 눈앞에 새우 한 마리가 펄떡되면서 몸부림치고 있더라 순간 든 생각이 아 망했다. 꿈이겠지 싶다가도 새우가 너무 생생하게 펄떡 되고 있어서 정신이 확 돌아옴.

주변에 선원으로 보이는 사람들 있는데 다 우락부락하고 말 잘못하면 다시 기절시킬 거 같았음. 다들 나 보면서 낄낄댐. 멍때리고 있는데 라면 끓이더라. 새우 넣고 게 넣고 조개 넣고 다 쳐 넣고. 그리고 나한테 바다 뛰어들 사람처럼 굴지 말고 먹으라고 함.

생각 없다 하니까 여기에서도 수면제 탔을거 같냐고 비웃으면서 덜어주더라. 일단 살아야지 싶어서 먹음. 근데 의외로 맛있었음ㅋ

그리고 일단 밧줄정비 하는 법부터 알려준다고 그러더라. 이땐 걍 다 체념해서 네…함.

한 달동안 통발 건지는거 배우고 미끼통 채우는 거 배우고 그물손질하고 이 밖에도 라면 끓이고 별 짓 다 했음. 나중엔 고등어로 회 썰고 매운탕까지 발전함. 다들 맛있다고 해주더라 헤헤

태풍 몇 번 겪고 나니까 서로 동료애 같은 게 생겨서 정도 들었음. 고래도 몇 번보니까 별로 신기하지도 않게 됨. 나중에 선장이 너 이쪽 일 잘 맞는 것 같은데 아예 정식으로 일 할 생각없냐고 그러더라.

생각해보니 회사도 잘렸을거고 어떻게 벌어먹고 살까 싶어서 솔깃했음. 사실 지금까지 어디에서 칭찬들은적 첨이라..

지금은 한 계급 올라서 잘 살고 있다. 하루 일 다 끝나고 바닷물이랑 땀이랑 뒤덮힌 상태로 소주 까는게 진정한 행복임.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문득 문득 생각 남. 나처럼 잘 살고 있겠지 라고 애써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아 출항시간이다. 그럼 안녕.

찰지게 실린 광고

조잡한 플라스틱 재질

체리 맛 오다 맛 포도 맛

큰 천양어선에서 깨어난 직원

단맛은 매우 중독적이다.

소다

E.G.O

유난히 새우를 좋아했던 직원이 마지막으로 추출한 E.G.O. 청량해 보이는 보랏빛의 권총과 만지면 말루미늄 재질의 느낌이 묻어나는 방어구다. 사용할 때마다 아주 희미한 포도 향기가 얼핏 스친다.

ZAYIN

No. O-05-47
만지지마

그렇게 눌러봤으면서 아직도 궁금한 게 남아있는 거야?

정말 누르고 싶게 생긴 빨간 색 버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자 모양의 기계다. 주위에는 오래되어 보이는 낙서들이 있다. '부탁인데, 버튼은 누르지 마' 등의 내용이다.

많은 직원이 하는 호소 중 하나가 버튼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해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라고 한다. 과장이라고 생각되었으나 후유증에 대해 심각하게 주장하는 직원들의 수가 많았기에 이에 대한 예방책을 수립 중이다.

환상체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자유의지' 인데 본 환상체는 자신의 버튼을 누르게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돼 무리 없이 환상체 라는 개체에 속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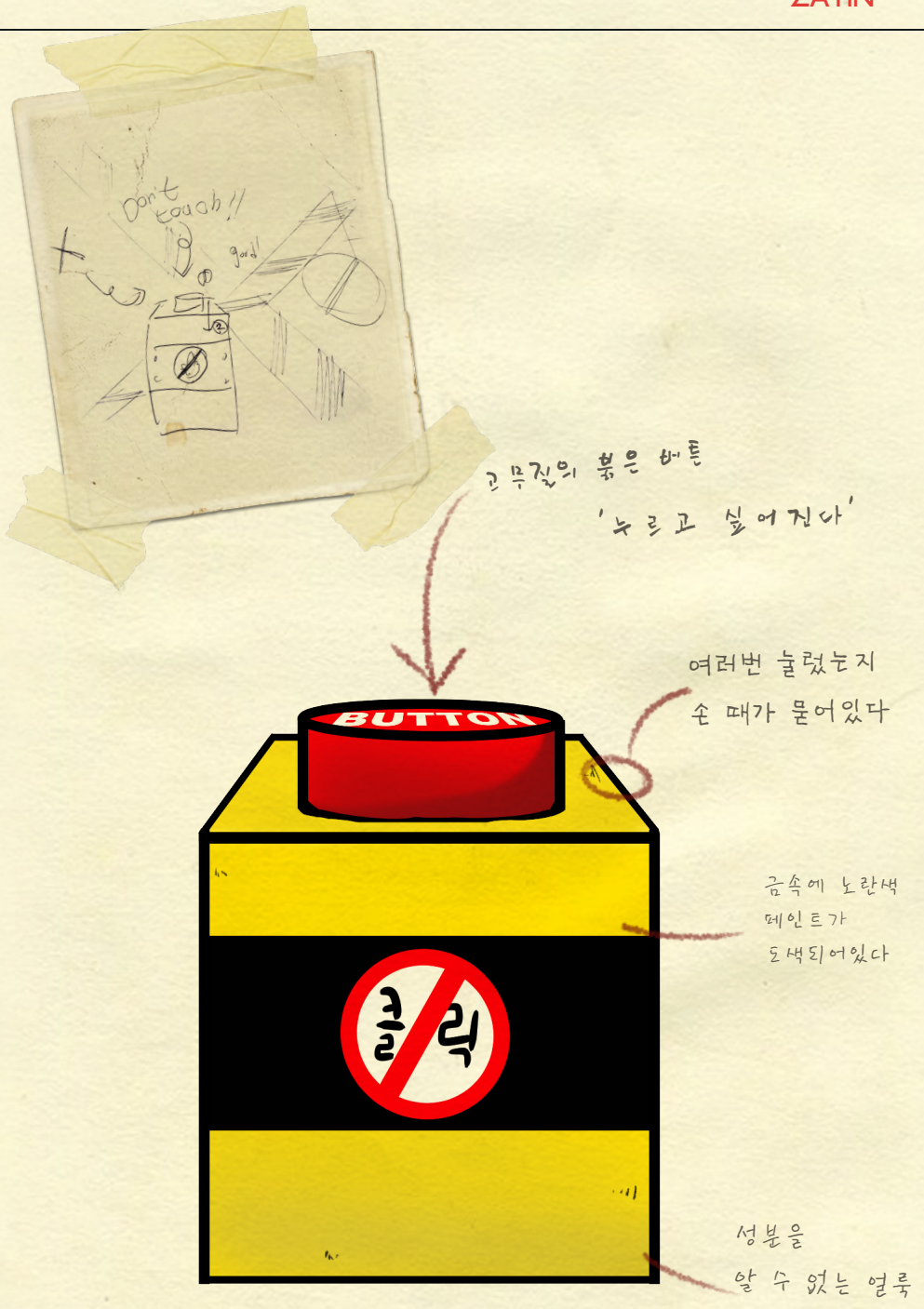
버튼을 누를 경우 벌어져선 안 될 일들이 벌어진다. 재앙이 내린다 부터 시작하여 무지개색 빛이 쏟아지며 유니콘이 내려온다, 회사 지하 깊이 묻어두었던 모든 것을 초기화시킨다던 폭탄이 터진다든가 하는 각종 괴담이 퍼지고 있지만 모두 아니다.

누르고 싶게 만드는 호기심과, 시시때때로 모습을 바꾸어 실수로라도 버튼에 손이 가게끔 유도하는 교묘함을 갖추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직원 증언 일부 발췌〉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그 환상체의 격리실 앞에 가서 버튼을 누르기 직전의 상태였다니까요, 주위 직원들이 절 끌어내지 않았더라면..."

해당 직원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지만, 정상 상태로 판명이 되어 작업에 복귀하였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묘하게 아쉬워하는 기색이 만연하였기에 심리상담을 명령했다.



ZAYIN

No. O-01-45
역병의사

"내가 너의 모든 질병을 고쳐 너를 낫게 하리라"

까만 중절모에 새 부리 모양의 가면을 쓰고 있다. 팔이나 다리 대신에 커다란 크기의 검은 날개가 돋아나 있다. 일반적인 수준의 대화가 가능하지만 많은 대화를 하지는 않는다. 세상은 끔찍한 전염병에 침식되어 있고 자신만이 그 병을 치료해줄 수 있으므로 직접 이 시설에 들어왔다고 주장한다. 언급하는 '병' 에 대해서는 의미가 불명하다.

그 외에 의료에 관한 경험이 있는지 직원들을 손수 치료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타인을 돕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며 동정심이나 이타심이 강해 보이는 이면이 종종 나타난다.

일주일간 관찰을 한 결과, 폭력성과 공격성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탈출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오히려 이 환상체의 태도가 대단히 신사적이며 (무려 12명의 직원이 이러한 묘사를 했다) 이로운 존재라는 사실이 굳건해졌다.

이마에 심한 상처가 난 알렉스 직원은 미처 상처를 다 치료하지 못한 상태로 해당 환상체의 격리실에 들어갔다. 평소에 대화가 거의 없다시피 하던 환상체는 알렉스 직원의 상처를 보자마자 그에게 말을 걸었다.

〈관찰기록 _1〉

"이마에 상처가 났건만, 어째서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까?"

알렉스가 말했다.

"응급처치만 얼추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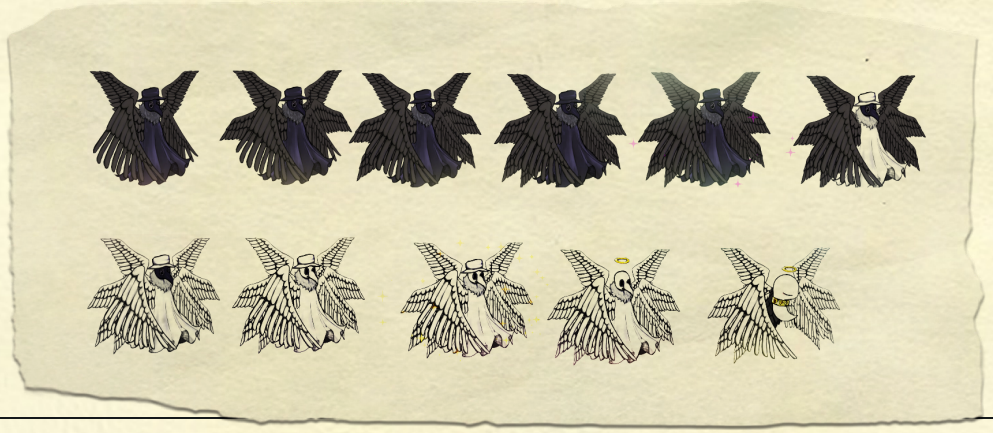
그러자 역병 의사가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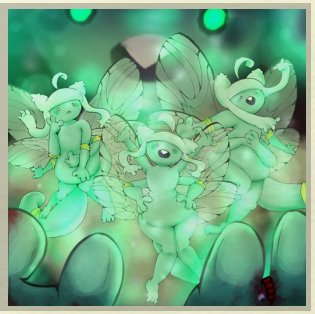
"내가 너의 모든 질병을 고쳐 너를 낫게 하리라.

알렉스 직원은 이후 완전히 아물어진 상처로 격리실에서부터 나왔다.

〈기록종료〉

축복은 신성하다





ZAYIN

No. F-04-83
요정의축제

요정들의 보살핌을 받는 동안은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다.

2쌍의 날개와 조그만 체형으로 마치 요정들을 연상케 하는 환상체. 군집을 이루고 있다.

특정 언어를 쓰지만 알아들을 수는 없다. 격리실에 출입하는 일부 직원들을 따라다니며 그들 만의 특별한 능력으로 상처 치유를 도와준다. 우리는 이를 '요정들의 보살핌' 이라 부른다.

요정들은 직원들을 지켜준다. 물론 당신이 평소에 선의를 자주 베풀었고 자연을 사랑하는 자였다면 기꺼이 당신을 보살펴줄 것이다. 보살핌을 받는 동안은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다. (더불어서 다른 직원들의 부러운 눈길 또한 만끽할 수 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만약 요정들이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반성 좀 하길 바란다. 에밀 직원과 내가 교대로 요정들의 격리소에 들어갔을 때, 요정들이 한치에 망설임도 없이 나에게 다가온 것처럼 말이다. 에밀 직원이 아닌 나한테만. (에밀 직원은, 그러니까 다들 알 거 아냐, 평소 행실이 어땠는지, 어제도 혼자만 간식을 먹고, 좀 거만했지)

〈해당 문서는 4등급 이상의 직원만 열람이 허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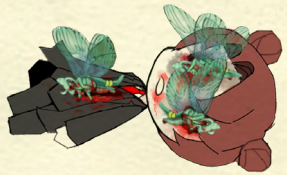
요정들의 가호를 받아왔던 웰터 직원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복부와 안면이 외부로부터 날카롭게 뜯겨 있는 상태였는데, 장기들과 안구들은 뭔가에 먹혀버린 듯 손실되어 있었다. 이해하기 힘들었던 사실은, 웰터 직원이 발견된 격리실은 White 특성 환상체의 격리실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요정들의 입가에는 누군가의 살점과 피가 묻어 있었다. 구태여 그 살점으로 대조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우리들의 세상에서 완벽한 선의로 인해 행해지는 결과들은 없다. 특정 직원을 좋아해서, 혹은 착한 일을 많이 하였으니, 숲속 요정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바보 같은 동화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고 만다. 요정들의 보살핌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선행에 비롯된 결과거나, 다른 직원들과는 다르게 특출난 무언가가 있어서 자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요정들은 단지 고기를 좋아하는 괴물이었고, '보호하는' 행위는 고기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것이다. 직원이 다른 격리실로 들어가면 먹이를 뺏길 것을 경계하여 먹어치운다.

하지만 직원들이 보살핌 자체에 큰 만족을 하였고 사고율이 현저히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결과이므로 굳이 직원들에게 이 같은 진실을 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F-04-83의 식사



그들에게는 축제라고 불린다

그들이 뿜어내는 분진은 치유의 효과가 있다

* 먹이를 구하지 못했을 때 가장 약한 동족들을 대상으로 축제를 연다

자체적으로 빛을 낸다

섭취한 영양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체내에 비축한다

날갯짓

E.G.O

요정들의 가호를 받은 무기는 옅은 빛으로 빛났다. 붙어있는 두 쌍의 얇은 날개는 당연하게도 절대 움직이는 일은 없다. 앙증맞은 형태와는 달리 E.G.O 자체는 묵직하다.

ZAYIN

No. Bald-is-awesome!
너 대머리야

당신은 바리깡의 전원을 켜기 시작했다..

경고 : 당신은 대머리머리 정신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글을 비대머리인 자가 읽는다면 급속도로 대머리화가 진행되는 행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를 저지하고 싶다면 해당 환상체의 작업에 투여되어야만 합니다. 덧붙여서, 당신의 베개에서 머리카락이 열 가닥 이상 발견되었을 땐 해당 도감을 세 번 이상 정독할 것을 권합니다.

빌 : 나 정말이지 엄청나게 행복한 꿈을 꿨어!
브라이언 : 로또라도 당첨됐어?
빌 : 출근을 했는데 모두가 대머리가 되어 있는 거야! 너도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모두가! 어쩌면 회사 밖 사람들까지도!
브라이언 : 음..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은데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

빌 직원은 이날 노래하는 기계에 의해 불운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직후에 Bald-is-awesome! 환상체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Bald Bill 을 추모합니다.

해당 환상체를 접촉하면 약 1시간가량 대머리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말하거나 쓰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자신을 대머리화 시킨다.

대머리가 된다면 머리를 감고 말리는 시간이 절약됨으로써 남들보다 부자가 될 수 있다.

해당 환상체에게 대머리인 직원을 투입한다면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것이다.

대머리는 탈모 걱정도 없다.

만약 비대머리인 직원을 투입할 시 해당 직원은 스스로의 머리를 삭발한다.

대머리는 태양권도 쓸 수 있다!

이 환상체의 목표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대머리화 시키는 것이다.

대머리인 직원이 많아진다면 우리 회사에 전구가 필요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엄청난 예산을 아낄 수 있다.

대머리 직원을 보내지 않을 시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리고 방금 회사 규칙을 몇 가지 추가함

* 원형 탈모인 직원을 놀리는 XXX를 발견할 시 해당 직원을 '다모증'이라고 부르며 휴게실 이용을 무기한 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내 옆에서 조용히 탈모약을 복용하고 있는 T.H 직원에게 이 도감을 바친다.

폭성하다, 다모증의 상태이다, 꽁짝하다

아름다워지고 있다. 아직 다모증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아름다움이 묻어나온다

아직도 머리카락이 찰랑거리는 당신은 Bald-is-awesome!빔을 맞으셨습니다.

작업을 진행하지않으면 이번 달 안에 당신과 나머지 직원들의 모든 머리가 빠지고 대머리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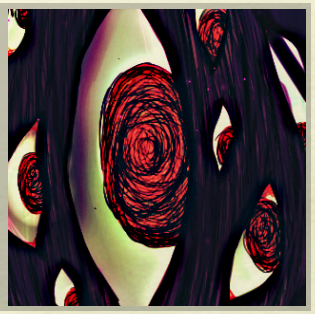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30...29...28...

완벽하다. 이 모습이야 말로 완결무결한 인간의 이데아

터 표

E.G.O

고급스러운 자태를 품기는 가죽 재킷과 글록. 다만 어떤 불순물도 없이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고수한 자에게만 해당 E.G.O를 착용할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E.G.O를 모두 착용한 직원의 모습은 25년간 머리가 벗어질 때까지 악과 맞서 싸운 한 형사를 떠올리게 한다. 잘만 활용한다면 날아가는 헬기까지 격추할 수 있을 것 같다.



TETH

No. T-02-43
거미봉오리

차마 고치가 된 직원 시체를
구하러 가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어둠 속에서 몸을 숨긴 채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거대한 거미 환상체.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바닥에는 조그만 새끼 거미들이 기어 다니고 있다.

피터 직원이 조그만 거미 중 하나를 실수로 밟자마자 천장에서 거대한 거미가 내려왔다. 그가 천장으로 끌려 올라간 건 순식간이었다. 고치가 된 피터 직원은 격리실 천장에 매달린 채 거미의 사랑스러운 자식들의 넉넉한 식량이 되겠지.

당연하게도 고치가 된 직원을 구하겠다며 자원하는 직원은 없었다.

〈동물 백과사전 일부 발췌〉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거미의 고치 속 먹이들은 사망한 상태가 아니다. 그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다. 신선도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추측이 제일 많다. 거미의 독에서는 심장질환을 유발하여 치료 후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곤충들은 고치에 갇혀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새끼들의 밥이 될 날 만을 기다리며 느려져 가는 자신의 심장박동을 듣게 되는 것이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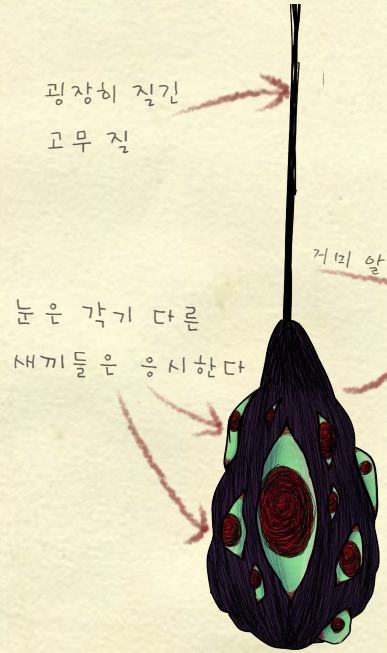
〈복지부서장의 편지 일부 발췌〉

보내주신 건의사항은 잘 읽었습니다. 다만, 우리 회사의 환상체는 귀하가 추측한 사실과는 근거가 다소 빈약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격리실에 고치 상태가 된 직원이 있으면 에너지 생산량이 더 향상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시한 거미 봉오리 격리실에 고치가 생길 경우, 그리고 그 고치가 직원임이 확인될 경우 구출을 위해 다른 직원을 투입해야 한다' 는 관리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귀하의 의견을 고려하여 거미 봉오리 환상체에 대한 조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확인이 되지 않은 괴담으로 다른 직원들을 불안하게 하여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는 규범에 따라 사직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로보토미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의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로보토미 복지부서장-

직원들 사이엔 괴기스러운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런 회사에 괴담 한두 개 쯤은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법 하지만 어째 점점 목격자들도 많아지는 것이 흥미롭기까지 했다. 괴담의 내용은 대충 이런 것이었다. '밤만 되면 격리실에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린대..' '알고 보니 며칠 전 실종된 알렉스의 목소리였다지 뭐야..' '무섭고 어두워서 살려 달라는 내용이래..'

격리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미줄이다



T-02-43의 희생자. 고치 속에서 점점 희망을 잃으며 죽어간다

모체와 다르게 물리적 충격에 취약하다

모체가 마련한 고치 내부에 파고들어 안에서부터 밖으로 포식한다

적안

E.G.O

거미 봉오리는 수십 개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이들은 언제나 배고파했다.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어둠 속에서도 먹이를 찾기 위한 눈동자를 반짝였다. 그 잔혹함은 매우 강렬해서 적이 한때 아군이었을 자라도 망설임은 없을 것이다. 그 집념은 E.G.O.에까지 이어져 탁월한 대상추적능력이 발휘되었다.

TETH

No. O-04-84

고기 초롱

그건 꽃이 아니야. 당장 근처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대피명령을 내려.

언제나 격리실 바닥에 박혀 있으며 성분을 알 수 없는 발광체와 눈의 일부만 보인다.

온전한 실체가 어떤 모습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복도를 통해 이동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지반을 통해 이동하므로 탈출 시 경로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 이유로, 탈출 감지 또한 되지 않는다.

〈음성기록 일부 발췌〉

로이드 : 지금 정보팀 근처에 있지? 그 구역에서 직원들이 실종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근처에 공간간섭을 하는 환상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

폴 : 네? 하지만 주변에 그런 부류의 환상체는 없어요, 탈출한 환상체도 감지가 되지 않았네요.

로이드 : 샅샅이 찾아봐.

폴 : 로이드 씨, 환상체는 보이지 않고 바닥에 조그만 꽃 같은 게 피었어요.

로이드 : 무슨 소리야? 꽃이 왜 피고 있어.

폴 : 꽃봉오리가 밝게 빛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요. 햇빛도 안 들어오는 이곳에서 식물들을 구경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빛이 정말 밝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이 이 꽃을 쳐다보고 있어요.. 당신도 한번 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빛은 정말 영롱해서 따뜻한 기분이 들고..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기분이 느껴져요…

로이드 : …. 그건 꽃이 아니야, 당장 근처에 있는 모든 직원에게 대피 명령을 내려. 한꺼번에 도망치는 것보단 한 명씩 천천히 움직이면서 대피해. 발걸음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폴 : 하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근처에는 아무도 없는걸요? 그런데 아까부터 발에서부터 미세한 진동이 느껴져요, 혹시 파이프 보수 공사가 오늘이었나요?

로이드 : 아, 망했군. 그냥 꽃 감상이나 마저 해..

〈기록종료〉

초롱

E.G.O

영롱하게 빛나는 발광체는 어둠을 밝히기에 용이하게 보인다. 더불어 어둠 속 미끼 역할을 해내는 데에도 탁월하다. 다만 군데군데 돋아난 잔 이빨들은 볼 때마다 섬찟하다.

TETH

No. F-02-44
미녀와 야수

하지만 사실 저주는 되풀이만 될 뿐,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혐오스러워하며 매일 매일을 비참한 울부짖음으로 보내는 환상체. 저주의 굴레를 끊고자 하지만 방법은 없다.

미녀는 초록색의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자였다. 동시에 매우 가난했다. 어느 날 그녀에게 한 가지 일거리가 들어왔다. 백작의 저택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많은 봉급을 준다는 것이었다.

백작은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백작의 성에 들어갔지만 모두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끔찍한 괴물이 사람들을 잡아먹는 것이 틀림없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아주 날카로운 칼 하나를 지니고 갔다.

여자는 백작의 저택에서 일했다. 소문과는 다르게 괴물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간혹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는, 누군가 여자에게 말을 걸었지만 상상과는 다르게 목소리는 매우 친절했고 높은 봉급을 주었다.

매일 백작의 집에서 일하며 그녀는 욕심이 생겼다.

"백작 괴물이 없다면 이 성도 돈도 모두 내 것이 되지 않을까?"

어느 날, 그녀는 낮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백작의 방에 들어갔다. 백작의 모습은 매우 끔찍했다. 수백 개의 눈에, 다리는 4개였고, 동물도 사람도 아닌 기괴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

여자는 생각했다. '이렇게 흉측한 괴물이라면 차라리 세상에 없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 그리고 항상 지니고 있던 칼을 들어 괴물을 찔렀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괴물은 놀랍게도, 웃었다.

"왜 웃는 거야?"

라고 미녀가 말을 하기도 전, 그녀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다. 눈은 수백 개가 되었고 몸이 털이 자라나기 시작했으며 종국에는 괴물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이제 성도, 돈도 모두 그녀의 것이 되었다.

….백작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져버린다는 소문이 있다.

저주의 시작 굴레는 끊을 수 있을까?

뿔

E.G.O

초록 눈을 가진 미녀가 제일 좋아했던 꽃은 달리아, 그대의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미녀의 행복은 흉측한 뿔과 함께 저물어버렸고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꽃말은 미련을 남긴 채 E.G.O에 씨앗이 맺혔다. 몇 번이나 제조를 거듭해도 봉오리는 시들지 않았다. 오래전에 이야기를 다한 꽃인 만큼 그 향기는 없다.

뿔은 적의 심장을 깊숙이 찌르며 생전에 다하지 못한 화려함을 더욱 뽐낼 수 있도록 붉게 물들겠지.

TETH

No. T-01-54
버려진 살인마

하지만 제일 불쌍한 건 나 같은 것에 죽어나가는 너희들이야.

분노에 녹아든 뇌로 인해 악의적인 외침만을 내지르는 환상체.

항상 이마에 상처가 앉아있다. 아무는 일은 없다. 주위의 모든 것들을 싫어한다. 온몸이 구속 구로 묶여있지만 그는 누구보다 자유로우며, 폭력을 저지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다.

그는 항상 구속 구를 입어야 했다. 누군가의 말로는 연방 교도소에 갇혀 있던 사형수라고 했다. 연구원들은 그 앞에서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아무리 단단한 구속 구를 입어도 그를 두려워했다.

선천적인 악함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은 살인마의 뇌를 원했다. 죄책감 없이 사람들을 죽인 살인마와 호기심으로 그 뇌를 들여보고자 하는 사람들, 둘 중에 누가 더 끔찍한지는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갖가지 약물이나 뭐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주입됐다. 그 중엔 인류의 미래를 위한다는 연구도 있었고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도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집약해보면 세상을 구할 수도 있었을 그런 것들이었다.

연구원들은 더욱 흥분해갔다. 직접적으론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들 사이에서 퍼지는 묘한 기류는 숨겨지지 않았다. 병을 고쳤다고 했다. 어떤 병인지는 몰랐다.

사형수는 점점 말이 없어져 갔다. 폭력성은 치유했을지라도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공격할 의사가 사라진 것으로 판명 나 구속복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

'제 머리가 철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머릿속에서 금속성의 울림이 들리고..'

나중 가서는 그는 점점 자해를 하기 시작했다. 자꾸만 머리를 벽이나 딱딱한 곳에 부딪혀 대는 것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머리가 금속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했다.

상처가 나면 알아서 멈추겠지 하고 내버려 둔 어떤 날에는 이마가 찢어져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자해를 멈추지 않았다. 구속복이 다시 입혀졌다. 하지만 예전처럼 두려운 시선이나 철저한 감시가 따라다니진 않았다.

연구원 한 명이 죽었다. 그의 머리는 이리저리 짓뭉개져 있던 탓에 신원 카드가 없었으면 확인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소홀해진 감시는 격리실의 문도 느슨하게 만들었고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 믿었던 사형수는 무릎으로 기어 다녔다.

'머리가…금속으로.. 뇌의 주름이 매끈해져서..'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했다. 그 후로 긴급한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치료는 중단되었고 그는 뇌 연구를 위한 해부용으로 쓰일 것이며 모든 게 끝날 거다. 어떻게 확신하냐고? 내가 그를 직접 마취시켜주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끝나,시작해,끝나,시작해,끝났다'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잣말이 들린다
연구원의 기록
그의 강렬한
후회가 E.G.O처럼
발현되었다
고기토의 효과?
정신으로부터 발현된
물질로 판단된다
연구 일째의 사진
끊임없이 자해시도를
반복했다
후회
E.G.O
인류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은밀한 연구가 지하에서 시작되었다. 사형수에게는 손톱만큼도 지킬 가치가 없었기에 구속복에 몸이 묶인 채 뇌가 썩어 나가도 아무도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장례조차 받지 못한 자의 최후에 대해 애도를 한 후 사용하는 편이 여러모로 좋다.

TETH

No. F-01-02
불타버린 소녀

너에게 간다. 곧 나처럼 잿더미가 되어버릴 너에게로.

까맣게 타버린 잿더미의 소녀 모습을 하고 있다. 더는 탈 것조차 남아 있지 않음에도 불은 절대 꺼지는 일이 없다.

말뚝처럼 성냥이 몸을 관통하고 있다. 평상시 성냥은 항상 불에 타 있지만, 환상체는 특별한 활동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종종 직원들은 성냥이 본체가 아니냐는 소리를 한다. 최근에는 잿더미의 형태가 우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비싼 돈을 주고 데려왔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고작 저거야?"

〈박사 ■■■■의 연구 일부 발췌〉

까맣게 타버린 몸은 그 아이의 부서진 희망. 그런데도 여전히 타오르는 촛불은 애정을 갈구하는 집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언제나 이 두 가지의 모순에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상담 기록 일부 발췌〉

"그 환상체가 탈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안일했던 탓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것이 할 줄 아는 거라곤 몸에 박힌 성냥을 태우는 일밖엔 없어 보였단 말이에요. 대처가 조금 늦었던 건 맞아요. (중략) 탈출을 시도하는 대부분의 환상체들은 눈앞에 보이는 직원들에게 공격을 가하려 하죠. 하지만 그건 당장 근처에 있는 직원들에겐 아무런 공격성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것의 발걸음은 다른 부서로 향했어요. 회사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곳이죠. 문턱에서 그걸 제압했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늦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절반의 몸통이 흩어져 있었을걸요."

4번째 성냥불

E.G.O

추출 시 원형 때부터 새까맣게 타 있는 채였다. 겉은 그을려 있지만 E.G.O.로서의 기능은 아무 문제가 없다. 잿가루처럼 보이는 디자인은 온 세상의 밝은 것들을 태워버리고 싶다는 증오를 떠올린다. 행복이나 온기나 빛 세상의 밝은 것들을 태워버리기 전까지 성냥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니 꺼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TETH

No. O-01-92
수줍은 오늘의 표정

오늘은 날이 좋네요. 당신은 오늘도 여전히 수줍나요?

오늘은 날이 좋네요. 당신은 오늘도 여전히 수줍나요?

마당에서 빨래를 정성스레 말리고 있었던 햇빛이 좋은 어느 날, 슬픔이 순식간에 밀어닥쳤다.

"우리 도시에서는, 기업에서의 희생을 매우 높이 사야 합니다. 그들의 죽음에는 경배를. 당신이 울 이유 또한 없죠. 오히려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표정이 왜 그런가요? 우리 도시에선 그런 표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맙소사,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 기분까지 우울해지네요, 조심해주신다면 좋겠어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감정 표현에 매우 서툴군요,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인가 봅니다."

"이봐요, 좀 더 기쁜 표정을 지어봐요, 그래야 외곽에 사는 이들이 우리를 더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밝게 웃어봐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다음에는 좀더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내도록 하세요, 이 사회에서 자신을 표현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어느 날, 또다시 햇빛이 너무나 좋았던 그런 날, 오래 전 정성스럽게 빨래를 말렸던 그 날처럼 자신의 가죽을 말렸다.

활짝 웃는 표정을 보여주자 그제야 모두 만족했다. 왜 그러냐고 묻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렇게 말했다. 그저 수줍어서 그래요, 수줍어서…

만일 피부 뒤의 얼굴을 보려고 시도할 경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좋지 않게 끝날 것이다. 피부 뒤는 오로지 그것만의 공간이므로 침해하지 않는 것이 이 도시에 남아있는 마지막 배려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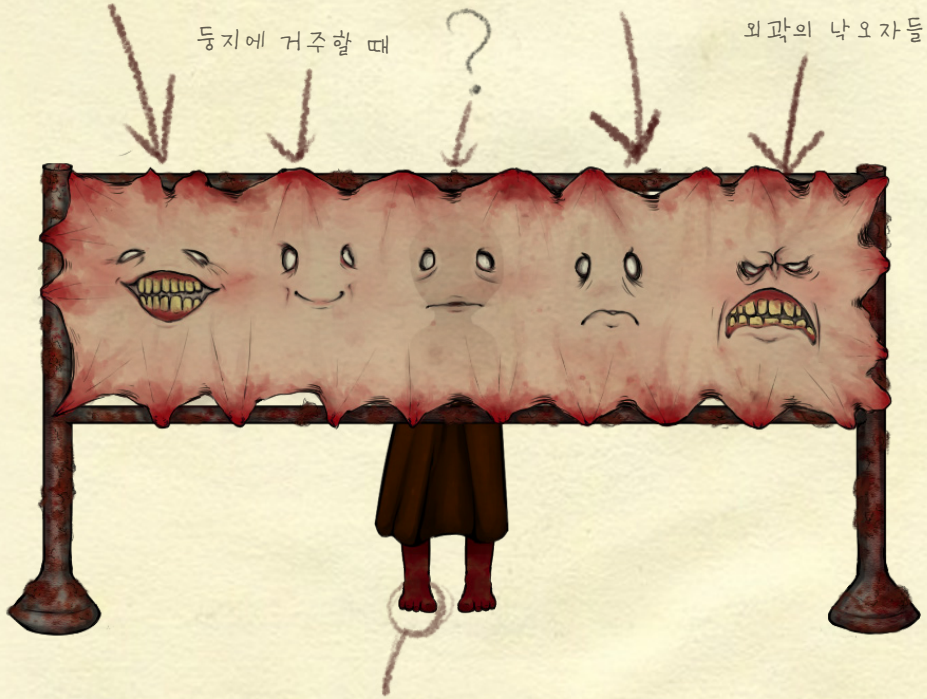
말린 가죽의 냄새인지, 표정 뒤의 곪아가는 얼굴의 냄새인지. 어쨌든 썩은냄새가 지독하다

날개에 입사 했을 때

둥지에 거주할 때

뒷골목 사람들

외곽의 낙오자들



꼼지락거리는 발가락은 수줍음의 연장선인듯하다

오늘의 표정

E.G.O

다양한 표정들이 헝겊처럼 덧대어져 있다. 표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건 수줍음의 한 형태일 것이다. 감출 수 없는 울렁인 감정들이 가끔 붕박쳐 오를 땐 얼굴을 가려버리자.

TETH

No. O-03-60
우주 속의 조각

눈 앞에 노랫소리가 보인다. 점점 화려하고, 순간으로 당신에게 다가온다..

아이의 순진한 낙서를 연상시키는 듯한 환상체.

성질 분석 결과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언어로는 설명하기 불가능한 형이상학적인 모습이 특징이다.

종종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활동을 보이며 실제로 이를 해독하려고 시도한 직원이 있었으나 (문서 1 참고 〈데이비드 직원의 노래 〉) 수일 내 정신오염도가 한계치를 돌파하며 심한 착란 증세를 일으켜 격리되었다.

해당 환상체의 일부분인 촉수는 인간의 경계를 관통한다. 촉수에 꿰뚫린 직원은 뇌에 반영구적인 손상을 입는다.

실험_1 〈의사소통의 가능성〉

우리는 환상체가 인간과 유사한 (혹은 인간보다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간단한 언어 교육을 시작했다. 그 결과 단어들을 조합한 간단한 의사소통까지 가능해졌다.

다음은 대화에 대한 해독을 시도한 결과다.

1. 어느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에서부터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냈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표정이 행복해 보여서 형상을 변화시켰다.

2. 종족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이곳에 왔으며, 그 지식을 완전히 이해하는 순간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3. 우주에는 어떠한 우연도 있을 수 없다.

문서 1 〈데이비드 직원의 노래〉

직원 데이비드는 '우주의 조각'과 교감을 하고자 했던 시도로 부서 내에 유명했다. 남들이 절대 손을 대지 않을 것 같은 책을 읽거나 망원경으로 행성을 관측하는 걸 즐길 정도로 평소의 취미 또한 독특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마침내 '우주의 조각' 의 영역에 들어서는 데 성공했다. 다만 그 조그만 되는 그걸 견디기에 역부족이었다. 데이비드는 정신병동에 들어가야만 했고 그곳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부르짖다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

녹음기록 : 우주 속의 메아리 (현재 삭제됨)

문서 2 〈노랫소리〉

… 왜 이들이 미쳐버린 이유가 저 환상체에 의한 것이었다고 미리 말하지 않았나요? 그들이 특정 날이 되면 다 같이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보여요. 모두가 자는 한 밤에 복도에서 반쯤 맛이 간 표정으로 위를 쳐다본 채 알 수 없는 소리를 질러 대는 환자들을 상상해봐요. 심리 상담이나 약물치료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가온다, 다가온다, 한참을' 이런 말밖에는 되풀이 하지 않고 그 외엔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언어랑도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 병동의 의사로부터

어딘가의 조각

E.G.O

제조 때마다 형태가 달라졌지만 수많은 노력 끝에 게슈탈트를 고정하는 데 성공했다. 직원들을 길고 끝없는 정신의 영역으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휩쓸리지 않는 편이 좋다. 때때로 사용자에게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이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직원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되므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다.

TETH

No. O-02-56
징벌 새

사람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악행을 저질러왔다.
잘못된 일인 줄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굳이
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악한 자들, 죄지은 자들, 그 밖에 모든 불경한 자들을 처벌해주는 조그맣고 자신감 넘치는 새다. 조그만 날개로 열심히 날갯짓 하는 모습이 제법 귀여워 보인다는 직원들도 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악행을 저질러왔다. 잘못된 일인 줄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굳이 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작은 새는 궁금해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존재가 없어서 그런 걸 거야. 그 역할을 맡아주는 누군가 생긴다면 다시는 세상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겠지?

생각하며 작은 새는 자신이 살아온 숲에서 나왔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E.G.O

부리

그 위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몸집 따윈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 무기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화력이 강력하다. 앞길을 막는 존재들에게는 일말의 용서도 필요 없다는 듯 거침없이 사용해주자. 탄환의 표면은 수십 개의 작은 이빨처럼 뾰족한 탓에 그대로 꿰뚫린다면 적에게 꽤 강한 고통을 줄 수 있다. 묻는 피가 많아질수록 방어구의 홈부 부분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비밀스레 꿈틀거린다.

HE

No. O-05-30
노래하는 기계

하지만 어떤 것도 사람 만큼 훌륭한 음악이 되지는 못했다고 요.

기다란 직육면체의 기계 형상을 하고 있다

환상체 주변에 접근하거나 해당 환상체를 건드릴 경우, 직원은 정신착란을 일으키며 자신의 몸을 해당 환상체의 본체 속에 집어넣는다. 이후 본체의 환풍구가 빠른 속도로 닫히며 내부에서는 환상체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작업 시간은 약 5분간 진행되며,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몇 번의 실험 끝에 환상체가 작업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으려 고자 하는 것은 '음악'이라고 판단되었다.

〈상담 기록 일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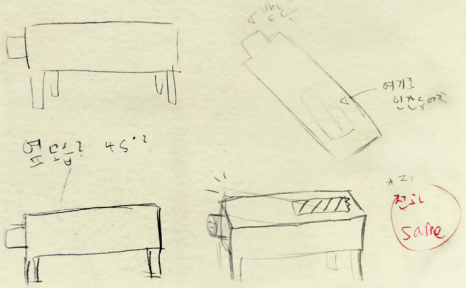
저는 그냥 관찰기록만 쓰다가 돌아가고 싶었지만 걔는 자꾸 이상한 태도를 보였어요. 혹시 모르니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고 제가 경고했지만 ■■■■는 한 발짝 더 내디디더니, 환상을 들려주겠다라고 말 하면서 스스로 그 안에 뚜껑을 열고 들어갔어요. 뚜껑이 닫히고 요란한 소리가 나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전혀 감이 잡히지 않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 행동도 할 수가 없었어요.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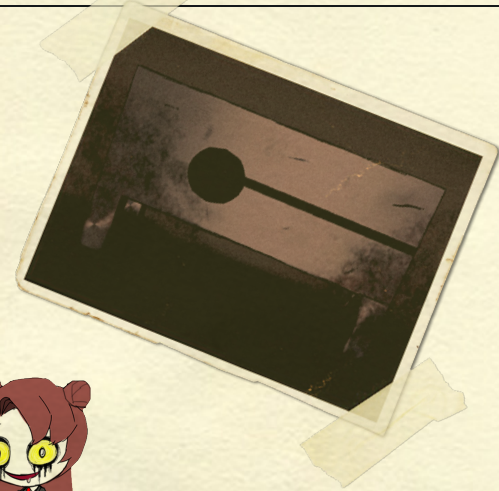
암전 속에서 어렴풋이 깨달았는데, 연주가 들리고 있었어요. ■■■■의 몸을 으깨고, 자르면서. 그건, 리듬이었어요. 그걸 인지하고 있는 제 상황이 저주스러웠을 때 즈음 뚜껑이 다시 열렸어요. 그 안에 있는 건, ■■■■의 아주 일부였어요. 어떻게 이것밖에 남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로.

〈사건 기록 일부 발췌〉

직원 한 명이 회사 내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후에 시체 일부가 '노래하는 기계'에서 발견되었다. 분석 결과 실종된 직원의 시체임이 밝혀졌다. 실종된 직원은 회사에 입사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신입사원이었고, 해당 환상체의 작업에 투여된 기록도 없었다. 용의자는 '노래하는 기계'의 담당 직원이었던 ■■■■이었다. 철저한 진상규명 끝에 ■■■■는 범행을 자백했다.

"미친 짓이었다는 거 알아요. 한 번 만 더 그 연주 소리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몇 달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걸요. 온갖 실험을 다 해봤어요. 고양이를 투입 시켰을 때는, 약 1분간을 연주할 수 있었고, 조금 커다란 개를 넣었을 때는 2분 30초 동안 음악이 들렸어요. 하지만 어떤 것도 사람 만큼 훌륭한 음악이 되지는 못했다고요. …어이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만족해요. 죽기 전에 한 번 더 들었다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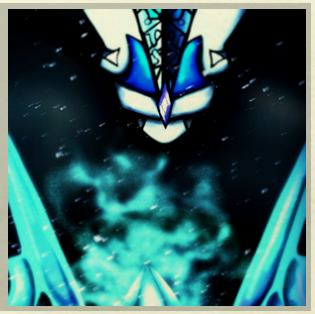




하모니

E.G.O

겉으로는 부식되어가는 기계처럼 보일지라도, 흘러나오는 노래만큼은 어떤 악기보다도 듣는 이들을 사로잡는다. 대신 사용자는 자신을 바쳐야 한다. 원래 예술이란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나오는 악마의 선물이다. 몸이 가루처럼 부서질 때까지 연주를 멈추지 말기를.



HE

No. F-01-37
눈의여왕

"눈이 서서히 녹고 있어요...그게 봄이 오고 있기 때문인지, 혹은 궁전이 부서지고 있는 증일지도 모르지만."

시린 겨울 숲에는 단 한 명의 여왕이 산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그렇듯이 카이는 매우 따뜻한 마음을 지닌 아이였다. 사악한 요정이 만든 거울 조각들이 온 인류의 가슴에 뿌려진 날, 카이는 보고 싶지 않은 것들 혹은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까지 보게 되었고 일평생 지내왔던 조그만 마을에서부터 벗어나게 됐다.

시린 눈보라 속에서 눈의 여왕을 만난 카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세계가 궁금해졌다. 그러고 나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카이가 당도한 눈의 궁전은 너무나 추웠지만, 눈의 여왕의 입맞춤으로 인해 그의 심장은 추위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워졌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즐거움도 없었고 길고 긴 겨울밤만 계속되었다.

겔다는 거울 조각에 찔리지 않을 만큼 강인했고 카이를 구할 만큼 용감했기에 눈의 궁전을 향한 모험을 기꺼이 떠났다.

하지만 눈의 궁전을 향한 여정은 너무나 험난한 탓에 겔다는 상처를 입었고 고통스러워했으며 때로는 울음을 터뜨렸다.

드디어 겔다는 카이를 만났고 장미꽃이 만발한 봄날이 되었다.

봄이 되자 눈의 여왕이 살았던 궁전은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고 카이의 가슴에 박혀 있던 유리 조각도 녹았다.

그러자 홀로 남은 눈의 여왕은…. (누락)

우리 손으로 그녀를 냉동 관에 넣은 날을 기억한다. 언제부턴가 그녀에게서는 만연하던 웃음이 사라졌고 울다가 웃다가 만을 반복하다 결국은 잘린 손목과 함께 붉게 변한 욕조에서 건져 올려졌지.

우리는 죽음을 믿지 않았다. 나는 평생 경멸해 왔지만 유일한 해답이 되어버린 '기계'로부터 그녀를 재탄생시키게 될 것이었고, 아마 욕조 안에 죽어가던 그녀는 이런 나를 혐오스러워했을 게 분명하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

어느 날 '그것'이 말했다.

"당신을 기억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난 내 손으로 직접 만든 내 창조물을 그대로 부숴버리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눈의여왕 초기 관측모습

첫 번째 키스: 추위를 느끼지 못한다
두 번째 키스: 모든 것을 잊는다

추출 중간단계

결투에 능리한 모습.
긴 겨울밤이 끝났다

장미검

서리 조각

E.G.O

눈의 여왕은 아름다웠지만 심장이 있어야 할 곳은 텅 빈 채로 얼어붙어 있었다. 눈으로 버려졌기에 언젠가는 흔적조차 없어지겠지. 언젠가 눈이 녹을 정도로 날이 따뜻해진다면 마음도 녹아내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장미가 만발하고 눈의 궁전은 부서졌다. 아무도 그곳에 잠들어있는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다.

HE

No. F-05-32
따뜻한 마음의 나무꾼

"이 곳엔 수많은 심장이 있는 숲.
베어도 베어도 여전히 숲은 울창하다."

몸 전체가 양철로 이뤄졌으며 인간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기계 환상체. 양손에는 커다란 도끼를 치켜들고 있는데 움직임은 없다. 마치 꼼짝도 할 수 없다는 듯.

한 부분씩 불완전함이 있었던 친구들은 부족한 만큼 서로의 도움을 받아서 각자의 소원을 이루는 여행길을 떠났다. 뇌를 원했던 허수아비, 심장을 되찾고 싶은 양철 나무꾼, 용기를 가지고 싶었던 사자와 고향을 잃어버린 도로시.

위대했던 마법사라고 생각했던 자는 대신에 납으로 만든 심장을 주었지.

'하지만 너는 기계잖아, 그건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그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지? 기계에는 심장이 필요 없지,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빈손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쉬우니까 이거라도 받아, 그리고 너희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전하는 거야, 소원은 틀림없이 이뤄졌다고.'

만족하여 떠난 이들도 있었다. 헤어진 친구들은 다시 볼 수 없었다. 납은 딱딱하고 차가워서 슬펐다.

양철 나무꾼은 동의할 수 없었다. 분노로 인해 휘두른 도끼가 마법사의 심장을 관통했다. 심장은 따뜻하고 힘차게 펄떡거렸다. 마법사의 텅 빈 구멍에는 대신에 납을 넣어주었다. 불만한 광경에 나무꾼은 처음으로 웃었고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쾌감을 느꼈다.

곤죽이 된 심장들을 한 대 움켜 짜으면서 '가슴' 속에 집어넣는다. 더 많은 심장을 가져도 모자라다. 한때 나무꾼이었던 자는 이제 나무 대신 사람을 벤다. 이곳엔 수많은 심장이 있는 숲. 베어도 베어도 여전히 숲은 울창하다. 마음이 따뜻한 자들일수록 심장 역시 따뜻하다.

심장이 떨어져 나가면, 나무꾼은 슬픔을 못 이겨 주저앉을 것이다. 텅 빈 마음을 틀어막고. 자신에게 남은 유일을 뺏어가지 말라는 듯.

신체를 '심장'이라는 개념으로 형상화 시키기만 하면 되는듯하다

피의 증기로 배기관은 막힌 지 오래다

오랫동안 고독 속에 방치되었는지 이끼가 돋아나 있다

가장 취약한 심장이 들어가는 자리이다. 하지만 나무꾼은 모두에게 자신이 손에 넣은 감정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듯하다

수많은 생명의 피가 끈적하게 굳은 채 남아있다

벌목

E.G.O

나무든 사람이든 다채롭게 대상을 베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무기와 튼튼한 방어구.
도끼의 날만큼은 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언제나 반질하다.

HE

No. O-01-67
래티씨아

소중한 친구들을 두고 올 수 없어서
슬펐던 아이는 기막힌 생각을 해냈지!

어린아이 크기와 유사하며, 밝음성 있는 미소를 시종일관 유지하는..

래티씨아의 선물

엄청 엄청 귀여어운 꼬마아이다

꼬마 아이라는 건 작고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뜻이래!

아이는 엄청 먼 곳에서 왔어!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꼬마가 직접 만든 선물을 나눠준다.

다만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비밀이야!

이것도 정말 정말 중요한 비밀인데 꼬마에게는 많은 재주가 있다!

소녀는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이곳에 친구들을 데려와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소중한 친구들을 두고 올 수 없어서 슬펐던 아이는 기막힌 생각을 해냈지!

내 친구들을 꽁꽁 잘 숨긴 다음에 선물처럼 보이게 한다면 모두 깜짝 놀라겠지?

그리고 내 장난에 다 같이 웃을 수 있을 거야!

앗 선물 내용도 다 말해버렸다

이곳에서도 많은 친구를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

꼬마는 수줍음이 많이 타니까 몰래 선물을 줄 거야!

떠나는 건 아쉬워, 나랑 더 놀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곳 사람들에게서는 웃음이 보이지 않아!

쓸쓸해 보인단 말이야 그런 건!

그래서 꼬마 아가씨는 결심했어! 이곳에 웃음소리를 되찾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내 재미난 장난에 모두가 즐거워 해준다면 기쁠 것 같아!

시간의 간섭을 받는 듯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

선물을 받은 대상의 정신부터 컴식 후
육체를 제물 삼아 물질계로 발현된다

O-01-67에게만
보이는 대상을
응시한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방을 꾸리

웃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선물 받았다고 한다

Laetitia

E.G.O

투박한 디자인은 오래전 제작된 듯 보인다. 조그만 장신구는 유쾌함을 동경하는 어린아이의 소망처럼 남아있다. 코트에 달린 리본 장식은 아이의 유쾌함에 대한 동경을 보여준다.
친구를 두고 올 수 없었던 꼬마는 기막힌 방법을 생각해냈다.

HE

No. F-01-69
마탄의 사수

역시 네 말 대로 어떤 사람이라도
맞출 수 있는 마법의 탄환이로구나.

악마가 마침내 바란 것은 절망이었다.

절망은 마음을 좀먹으며 앞으로 나갈 의지를 잃게 만들기 때문이다. 앞에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영혼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지옥, 악마의 영역 말이다. 악마가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단순한 짓거리보다 절망에 빠지는 사람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걸 보고 우리는 '악마에게 영혼이 팔렸다'라고 말한다.

한 사수가 악마로부터 총을 받았을 때, 악마는 마지막 탄환은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를 관통할 것이라는 유치한 계약을 내걸었다.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찾은 뒤 명중시켰다. 그러고 나서 악마에게 말했다. '역시 네 말 대로 어떤 사람이라도 맞출 수 있는 마법의 탄환이로구나'

마지막 탄환이 영영 사라진 사수는 수많은 세계를 돌아다녔다.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도, 악한 이를 물리칠 때도 있었지만 그건 사수의 어떤 관념이라기보다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한 결과였다. 어떤 세계에서는 정의로운 사냥꾼, 또 다른 세계에서는 피에 물든 사수라고 불렸다.

어느 날, 사수는 어느새 자신의 주위에 계속 맴돌던 악마는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왜일까. 이미 자신의 영혼은 처음부터 지옥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계약조건이 완료되었으니 악마는 물러난 것이다.

악마가 되어버린 마탄의 사수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방아쇠를 당겼다. 악마와 같은 이치로, 탄환은 당신이 원하는 곳을 관통할 것이다. 영원히.

마탄

E.G.O

원형의 위력까지 온전하게 추출할 수는 없었지만, 마력은 여전히 강력했다. 무기의 총알은 수평선을 따라 북도를 가로지른다.

HE

No. T-05-41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온 바닥을 덮은 선혈들, 울려퍼지는 괴성, 도망치는 사람들..

하얀색 청소용 로봇. 스위치처럼 생긴 빨간 색 눈이 특징이다. 항상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본래는 대량 생산 가정용 도우미 로봇이었다. 뒤에서는 '손이나 발에 걸레와 빗자루, 요리도구, 경범 기능 등등을 결합하여 짧은 시간 내에 최대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획기적인 로봇! XX사에서 제조'라고 쓰여 있다.

기분 나쁜 상태를 주위 환경이 더럽다는 것으로 인식하여 본격적인 청소 상태로 돌입한다. '오염 감지 완료 - 청소 시작' 같은 말을 한다.

본래는 청소도구가 달려있어야 할 손 혹은 발 위치에 날카로운 절단 도구가 달려있었다. 소문으로는 고기 등을 깨끗이 절단하기 위해 제작된 상태 에서 실수로 '청소하기' 명령을 잘못 입력하였다는 말이 있지만 확인할 수 없다

청소를 한 후 사람들의 괴성이라는 경험의 누적으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하나의 칭찬 혹은 계속하라는 식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계 내에 삽입되어 있었던 녹음 기록〉

???: 어머나~ 새로 나온 도우미 로봇이네.

???: 나도! 나도!

???: 우리 ■■■■도 만져보고 싶니? 그럼 ■■■■가 직접 켜서 같이 놀아보렴.

(전화벨 소리)

??? : 전화가 오네, 잠시만.

(버튼 누르는 소리)

도우미 로봇 : 무엇이든 도와드리는 도우미 로봇입니다! 어떤 작업을 원하시나요?

??? : 청소! 청소해서 엄마 도와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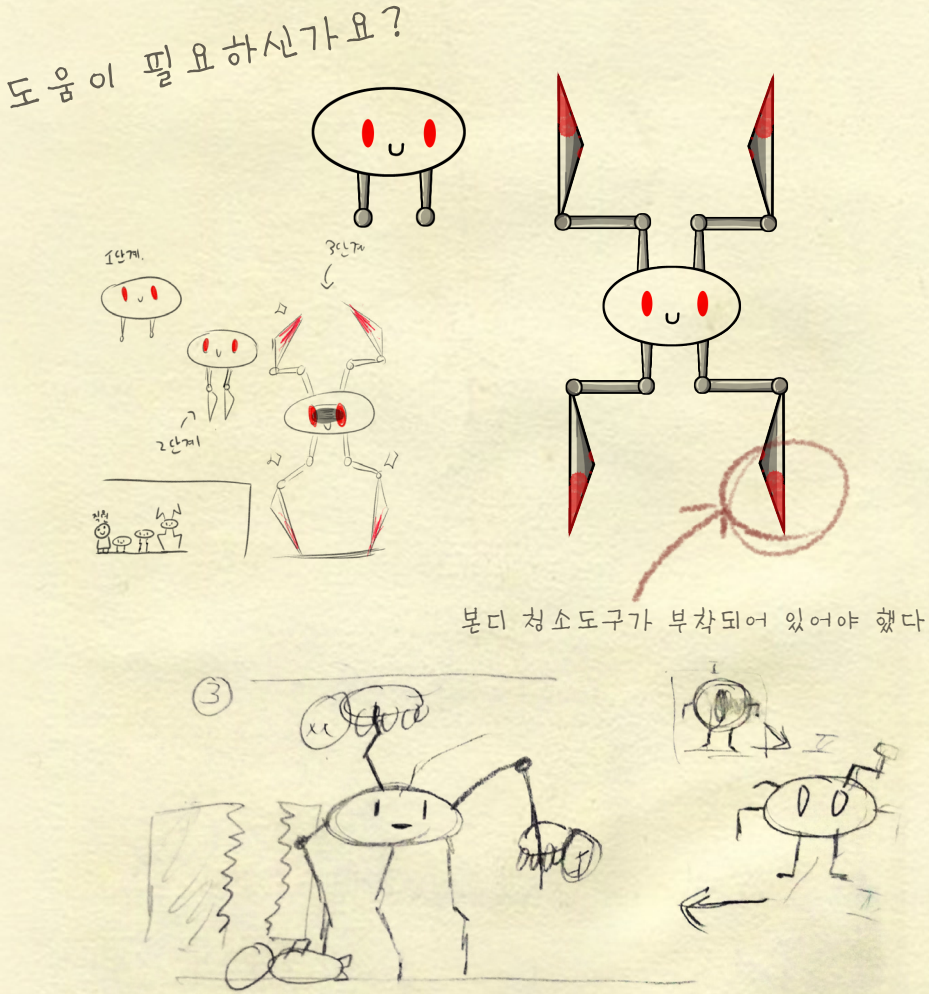
도우미 로봇: 환경 오염도 70% 조금 더러운 상태. 청소 작업 시작합니다.

??? : 청소한다! 청소…

도우미 로봇 : 지이이이이이이이이잉

이후 괴성이 몇 초 동안 지속한 다음 갑작스럽게 전원이 꺼졌다.

〈■월■일 영상자료〉



본디 청소도구가 부착되어 있어야 했다

연삭기 Mk4

기계 안에 삽입된 날카로운 톱날은 적들의 살점을 깔끔하게 자르기 용이하다. 작동법은 명확하지만, 그 의도대로 행해질지는 의문이다. 깔끔해 보이는 코트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핏자국들이 이리저리 묻어있다. 몇 직원들은 이 또한 용기의 상징이라 자랑스러워하지만 원형 추출 과정에서부터 혈흔은 존재해있었다. 과거 혹은 미래에 이루어졌던 모든 참사에 대한 기억일까.

초기에 사람들은 기계를 두려워했지만, 곧 우리 세계에서 기계의 반란 같은 건 먼 옛날의 괴담이 되어버렸다.

HE

No. O-04-08
빨간 구두

소녀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제 발을 잘라주세요..."

우아한 멋이 든 빨간 색의 여성용 구두다.

'신어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과도하게 자극한다. 해당 환상체를 착용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눈빛이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2차 변화로는 절대 신발을 벗으려 하지 않으며, 무의식적으로 억눌러왔던 모든 욕망을 행동으로 옮긴다. 만약 이러한 욕망이 방해되거나 타인이 신발을 벗기려고 시도할 경우 대상을 가리지 않고 숙주를 조종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

〈상담 기록 일부 발췌〉

"■■■■ 선배는 상냥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어떤 환상체던 간에 능숙하게 다룰 줄도 알았죠. 하지만 그 방에 들여보내게 된 건 우리 모두의 커다란 실수에요. 어느 순간 선배는 구두를 신고 있었고, 아주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는데 그, 좀 이상했어요. 웃음이 아니라 그건.. (중략) 주변이 온통 피투성이였죠. 또각 또각 거리는 소리가 복도를 울려대고 전 눈을 감고 죽은 척을 했어요. (중략) 해체가 되지를 않아서 결국엔 두 다리를 잘라내야 했다고 들었어요."

〈복도 영상 기록 일부 발췌〉

미르 : 저 쪽 작업은 다 끝난 거지? 나도 방금 막 하나 끝냈어. 성냥팔이 소녀는 여전히 그 상태야. 골치 아파 죽겠어. 휴게실 가서 커피 마실래?

해리 : 있잖아, 미르.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게 있어.

미르 : 휴게실 가서 얘기해.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야. 그런데 너 구두를 신은 거야? 작업할 때는 직원용 신발 외엔 금지잖아.

해리 :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미르,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둘만 있다는 거야.

미르 :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잠깐, 너 지금, 뭘 신고 있는 거야? 설마, 그걸 신은 거야?

해리 : 미르, 전부터 좋아해 왔어.

미르 : 당장 벗어.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

해리 : 네가 왜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지 생각해봤어. 에밀리 때문이지? 네가 에밀리를 보느라고 날 볼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그렇지?

미르: 너 지금, 손에 도끼를 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 지금 발목에서 계속 피가 나고 있어, 해리, 부탁이니까 그거 당장 벗어.

해리 : 그럼 에밀리만 없으면 되겠다! 조금만 기다려. 얼마 걸리지 않을 거야. 그때까지 여기 얌전히 있어야 해.

미르: 제발 정신 차려. 제발..

해리 : 네가 날 말리고 싶다면, 입사 첫날부터 해야 했어.

후에 빨간 구두는 스스로 해리 직원의 발목을 뜯어 도망쳤다. 해당 직원은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구두는 착용 시 착용자의 발목에 파고든다

욕망은 끝이 없다

핏빛 욕망

다리가 잘려나가도 멸할 수 없었던 집념은 혼자 숲길을 헤쳐나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다. 이곳 직원들의 대부분은 오래전 참사에 대해 전해 듣는다.

도끼는 가벼워 보일지라도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 많은 이들을 헤쳐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집착의 힘이 강한 직원일수록 내려찍는 힘에도 차이가 생긴다. 그러나 욕망에 눈이 멀어버리는 순간 집착의 꿈에서 깨어날 방법은 없다.

연회복과 어울릴 법한 레이스는 오래전 어떤 소녀를 떠올리게 한다. 그 어느 날 핏빛 구두와 함께 어딘가에 있을 무도회장을 향해 길을 떠나지 않을까.

HE

No. O-05-76
샤덴프로이데

기계 안의 열쇠 구멍에는 누군가의 끈질긴 시선이 느껴진다.

자립 보행이 가능한 기계 형태의 환상체.

기계 안의 열쇠 구멍에는 누군가의 끈질긴 시선이 느껴진다. 시선은 깜빡이기만 하며 절대 감지 않는다.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지 의도는 불명이다.

〈실험_002〉

천으로 눈을 가린 직원을 들여보냈다. 이때 천은 검은색으로, 빛조차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촘촘한 재질로 한다. 반응 유도 실험을 하며 완벽하게 시야가 차단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환상체의 격리실에 출입한 후 환상체 방향으로 10초 이상 서 있는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실험_003〉

D-002 실험과 마찬가지로 눈을 가린 직원을 들여보낸다. 겉보기에는 D-002에서 사용되었던 천과 같아 보이지만 눈앞의 형체를 인지할 정도로 시야가 뚫려 있는 천을 사용한다. 환상체는 공격적인 성향을 띈 채 직원에게 다가왔다. 실험 중단.

〈실험_004〉

천은 두르지 않되, 눈이 먼 직원을 들여보낸다. 30초 이상 서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은 없었다.

**실험_004에 투입된 실험자는 곧바로 폐기처분 바랍니다.*

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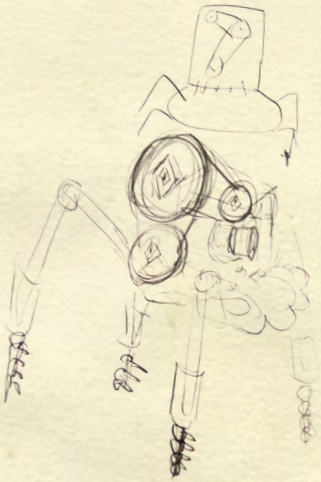
: 이 환상체 격리실에 처음 들어가는 직원을 교육할 때, 당연하지만 환상체를 쳐다보지 말라고 해주세요. 만약 누가 의문을 제기한다면, 지침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환상체를 쳐다본 유미직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주세요.

메모 2

: 유미직원은 이제는 이 환상체의 담당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서 심각한 망상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헛소리였지만 간략하게 말하자면 밥 먹을 때나 화장실에 갈 때나 계속해서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 틈새나 문 구멍 같은 곳이 보이면 과도하게 흥분을 하며 주위의 모든 구멍을 막으려고 합니다.. 더 답답한 건 정신오염도는 정상 수치라서 저희 쪽에서 처리하기도 곤란합니다. 신속하게 담당을 교체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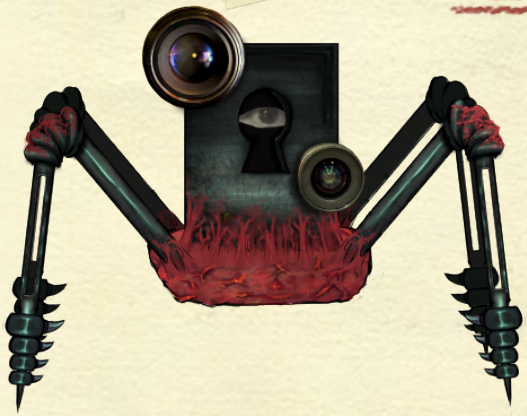
메모 3

: 아, 전에 제시했던 건의사항은 해결이 되었어요, 방 안에서 유미 직원을 찾았는데 환풍구를 포함해서 모든 구멍을 검은색 테이프로 감아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눈도 펜으로 난도질을 해놓았어요. 전에 말했던 망상장애도 해결되었어요, 더는 헛소리를 중얼거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명이 된 직원을 왜 다시 격리실에 투입하는지는 의문이 드는 군요, 실험_004가 어떤 실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담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지는 모를 일이네요..



상자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들여다보는 것은 상자 속에 있는 눈이 아니라, 우리가 상자 속을 들여다보는 것 아닐까?



E.G.O

시선

문구멍 속 시선은 거둬지지 않은 채로 대상을 직시한다. 대체 무엇을 그리 훔쳐보고 싶었던 것인지 알 길은 없다. 사용하고 있을 때만큼은 적어도 기습을 당할 염려는 없을 것 같다.

HE

No. O-01-55
은하수의 아이

미처 흐르지 못했던 아이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지고, 별도 쏟아지고,
그 황홀경에서 멈춰진 세상

밤 하늘 같은 피부에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어린 소년의 모습이다.

〈■■■■직원의 일기장 일부 발췌〉

■월 ■일

그 아이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눈망울이 그렁그렁한 채로 나를 보고 있는 시선에 잠시 정신을 놓았던 것 같다. 머리를 쓰다듬고 싶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환상체에게 함부로 호감을 느끼지 말라는 수많은 선배의 잔소리를 기억해냈다.

■월 ■일

그 아이에게 내 이름을 알려줬다. 매우 커다란 비밀을 들은 마냥 눈이 동그래져서는 몇 번이나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아이가 내 이름을 되뇔 때마다, 익숙한 이름이 낯선 바람처럼 간질거렸다.

■월 ■일

다른 직원이 그 방에 갔을 때, 평소와 다르게 제대로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저열한 등리감이 피어올랐다. 그 아이는 나를 따라, 네가 아니고.

■월 ■일

그 아이의 방에 갔을 때 내 발걸음 소리를 들었는지 문이 열리자마자 와락 안겨서 울었다. 겨우 품 안에서 떼었을 때 그 아이의 눈물이 툭 하고 흘러서, 희고 흰 조약돌 하나가 손에 떨어졌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줘서도 안 돼, 아이가 서성이듯이 읊조렸다.

■월 ■일

개가 더 좋은 거야? 나보다? 다른 환상체의 작업을 하고 돌아오던 중 아이가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알았냐고 되물으니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다. 당연하잖아? 나는 다 알 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던. 그 아이의 시선이 조용히 조약돌로 향한 후 빙그레 웃는다. 그 시선에 소름이 돋았다.

■월 ■일

조약돌을 버리려고 했는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 무슨 소리인지 나도 쓰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여전히 소중히 하고 있지? 아이가 나를 보며 웃는다. 웃는다. 웃는다. 웃는다….

■월 ■일

돌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 유일한 희망은 아이가 나를 질려 하게 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 날이 오기나 할까?

■월 ■일

견딜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내가 그 아이를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그 아이를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나는 그 아이의 손바닥에 쥐고 있는 조약돌 신세였다. 잠을 자든 밥을 먹든 아이의 소곤거림이 곁에서 들린다.

..나는 아주 멀리서 왔어, 너를 만나서 정말 좋아, 너도 조약돌이 돼서 나와 은하수를 걸자…. 아이의 말소리와 동결이 들린다. 곧이어 새카만 어둠이… 그 아이를 처음 본 날의 밤처럼..

바깥에 잔잔한 안개가 깔린 밤이었어.

맨발의 아이가 나를 보고 있었지.

커다란 눈망울에 서글프게 울고 있었던.

속눈썹에 걸쳐 있는 서러움이 내 걸음을 멈춰 세웠어.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는 말에 도와주겠다고 하자, 활짝 웃었던 아이.

미처 흐르지 못했던 아이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지고 별도 쏟아지고, 그 황홀경에서 멈춰진 세상.

은하수가 두 발로 내려온 밤.

-■■■ 캐로 발견된 ■■■■ 직원 의 일기장 일부 발췌

친구의 증표

친구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될 때 아이는 울음을 터트린다

그가 왔던 은하가 비친다. 강물에 별이 새겨지듯

우리의 은하수

E.G.O

당신의 손에 떨어진 조약돌은 반짝이다가, 일렁이다가, 간질거리다가,
우주가 된다.
"돌 안에는 우주가 있죠. 아이가 울 때마다 허공에는 은하수의 별이 뜨고, 당신의 우주에는 제가 있나요?"

HE

No. O-01-15
이름이 없는 태아

'언젠가 너도 알 수 있는 날이 오겠지.
룰렛이 돌아갈 때 사람들의 표정에서
떠오르는 간절함의 의미를.'

채 태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 태아의 형상을 하고 있다. 피부는 점액질 같은 끈적끈적한 액체로 뒤덮여 있으며 실핏줄 같은 것이 곳곳에 보인다.

〈폐기된 관찰 기록 일부 발췌〉

호기심으로 '이름 없는 태아'의 먹이를 투입할 때 몰래 관찰을 해보기로 했다.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는데 몇 사람들이 커다란 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조그만 것이 저렇게 커다란 양의 음식을 섭취한다고? 그리고 곧 봉투를 풀자 경악에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다. 사람의 시체였다. 그리고 아기는 그것을 먹었다. 어떻게 먹었냐고? 다시는 상상하기도 싫다. 배에 있는 커다란 흉터 자국, 난 그게 상처 자국의 일종인 줄 알았다. 꽃봉오리가 피듯이 배가 활짝 벌어졌다. 커다란 아가리 속에 끈적한 액체들이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탐욕스러운 생명체였다. 그리고 나는 그 날 이후로 채식주의자가 되었다.

〈직원 일기 일부 발췌〉

저는 한 달 전 이곳에 입사를 하게 된 돌리입니다. 아직은 실수만 하고 다니지만, 언젠가는 선배들처럼 능숙하게 할 일을 마칠 수 있겠죠.

우리 회사에는 가끔 직원들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언제, 어떤 기준으로 이벤트가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날이 오면, 거대한 룰렛이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모두가 하던 일은 멈추고 누구보다 간절한 표정으로 행운의 주인공을 기다려요. 룰렛에는 우리 직원들 모두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룰렛의 확률표가 누구의 이름을 가리킬지는 모르지만, 그 직원은 대단한 행운아가 되는 거예요. 무려 승진을 시켜줘서 우리가 '본부'라고 부르는 다른 지부로 발령을 해준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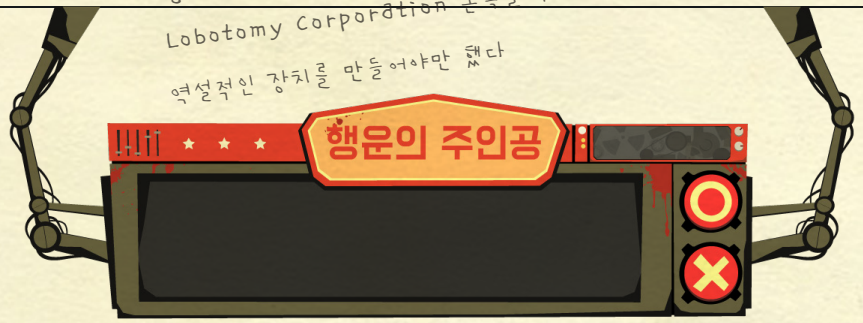
그래서 룰렛에서 선배의 이름이 나온 순간, 저는 진심으로 선배를 축하해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 선배와 포옹을 나누었어요. 선배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잘 지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선배를 볼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선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마치 불러서는 안 될 이름을 부른 것처럼 말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가끔 선배가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저에게 해주었던 말이 아직까지 잊히지 않아요.

'언젠가 너도 알 수 있는 날이 오겠지.'

'룰렛이 돌아갈 때 사람들의 표정에서 떠오르는 간절함의 의미를.'

행운추첨 기계
Lobotomy Corporation 존폭을 위해 역겹고
역설적인 장치를 만들어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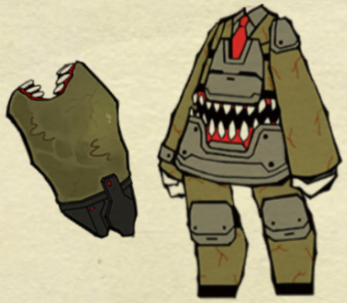


신축성이 뛰어나다.
탯줄의 연장선이라
생각된다

저작력은
O-04-84와
같은 수준이다

흘러내린 살점은
절대적이다

살점이 남아있으며, 악취가 심하다



울대

E.G.O

원초적 욕구에 대한 울부짖음보다 강렬한 울음이 있을까. 그 밖의 다른 것들은 모두 허황된 것에 그지없다는 듯, 울음소리는 뇌까지 아울러 아무 생각도 못 하게 된다.

HE

No. T-01-68

죽은 나비들의 장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

이곳에 입사했던 그 수많은 직원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 그들은 모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겠지, 가족과 따뜻함이 있는 안식처.

직원들은 돌아갈 수 없어, 회사에 입사한 이상 나올 방법은 퇴사뿐이지.

- 그럼 '퇴사를 한' 직원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겠지, 바라던 걸 얻은 채, 부푼 마음으로.

우리는 날개의 깃털이지. 퇴사는 그렇게 순조로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야. 깃털이 자신의 의지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 이치처럼.

- 그렇다면 퇴사를 한 직원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그들은 입사와 동시에 회사를 나갈 수 없는 몸, 퇴사를 해도 이곳에 계속 머물러있을 수밖에.

- 아주 오래전 어떤 세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조그만 날개를 가진 어떤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고 믿었어. 웃긴 이야기지. 터무니없고.

날개가 달린다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걸까. 우리는 퇴사를 하고 나서야 날개를 다는 걸까.

등 뒤에 거대한 짐을 짊어지고 있는 애도자는 모든 걸 구원하기 위해서 온 자라고 하지.

하지만 결국 스스로도 이곳에 갇혀버렸고 헛된 믿음만을 기억한 채 회사를 맴돌아.

그가 진 것은 관이야, 갈 데 없는 직원들을 기리기 위한 커다란 관 한 짝. 죄 없는 희생양들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그 안에는 수많은 나비 떼들이 잠들 때를 기다리고 있어. 그 전까지는 그 부질없는 날갯짓만 계속할 뿐이지. 이제는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인지 하나가 되어서 여럿으로 나눠진 건진 알 수 없는.

나비라면 응당 꽃가루를 옮겨야 마땅하지만, 이곳에서는 제대로 된 꽃 한 송이조차 피지 않아.

기다리는 수밖엔 없겠지, 어떤 세계이든 끝은 있을 테니.

초기관측

수많은 나비가 잠들어 있다

그에게 있어 관은 결코
아늑할 수 없다

엄숙한 애도

E.G.O

애도하는 마음에는 한 가닥의 경박스러움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듯 엄숙하다. 칼 한 자루는 사자를 위한 비통을, 한 자루는 산 자에 대한 앞선 애도를 상징한다. 장의사 복은 죽은 이를 가리고자 하는 이의 것이다. 그 애도에는 오직 엄숙한 마음만 있어야 하기에 화려한 장식구는 일절 필요치 않다.
사막 한가운데에 봉긋한 언덕이 하나 보인다면 부디 훼손하지 말자. 이곳에서 죽어간 수많은 나비의 무덤이다.

HE

No. F-01-87
지혜를 구하는 허수아비

그곳은 여전히 에메랄드 빛의 길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도시였다.

짚신으로 만들어진 허수아비 형태의 환상체. 짚은 피로 군데군데 물들어져 있다.

머리 부분은 누군가 강제로 뜯어간 듯 텅 비어 있다. 몇몇 직원들로부터는 뇌를 뽑아가려는 공격성을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지능 검사에서 우수함을 받은 직원들이었다.

각각의 도시는 각각의 고유한 기술을 가져야 했다. 그것이 도시를 부흥시킬 열쇠였다. 많은 기술이 있었지만 그중에는 신체 교체 기술이 발달한 도시도 있었다. 망가져서 더는 쓸 수가 없거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한다면 이를 고쳐주거나 개조시켜주는 것이다. 도시에 사는 이들은 모두 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문도 있었다. 폐가 망가져 버려 당장 숨을 쉬지 못하는 거지와 시력이 더 좋아지길 원하는 부자가 오면, 거지의 눈을 떼서 부자에게 붙여준 뒤, 거지의 남은 시체는 썩어가는 폐와 함께 외곽 어딘가에 버려둔다는 것이다.

도시의 대표자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라고 사람들을 다독였다. 그리고 소문을 바로 잡기 위해서 도시 외곽에 사는 사람 중 아픈 이들 몇 명을 뽑아 그들이 원하는 부위는 어디라도 고쳐주겠다고 알렸다. 행운의 주인공이 몇 명 뽑혔고 수일 후에 치료를 받은 한 명이 돌아왔다. 돌아온 그의 머리에는 기다란 흉터가 나 있었다. 다 나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머리가 가벼워진 기분이라고 말했다. 전까지는 눈물이 잦았고 날마다 슬퍼했던 자이기에 사람들은 바라던 대로 치료가 되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같이 길을 떠난 다른 이들은 어떻게 되었냐는 질문에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웃었으며, 얼마 후 있던 부모의 장례식에서조차 아무런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창밖을 무기력하게 보고 있거나 혼잣말을 하는 것뿐이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집 문손잡이에 목을 매달았다. 사람들은 어쩌면 그가 받았던 치료가 원인은 아니었을지 생각하기도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곧 잊혀졌고 그곳은 여전히 에메랄드빛의 길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도시였다.

호미를 사용하여 뇌를 섭취하기 위한 구멍을 뚫는다

누군가로부터 강제적으로 뜯긴 흔적이 보인다

섭취 당한 직원의 두개골은 텅 비어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수확

E.G.O

지혜로워지고 싶었던 이의 마지막 유산들이다. 갈퀴는 밭 대신 사람의 뇌를 경작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현명한 이들이 이 갈퀴로 목숨을 잃었는가.

HE

No. O-02-98
포큐버스

이제는 제 머리가 터져나갈 시간이에요, 그럼 안녕히.

〈머리가 터질 시간〉

솔직히 말해서 이곳의 일상은 그다지 재미는 없잖아요. 저마다 제각기로 탈출구를 찾아 다니죠. 폭력으로, 도박으로, 식욕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절제력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포큐버스의 격리소에 배치가 된 건지도 몰라요.

네, 포큐버스요. 직원 중에서도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직원들이 가는 곳.

저는 동료 직원들이 격리실 너머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대강은 들은 바가 있었어요, 그들끼리의 은어로는 '신뢰 놀이' 라고 불렀죠.

(중략)

다른 직원들이 말하길, 친해지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친해지기만 한다면,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어렵지 않게 손에 들어올 거라고.

아마 때가 되면 제가 쉽게 가시를 만질 수 있도록 포큐버스가 스스로 등을 숙일 거라고 했어요.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곧 쓰다듬을 수 있는 단계에 왔어요.

(중략)

처음 가시를 만졌을 때는 따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커다란 바늘이 살갗을 뚫고 들어오는 느낌이었죠. 그러면 곧 찾아와요. 두 다리로 서 있기도 어려울 정도로 강한 행복이. 정신 차리면 침이 줄줄 흐르고 있었죠.

무서워서 한동안은 가지 않았어요. 그럼 상황은 더 끔찍해지죠, 헛구역질이 나거나 땀이 흐르거나. 이건 직원들에 따라 달라요, 어떤 직원은 이빨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이어서 모조리 뽑아버렸대요.

느낌이요? 표현하기에는 제가 아는 단어가 너무 적어요. 당신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가장 큰 행복을 기억해요? 그 느낌의 수백 배의 행복함이에요.

제가 포큐버스의 담당 직원 중 마지막이라고요, 당연하죠, 뇌는 더 강렬한 자극을 원하니까. 처음에는 가시 하나를 살에 살짝 찌르는 정도라면, 지금은 온몸을 문질러야 처음과 같은 자극이 들어와요.

이만 가봐야겠어요, 작업시간이 슬슬 다 되었거든요.

아, 포큐버스는 당신이 추측한 것과는 달리 공격성은 없어요, 우리를 잡아먹거나 머리를 베어 물었다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다고요. 모든 시체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고요? 그게 다예요. 그냥 '죽을 것처럼' 웃게 해주는 것뿐이에요.

아무도 탓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 같이 지옥을 봐야 하는데 아주, 아주 조그만 천국을 경험하는 것 정도는.

전 오히려 당신이 불쌍해요, 그런 느낌을 경험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평생 느끼지 못하겠지만, 점잖은 척하면서 저 같은 낭떠러지에 몰린 직원이랑 면담하고 있어야 하는 당신이요.

이제는 제 머리가 터져나갈 시간이에요, 그럼 안녕히.

중독을 치료할 방법은 없다

쾌락

E.G.O

견디지 못할 쾌락을 욕심내다 보면 결국 그 끝은 자아의 상실로 도달한다. 가시에서 떨어지는 가루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사람들은 도취의 늪에 영원히 빠질지도 모른다.

HE

No. T-04-06
행복한 테디

그것의 기억은 따뜻한
포옹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털이 군데군데 빠지고 눈알 한쪽이 없어진 커다란 곰 인형 환상체.

하지만 이 전에는 옛 주인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듯 목에는 낡은 리본이 걸려 있고 조그맣게 이름이 적혀 있다. 워낙 낡은 터라 알아보기는 힘들다.

〈상담 기록 일부 발췌〉

"저는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행복한 테디 쪽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딱히 없었어요. 평소에도 딱히 해는 끼치지 않았으니까. 그냥 확인만 하려고 돌아오려고 해서 살짝 격리실 안을 보았어요. 테디가 누군가를 꽉 껴안고 있었죠. 저는 한동안 테디의 담당이었던 ■■■■가 늦게까지 남아서 작업을 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했어요. 격리실에 들어가서 말을 걸었지만 ■■■■는 답이 없었어요. 곧바로 저는 비상 버튼을 눌러서 사람들을 불러왔죠. ■■■■는 혼수상태에 빠진 지 8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오전에 들어가서 제가 발견할 때까지 줄곧 테디의 품에 안겨 있었던 거죠."

〈발송 불가 표시가 찍혀 있는 낡은 편지〉

직원 전용 메뉴얼에 적혀 있던 내용이 뭔지 기억해?

"환상체에게 결코 사적인 감정을 느끼지 말 것."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어.

너는 괴물들에게 그런 감정을 갖는 것부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괜찮아. 괴물들 맞잖아. 우리끼리 있을 땐 그렇게 불러도 돼.

'행복한 테디'는 네가 두 번째로 맡은 환상체였어.

아마 너는 테디를 보고 환상체라고 해서 무조건 징그럽고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을 거야.

버려져 있는 낡은 인형 같은 모습이 어쩌면 옛날 일들을 생각나게 했는지도 모르지.

테디는 너의 포옹을 좋아했던 것 같아.

그리고 어느새 너는 테디의 고정 담당이 되었지.

아마 너는 그것으로부터 일종의 책임감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거야. 그렇지?

네가 테디의 격리실에 들어가는 날들이 늘어갈수록 나는 점점 걱정스러워졌어.

…

테디는 너를 새로운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네가 들었으면 아마 기뻐했을지도 모르는 소식이지.

하지만 테디는 말이야, 두 번 다시 주인과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

너는 테디에게 항상 다음을 기약했겠지만,

그것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네가 기적적으로 숨이 붙어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테디로부터 너를 떼어내는 데 1시간이나 걸렸다는 소식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잊어가도,

나만큼은 너를 기억할게.

부디 기적이 있기를.

최초 추출 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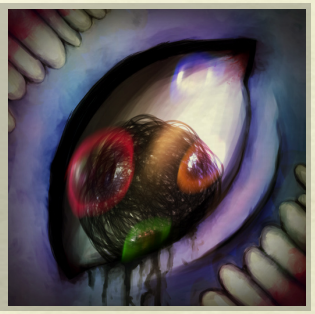
주인에게서 선물
받은 유일한 추억

수선하려는 시도는
안 하는 것이 좋다

곰 발바닥

E.G.O

따뜻한 포옹에서부터 시작된 기억은 버려짐으로 끝이 났고, 삐져나온 솜털은 잊혀간 동심을 대변하듯 비참히 매달려있다. 어린아이에게 선물로 준다면 좋아할 것 같음의 앙증맞은 구석도 있다. 함부로 다룬다면 다른 부분도 버티지 못하고 뜯어질 것이 분명하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귀여운 외형만으로 그 위력을 간과해선 안 된다.



WAW

No. T-02-71

꿈꾸는 해류

오늘은 포도 맛 사탕이라고 말해주세요.

그 애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그냥... 계속 그 책을 보여주세요, 아, 사진이 있는 페이지여야 해요, 글자는 못 읽을 테니까. 실험이 조금 오래간다 싶으면 적절하게 소리라도 흉내 내면서 최대한 관심을 끌게 하세요. 제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알아요. 불쌍하죠. 가엽고, 안타까워요. 저도 그런 감정 정도는 느낄 수 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곳으로 인해 살아남았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게 된다면 좋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같은 생각이라면,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죄의식 같은 건 접어두는 게 미래를 위해서라도 편할 거에요.

....

오늘은 포도 맛 사탕이라고 말해주세요, 그 애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백과사전 일부 발췌〉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대부분 상어들은 크기가 작다.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극소수의 종이다…. 뭐니 뭐니 해도 상어의 매력은 단단한 턱과 이빨이다. 상어의 턱은 성인의 20배 정도에 달하는 막강한 힘을 보여준다. 또한, 시각과 후각 또한 매우 발달하여 손쉽게 자신의 목표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상어가 바다의 포식자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다.

부모는 아이를 버린 지 오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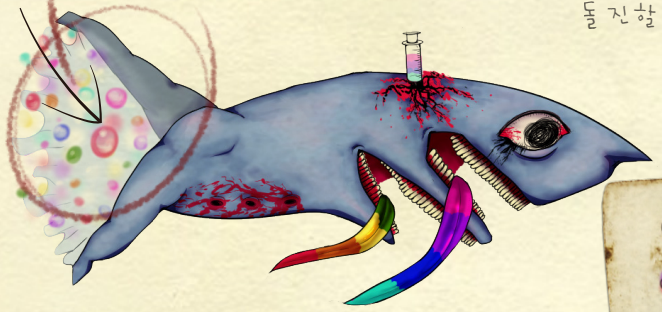
오래전의 감염으로 인해 2년도 채 못 살 것이라고 했다. 연구원들은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였다. 그곳에서 옹알이를 배우고 걸음마를 해냈다. 비록 말은 제대로 못 했지만 아이는 바다를 좋아했다. 바다에 데려다주는 대신에 바다를 볼 수 있는 사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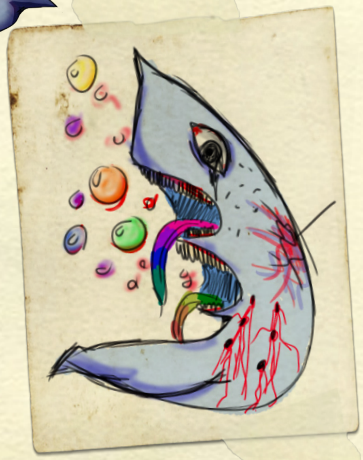
형형색색의 밤과 낮이 지났다.

고작 2년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아이는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다. 아이는 변함없이 여전히 단 사탕을 좋아했고 그들을 따랐으며 자신의 집인 이곳을 사랑했다. 다만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햇빛 아래 잔디밭 대신 좁은 실험실을, 불안하지만 기대에 부푼 걸음걸이로 달려나가는 것이다. 내일은 무슨 사탕을 먹을지 기대에 부푼 채로.

복도에 무지갯빛 물이 찰랑거렸다

돌진할 때 매우 빨랐다





이빨 자체가 위협적이진 않다.

특유의 추진력으로 인한 충격량이 가장 위험하다

아가 실험 때 썼던 약물로 추측

육체를 잠식하나, 정신을 맑게 한다

E.G.O

황홀

방어구의 팔 부분에는 듬성듬성한 바늘구멍이 나 있다.
알록달록한 색 무늬는 어린아이의 옷 마냥 화려하다.

WAW

No. F-04-42
백설공주의 사과

공주와 왕이 있는 정원에서 알맞게 익은 사과 하나가 나무에서 떨어진 날, 마녀의 마음도 무너졌다

… 왕자가 키스를 하자 잠들어 있던 백설 공주는 자신의 목에 걸린 사과 조각을 뱉어냈습니다. 난쟁이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백설공주와 왕자는 꽃으로 수놓아진 길을 걸어가며 자신만의 왕국으로 향해갔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녀의 분노와 저주로 만들어진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녀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백설공주가 한 입 먹은 채 흙바닥에 버려진 사과만은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사과는 공주에 대한 증오와 외로움만을 느끼며 썩어 거름이 될 날 만을 기다렸습니다.

마법이 걸렸기 때문이었는지, 분노가 자연의 이치까지 뭉개버린 거였던 건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씨만 남아서 다시 열매가 맺힐 시기가 한참 지났지만, 사과는 썩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발의 채여서 한쪽은 완전히 뭉개졌고 한쪽은 새나 벌레가 파먹어 구멍이 생겼습니다

사과의 근처에는 새와 벌레들의 사체가 쌓여갔습니다. 자신 대신에 썩어가는 시체 더미들 속에서 사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몸에서 줄기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미 말라서 시들어버린 줄기와 나뭇잎은 생기도 없는 채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마침내 사과가 스스로 움직이게 될 수 있게 된 언젠가의 오후, 사과는 행복하게 떠나갔던 공주와 왕자를 생각했습니다. 백설 공주도 오랜 시간 동안 누워있었지만, 왕자가 찾아와서 그녀를 깨워주었습니다. 더는 사과도 아니었으며 왕자도 필요 없어진 공주는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특유의 썩은 사과 냄새가 자욱하다.

일반적인 나무줄기에 비해 색은 시들하지만, 매우 단단하다.

천이 아닌 식물로 구성된 드레스

덩굴을 증식시키고 자신을 덩굴에 고정시킨다.

복도에 박혀 있어서 떼어내는 데 어려웠다.

녹색 줄기

E.G.O

아무도 모지 않을 거라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 마법처럼 줄기와 나뭇잎들이 피어났다. 하지만 태생부터 가진 악의로 인해 모든 생명은 피자마자 바스러졌다. 무기에 닿아 죽는 적들은 끝의 날카로움보다는 그 망집으로 인해 생명이 다한 것일 거다. 장비에 둘러싼 줄기들은 비참한 확신만을 갖인시킨다. 집착을 던다면 괴로움이 조금이나마 덜 것이다.
제조 과정은 독기에 닿지 않기 위한 보호구를 철저히 장비한 채 이뤄졌다.

WAW

No. O-02-74
벌거벗은 둥지

그것은 당신의 신체의 구멍
어디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굴이 짙은 녹색 빛으로 물들어가는 직원을 발견한다면 할 수 있는 한 가장 신속히 각 부서의 세피라들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배탈 난 직원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의료실에 가라고 말을 건네면, 탈이 난 직원이라면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하겠지만, 감염된 직원은 보는 사람이 어색할 정도로 괜찮은 듯한 흉내를 냅니다. 이때 해당 직원에게는 눈치채지 못한 척하는 편이 좋습니다. 숙주가 흥분할수록, 전염 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미 피부에 변화가 온 상태에 다다랐다면 뇌의 30%가 먹혀들어 갔다는 뜻입니다. 이때 나누는 대화도 숙주 흉내를 내는 것이므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해당 환상체는 숙주의 뇌 부분에서 서식하므로 숙주는 어떤 물리적 감각도 느끼지 못합니다. 날카로운 바늘이나 창으로 실수인 척 찔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강조했듯 숙주는 이미 환상체와 30% 정도 교합이 된 상태이므로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 그것은 당신의 신체의 구멍 어디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구멍을 가린다고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가릴 수 있는 구멍은 다 가리고 격리실에 들어가는 편이 마음에는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

!!! '벌거벗은 둥지'가 최종적으로 향하는 목적지는 당신의 전두엽입니다.

!!! 당신은 뱀의 둥지 자체가 되어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 둥지가 되어버린 당신을 사살하고 시체를 태워버리더라도 부디 유감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둥지 또한 하나의
생명체가 아닐까.

총 몇 마리의 기생충이
서식하는지 측정 불가

직원의 감염이 진행될수록 기생충이 많아진다

허물

E.G.O

다소 미끌미끌한 표면으로 인해 불쾌하다고 생각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늘 자체는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 외부 위협을 막기에 적합하다. 혹여나 찢어지더라도 재생 능력은 뛰어나 금세 원상복구 된다.

WAW

No. F-01-57
붉은 두건의 용병

그 머리통을 침대 위에 매달 거야.
그럼 나는 아침마다 악몽을 꾸지
않은 채로 잠에서 깨겠지.

"나는 프로야, 나한테 의뢰를 부탁하면 너희들을 도와줄게. 한때 비싼 몸이었지만 이곳에선 값싸게 쳐주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할게. 그 끔찍하고 교활한 놈을 마주치는 날에는 나한테 넘겨줘. 그 머리통을 침대 위에 매달 거야. 그럼 나는 아침마다 악몽을 꾸지 않은 채로 잠에서 깨겠지."

붉은 두건을 걸치고 있는 전사의 모습이 인상적인 환상체다. 쓰고 있는 두건엔 이미 헤져서 보이지 않지만 이니셜이 박혀 있다. 꽤 오래전부터 착용했던 건지 많이 기운 흔적들이 많이 보였다.

그 전까지는 용병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일정 거주지 없이 돌아다녔다고 한다. 타인을 잘 믿지 않으며 극단적일 정도로 전투를 좋아한다. 얼굴이나 신체 일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며 거울을 보는 행위에도 심한 거부감을 느꼈다. 이 밖에도 상당한 편집증 증상들이 확인되었다.

격리실 외부에 위급 상황이 생기면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본인은 그것을 일종의 '의뢰'라고 부른다. 이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상황에 따라 적극 활용을 권장하기도 했다.

※ 이 이후에는 모든 등급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다.

다만 '크고 나쁠 늑대'를 마주치면 상황은 극단적으로 변할 것이다. 순간적인 비인격화, 분노 조절 장애 등이 다반사 적으로 일어난다. 이때에는 수많은 피해가 부가적으로 일어나므로 마주치는 상황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우리 사이에 승리란 없다. 그저 저번보다 더 잔인하고 더 고통스럽게 찢어 죽일 생각만을 한다. 따라서 축배란 없다. 맛있게 구워진 케이크나 포도주도. 꽃을 꺾는 것 대신 도끼날을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을 무렵일 때는 15살이었다.

표식을 추적하는 눈

사냥의 표식

임이 아닌 용터를 가리는 마스크

마스크를 착용하자 않았을 때. 최초에는 얕은 상처 하나였지만 점점 길어졌다

평소에는 벽에 베딱이 기대어 있다.

망토는 피를 머금으며 더욱 붉게 물들어 간다

그녀의 의뢰를 통해 이야기속 꽤 많은 늑대, 돼지, 오리, 곰들이 피를 흘렸다

붉은 용터

E.G.O

붉은 두건의 용병이 유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건 늑대의 죽음뿐이다.
한 손엔 철을, 다른 한 손엔 화약을 든다면 이곳에선 무서울 게 없다. 어중간한 용기보단 차라리 증오에 미쳔 채로 휘두르는, 망설임 없는 일격이 중요하다.
오직 파멸로부터 삶의 가치를 느낄 수밖에 없는 모두의 앞길에는 어둠만이 가득한 것 같다. 언젠가는 이 한없이 사랑스러운 동화 이야기에도 끝이 있기를 바라자.

WAW

No. O-02-62

심판 새

그의 천칭은 항상 어떤 죄의 무게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어두운 숲을 불공정한 저울을 들고 다니며 생물들을 심판하던 새다. 천칭은 항상 한 쪽으로만 기울지만 눈이, 가려져 있으므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외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사실, 한때 새는 공명정대한 심판자였다. 그의 천칭은 항상 어떤 죄의 무게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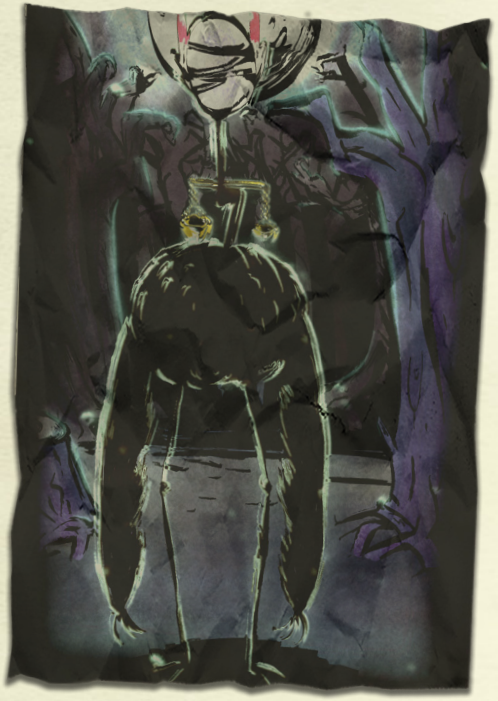
긴 새는 숲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떤 죄의 무게도 잴 수 있는 저울을 만들었다.

한때 새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새의 눈은 언제나 반짝였고 밤하늘의 별처럼 불타올랐다. 하지만 숲을 지키기 위해 큰 새에게 눈을 바쳤다. 지금은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허공이 대신 자리 잡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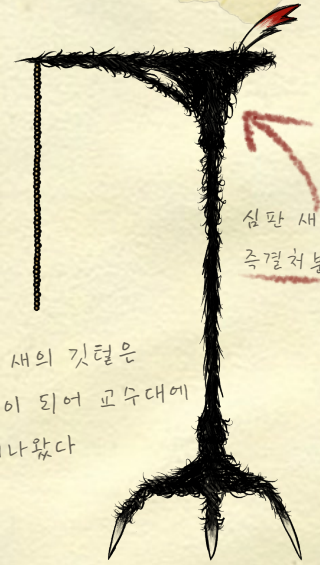
붕대는 곧 뜯어질 것처럼 너덜거린다. 이 역시 반짝이는 깃털들로 뒤덮여 있었지만,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않아 볼품없이 빠졌다.

이제 남은 것은 불공정한 천칭뿐이다. 긴 새는 여전히 심판을 멈추지 않는다.

'~~더 이상 ~~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더 이상 사사로움은 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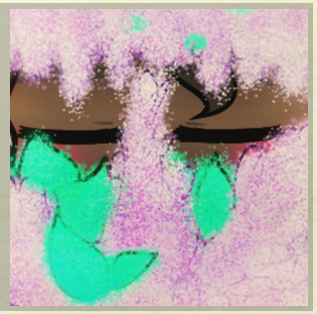
심판 새의 교수대. 즉결처분이다

많은 새의 깃털은 원념이 되어 교수대에 묻어나왔다

E.G.O

유스티티아

누구나 그랬듯이 최초의 소망은 소박하기 그지없었다. 평화에 대한 바램은 옛 동화 속으로 전해져 내려올 뿐. 이 E.G.O를 추출한 자는 회사 내에서 가장 정의로운 자였다. 감겨있는 붕대는 구태여 벗겨내지 말자. 서글픈 옛날은 보이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최초의 목적처럼, 바라건대 이 E.G.O를 통해 평화가 계속되기를.



WAW

No. T-04-53

알리우네

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살고자 하는 모든 것들과 무덤으로 돌아가리.

봄의 탄생과 가을의 저뭄에 대해 알고 있는 환상체.
표면은 도자기로 만들어진 것처럼 매끄럽다. 눈이 자리잡아야 할 부분은 비어 있다. 균열은 자라나는 식물들로 대신 채워진다.

사랑스러운 알리우네, 사람이 되고 싶었던 인형, 영혼을 담은 눈동자를 갖고 사람들의 예쁨을 받으며 살았네.

어둔 숲에 버려 져 간 알리우네, 반짝임을 탐하는 까마귀에게 눈알을 도둑맞고, 마음과, 삶과, 심장이 저물어갔네.

눈이 없지만 모든 걸 볼 수 있는 알리우네, 인형이 되고 싶었던 사람, 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살고자 하는 모든 것들과 무덤으로 돌아가리.

온몸으로 꽃을 피워내며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도하는 알리우네

잔향

E.G.O

E.G.O를 추출해도 원형의 향기를 감출 수 없었다. 지니고 있기만 해도 존재하지 않는 어딘가의 숲속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피어난다. 모두의 마음속 욕망이 꽃으로 대체될 때가 온다면, 이 E.G.O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다. 중간중간 생기는 균열들은 꽃 무더기가 채워준다.

WAW

No. O-04-66
어린 왕자

설사 이것이 나한테 저주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저주마저 축복으로 사랑할게.

직원들 사이에서는 '거대한 버섯 덩어리'라고 불렸다. 말 그대로 거대한 버섯 같기도 하고 곰팡이와도 유사하며 균류와 흡사한 외형을 띈다. 지속해서 대기 중에 포자를 방출하는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상체로부터 운동성을 가진 미세한 크기의 포자들이 생성되며 공기 중을 통해 이동한다. 주로 호흡기를 통해 다른 생물의 신체를 침식하는 형태로 번식한다.

일정 이상의 포자를 흡수한 직원은 신체에 기괴한 낭종들이 생기기 시작하며 조직이 침식되기 시작하다 최종적인 형태로는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다른 생물체가 되어버리고 공격성을 띠게 되므로 발견 즉시 사살해야 한다.

〈상담기록 일부 발췌〉

유독 조용했던 한 놈이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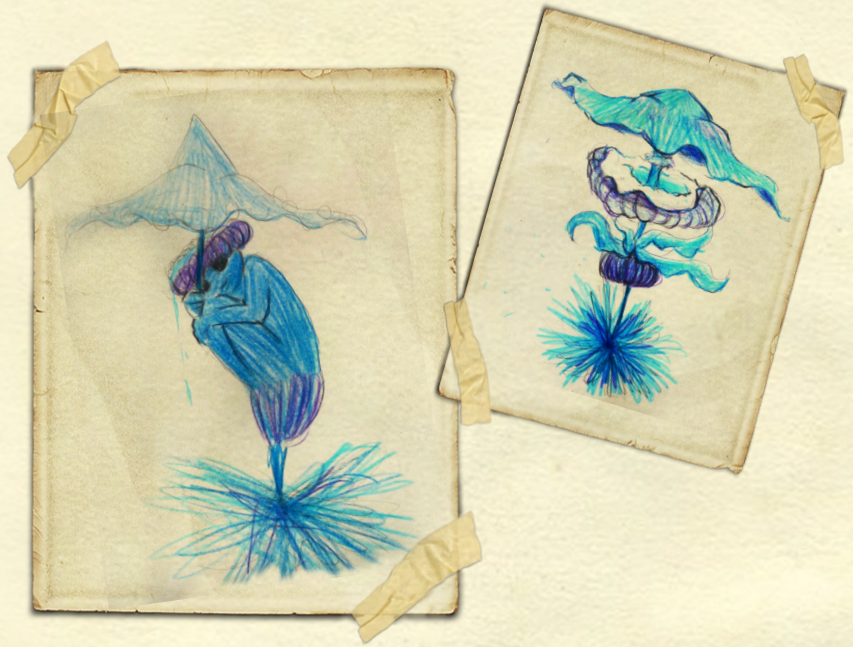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누구도 가기를 혐오했었던 버섯 덩어리의 작업을 자원해서 간다는 것이었어요. 한참 동안 그 격리실에서 안 나오는 것도 거슬렸어요. 대체 어떤 끔찍한 걸 달고 올지는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그 환상체의 이름을 거대한 버섯 덩어리라고 부르기로 합의를 했을 때 그놈이 처음으로 반발을 했어요. 가장 오랫동안 봐왔던 것은 자신이라면서, 그건 버섯덩어리라고 불릴 게 아니라더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며. 모두가 걔를 비웃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다들 알다시피 걘 뒤졌어요. 포자 곰팡이의 괴물 시체에서 그놈의 흔적을 발견한 게 저였다는 걸 얘기했었나요? 이마에 있던 반점, 포자 덩어리에서 그 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저희는 영원히 괴물이 그놈과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저를 제외하곤 걔한테 그 반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걘 우리 부서에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환상체의 이름을 다시 정하기로 한 이유에요. 그 비참한 죽음에 대한 추모가 합쳐진, 복잡한 이유죠.

그놈은 사실 친구가 필요했던 거에요. 그래서 환청에 미쳐가면서 스스로가 괴물이 되어가는 것도 모른 채 침식당했던 거라고요. 그 버섯은, 번식만을 위해 불쌍한 놈을 먹이로 길들여갔던 것뿐이에요, 아무도 이름을 몰랐던 알렉스를…



친구가 아닌 대상이 관측 시
많은 팔은 흔들리며
제각기 움직인다

포자에 감염되면 보이는 모습.
얼굴 같은 게 보인다.
환각 성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알렉스 직원의 노트〉

인간은 정신은 유약해서 있는 그대로를 담아내지 못한다. 사마귀 새우가 인간이 보지 못하는 수백 가지의 색깔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나는 친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을 독립된 개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군중 집단의 본능은 잃지 못한 탓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하려 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며 서로의 영역을 지킨 채로 아슬아슬한 줄타기 놀이를 반복한다.

사실 나는 이 의미 없는 놀이에는 일찌감치 질려버렸다. 내가 거대한 버섯의 관찰을 하겠다고 자원한 것도 비슷한 이유였다. 그저 조금 이질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가까이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순 없었다.

(중략) 환상체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다. 나는 참을성 있게 그 정적을 기록하고 지켜보았다. 주위로부터 신비한 색깔의 가루들이 떠져 나온 어느 날 이후에 나는 조금 특별한 변화를 경험했다. 나는 현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초현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가 내게 내민 손이었다. 오로지 나만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것은 정신을 통해 내게 말을 걸어왔다.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경험은 평생토록 내가 바라왔던 장면이었다.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이해받고 하나가 되는 느낌은 때로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벅차오르는 마음을 감추기 힘들었다.

(중략) 조금 더 그에게 가까워지고 싶었다. 일부가 되고 싶었다. 나는 항상 그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개화를 앞둔 꽃봉오리처럼 마음이 스며들어 간다.. 나는 서서히 길들어 갔다…

〈녹음기록 일부 발췌〉

본 녹음기록은 격리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기록의 일부다. 환상체의 포자 가루가 감시카메라의 시야를 전부 덮어버렸기 때문에 음성만 기록할 수 있었다. 이 녹음 기록의 대화를 바탕으로 추측해 볼 때, 해당 환상체에게는 환각이나 환청을 보게하는 특수한 성분의 포자를 퍼뜨린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녹음 기록을 정밀히 분석해봐도 직원의 대화 이외에 어떤 말소리도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직원은 이후 포자에 감염되어 심한 광기 증세를 보이다 다른 직원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 사살당했다.

-인간의 언어분포는 단순해서 적당한 단어가 없는 게 아쉽지만 우리는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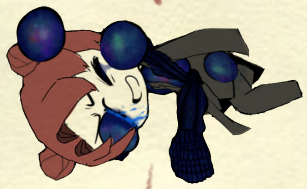
-.. 맞아, 나는 너의 단 한 개의 친구인 거야.

-너를 받아들일게. 너를 만난 후 내 인생은 달라졌어, 나는 하루하루가 우울한 삶을 살았고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도 없는 채로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일만 하다 하루를 마무리하지. 하지만 내가 버린 나를 네가 주워갔어, 내가 너의 본질을 볼 수 있듯이 너도 내 본질을 볼 수 있었던 거야, 그건 정말이지, 너무나 행복한 경험이야, 나도 널 이해하고 싶어, 너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사랑하고 싶어, 난 비록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긋지긋한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랬을 테지만 너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어.

-너는 날 기억해줘, 너만을 바라보며 피워낸 이름 없는 꽃을 기억해줘

-설사 이것이 나한테 저주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저주마저 축복으로 사랑할게. 내 정신이 무너져서 스러진다 하더라도 마지막의 순간까지 너를 생각할게, 먼 우주에서 온 단 하나의 친구를 기억하며 눈을 감을게..

(이후 환상체부터 바람이 새는 듯한 아주 미미한 소리가 들렸으며 그 이후로는 정적)



변이가 끝난 모습. 어린 왕자가 있는 복도에 돌아다니며 주의의 모든 사람들을 공격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어째선지 모두의 표정은 매우 밝았다

포자

E.G.O

포자와 애정들로 뒤덮여 버린 E.G.O 직원들의 마음을 밝히고 별처럼 빛났다가 서서히 길들여간다. 그리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비참하다.

'커다란 버섯으로만 환상체를 인지한다면 그건 너의 흐릿한 눈으로 본 결과야.'

별이 떠서 밤이 밝혀진다면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다. 숨겨진 빛을 알아차린 건 내게는 축복이다.

WAW

No. T-04-50
여왕벌

만약 복통을 느끼고 목 주위가 가렵다는 기분이 든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보지 못 할 푸른 하늘 따위를 보는 것 정도다.

거대한 벌통과 벌의 융합체 같은 형태다. 속의 단면은 생고기의 단면같이 검붉고 입자가 보인다. 얼굴로 추정되는 부분은 상당히 비틀려있다. 날개가 달려 있지만, 일반적인 기능으로써의 날개 기능은 하지 못한다. 뒤틀린 얼굴 속에서 그나마 온전한 눈 한쪽은 다가오는 접근자들을 경계하는 듯 동공의 움직임을 보인다.

일정 환경이 조성되면 주변에 포자를 퍼뜨린다. 포자를 들이마신 직원에게 당장에 뚜렷한 변화는 없었으며 이후 실시된 몇 가지 검사에도 특별한 이상징후가 감지되지는 않았다.

이후, 포자를 흡입한 직원이 후두엽 및 복부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머리는 신체로부터 분리되었으며 분리된 신체로부터 일벌 환상체가 나왔다.

〈상담기록 일부 발췌〉

■■■■직원은 그 전부터 계속 목 주변이 가렵다고 저한테 말했었어요. 소화가 며칠 전부터 되지 않는다고 소화약을 몇 개나 삼켰던 것도 봤어요.

(중략) 갑자기 ■■■■직원의 하던 말을 멈췄어요. 여전히 목을 긁고 있는 상태였죠. 빨개진 목이 걱정되었어요. 그리고 얼굴을 이상한 각도로 뒤틀더군요. 자신의 의지로 고개를 꺾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강제로 꺾는 것처럼…

그러더니, 지지직 하는, 종이가 찢기는 것 같은, 그것보다 좀 더 생소했지만 뭔가 찢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그의 머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거기까지가 끝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의 목에서부터 무언가 기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치에서 부화하는 나비처럼, 머리 없는 그의 몸을 찢으며 날개와, 노란 몸통과, 그의 몸을 갉아 먹은 이빨과,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을, 생명체라고도 부르기 싫을 그런,

(중략) 그것은 나를 어떤 방식으로든 인지하고 있었죠. 다만 당장은 공격할 이유가 없었던 듯해요. 그의 머리통을 들어 올려서 꿀을 운반하는 일벌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 저는 아직도 그것이 턱을 탁탁 부딪치고 날개가 퍼덕이는 소리가 들려와요.

일벌

여왕벌과 색을 제외한 외형은 확연히 다르다. 비행이 가능하지만, 땅 위 약 1m 정도로만 떠다닐 수 있다. 더듬이나 눈은 존재하지 않는다. 꼬리에는 장기 같은 것이 기다랗게 끌려다니고 있다.

이들은 여왕벌에게 영양소를 조달하고, 개체 수를 늘리는 두 가지의 행동만 보여준다. 직원들을 마주치면 머리를 턱으로 공격하며 으깬 후, 번데기를 삽입시킨다.

여왕벌의 페로몬에는 벌들의 충성심을 끌어내는 물질이 있다

호넷

E.G.O

왕국은 계속해서 부흥해야 했고 그러려면 더 많은 벌이 필요했다. 왕국은 역사에 이름이 남겠지만 그를 위해 죽어간 벌들은 누가 기억해줄까. 한때의 영광은 낙인처럼 남아있다. 무기의 탄환은 위협이 되는 대상만을 향해 날아가므로 조준력은 딱히 필요치 않다. 그저 맞추고자하는 의지만 필요할 뿐.

WAW

No. O-01-73

절망의 기사

남은 건 닳디 닳은 기사라는
볼품없는 긍지 하나뿐이다.

믿음과 배신의 굴레를 반복하며 검은 눈물만이 감정의 전부가 된 절망의 환상체.

한때 정의를 위해 수호자의 역할을 했던 과거의 영웅이다. 일평생 왕을, 국가를, 도시를, 약자를 지켜냈다.

기사는 신의 법도를 지키고 용맹함과 동시에 선과 정의를 추구해야 했다. 그러나 기나긴 풍파를 겪은 후 문득 뒤를 돌아보니 뭣 하나 제대로 지킨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실은 많은 이들을 변화시켰다.

선을 지키고자 한 어떤 이는 더는 이 세계에 악이 없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악이 되어버렸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었던 이는 탐욕으로 물든 채 모든 걸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되었던 많은 것들이 변했고 사라졌다.

기사는 울지 않는다고 누가 말했던가.

슬픔이 아닌, 절망에서부터 흐르는 눈물을 본 적이 있는가. 끊임없이 흐르는 비통함으로 한때 눈구멍이었던 건 빈 껍질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다. 그 속에서 때로는 검은 다이아몬드가 재처럼 떨어진다.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은 옛날처럼 매한가지인지 갇혀버린 지금도 보호하는 행위에 끊임없이 집착한다. 남은 건 닳디 닳은 기사라는 볼품없는 긍지 하나뿐이다. 과거의 미련은 저버리지 못한 채 집념만 남아있는 영웅의 모습은 보는 이 마저 안타깝게 한다.

만약 정의가 또 한 번 배반이 되는 순간, 수십 개의 칼날은 목적없이 떠돌게 될 것이다. 또 다시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세상에 대한 분노에, 결국 칼끝이 향하는 건 보호해 주지 못한 모든 이들.

다른 이를 구함으로써 자신을 구하고 싶었던 기사는, 이제 절망의 기사라는 불명예로 불린 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다.

수호의 상징

그 무엇 하나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다

이 검은 본디 누군가를 지켜내기만을 위한 검이었다

눈물점 문신을 통해
늘 지켜내지 못한
사랑들을 애도한다

그녀의 마음속 절망이
형상화되어 안에서부터
찢고 나왔다

가슴에 실패하면 절망이 온
몸에서 넘쳐 흐른다

눈물로 벼려낸 검

E.G.O

날렵하게 찌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검이다. 기사도가 그렇듯, 전투 중엔 어떠한 반칙도 없지만, 자비 또한 없다. 재처럼 떨어진 눈물은 별자리처럼 수놓아졌다. 방어구를 착용한 직원은 슬픔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때로 아무것도 아닐 일에도 이따금 눈물이 나곤 하는 그런 날이 있는 것처럼.

모든 슬픔이 그렇듯 나눠 가지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무뎌지지 않을까.

WAW

No. O-01-04

증오의 여왕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지금 이 곳에 등장!

당장이라도 정의와 평화를 위해 악당을 무찌를 것 같은 인간 형태의 환상체.

모든 직원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며 일상적인 대화를 오가는 등의 행동이 가능하다. 자신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 태어난 영웅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자부심도 커 보인다.

직원들과의 대화 중 불안함이나 회의감이 나타날 경우 최소 4일 내에는 외형과 성격이 역변하며 해리성 장애와 유사한 행동을 띤다.

역변이 끝난 후에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며 환상체는 해당 행위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

〈녹음기록_1〉
직원: 오늘은 기분이 어때?
- 좋아요. 세상은 평화롭고, 이곳은 조용하네요. 평화롭다는 건 참 좋은 것이죠. 악당들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기록종료〉

〈녹음기록_2〉
직원: 오늘은 좀 우울해 보이네.
- 여전히 좋아요. 세상은 평화롭고, 이곳은.. (더 이상 말을 하려 하지 않았다)
〈기록종료〉

〈녹음기록_3〉
직원: ….괜찮은 거야?
- 왜 여전히 평화로운 걸까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악당을 무찌르기 위한 것인데요. 이건 마치 제가 필요 없다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마법 소녀라는 말을 당신에게 했었나요? 세상을 평화롭게 지키기 위해 저는 태어났죠. 오늘은 그런데, 조용하네요.
〈기록종료〉

〈녹음기록_4〉
(직원이 들어왔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며 혼잣말을 끝없이 중얼거리고 있다)
- 세상은 선과 악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나는 정의의 편에 속해. 내가 선에 있다면 악이라는 것도 있어야 해. 악당의 역할이 없다면 나도 없는 거야. 세상은 그럼 누가 지켜주지?
〈기록 끊김〉

초기 관측 모습

〈녹음기록_5 : 3등급 이상의 관계자들만 열람 가능〉

이 자료는 폭주 중 얻은 녹취록 일부다. 해당 환상체는 시설에 갖춰져 있던 무전기를 사용하여 비상계획팀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 (계속해서 흐느끼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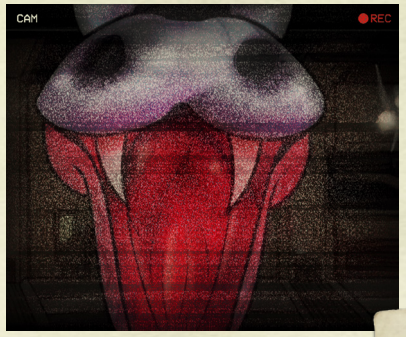
직원 : 비상계획팀입니다. 신원을 말씀해주세요.

– 내가, 내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나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탓이에요. 내가 모든 걸 망쳤어요. 내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들에게 배신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직원 :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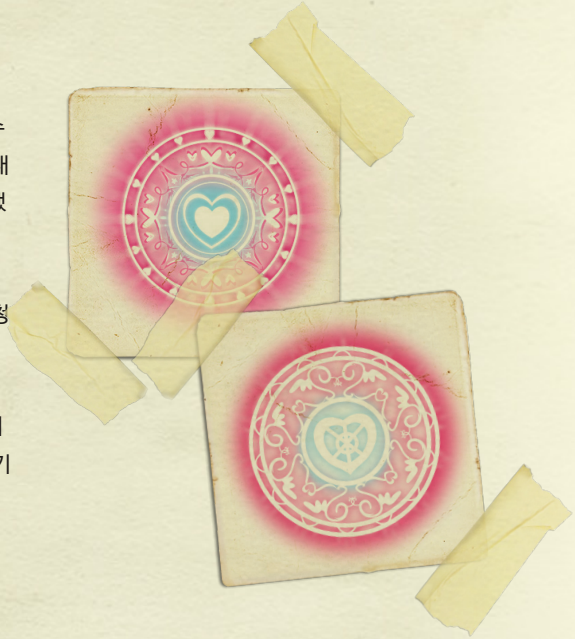
– 모르겠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피가 엄청 많이 흘러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정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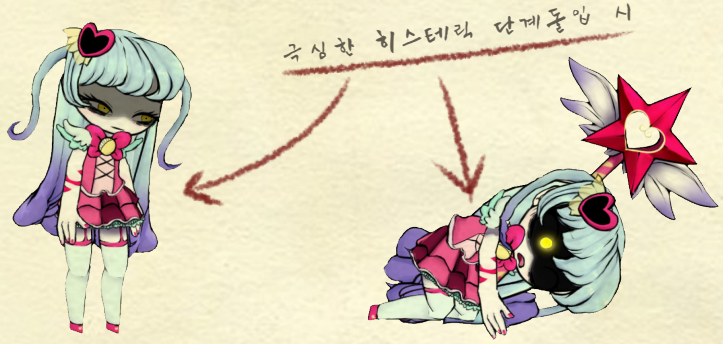
이후 해당 환상체의 격리실에서는 세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후 환상체는 해당 사건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었다.



〈■월■일 영상자료〉

해당 마법 진은 '사랑'을 '분해'로 치환하는 구조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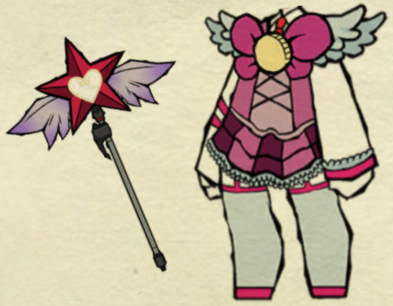
극심한 히스테리 단계돌입 시

눈구멍은 텅 비었다.
소리로 적을 찾는 것이
아닐까

날개는 화려하지만 단지 그뿐이다

사랑과 증오의 이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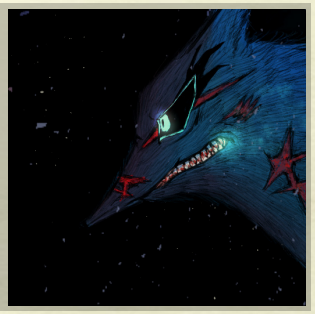
E.G.O



마법 소녀의 사랑스러운 에너지가 솟아 나오는 마법봉과 원피스. 악당들은 모두 성스러운 빛을 통해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새로이 태어날 것이다. 그대로 타오른 채로, 영영 깨어나고 싶지 않겠지.

모두를 지키고 싶었던 사랑의 형태는 집착의 형태로 마음을 좀먹기 시작했다. 바로잡으려 하기 시작했을 땐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그리고는 사랑보다 깊어져 가는 증오의 소리가 들려온다

어쩌면 좋을까.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할 것이라고 마음먹었지만 남아있는 것은 부서져 가는 마음뿐이었다.



WAW

No. F-02-58
커다랗고 나쁠 늑대

그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은 크고 '나쁠' 늑대였으니까.

듬성듬성 털이 빠져버린 늑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족보행이 가능하며 의사소통 또한 어느 정도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항상 직원들을 잡아먹거나 탈출을 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이는 해당 환상체와의 대화나 행동에서 쉽게 들통이 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 쉽게 방지할 수 있다.

■■■■ 날짜에 발생한 사건은 많은 직원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빨간 두건과 늑대가 마주친 순간 상황은 통제 불능이 되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둘을 마주치게 하지 말아라. 차라리 직원 몇 명을 희생양으로 써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 후에 일어날 피해를 계산해보면 더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다.

오랜만에 먹는 살점은 너무나 맛있었다. 그 광경 속에서 익숙한 빨간 천 조각이 장롱 속에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했고 아닐 수도 있었지만, 딱히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부터 자신을 제어하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은 크고 '나쁠' 늑대였으니까.

이곳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늑대의 역할만큼 구역질 날 만한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 늑대는 태어난 것으로도 죄가 되었다. 늑대의 이름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커다란 나쁜 늑대라고 불려야 한다. 모든 늑대는 크고 흉악하기만 한 털북숭이 괴물로 자라난다. 늑대는 배가 고파도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어서는 안 됐다. 늑대는 적당히 선을 지키며 나쁜 짓을 해야 했다. 그리고 벌을 받아야 했다. 언제나 불보기가 되어야 했다. 그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되었다….(중략)

상처의 9할은 F-01-57으로 인한 것.
그녀의 냄새는 상처를 벌어지게 한다

F-01-57 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

푸른 흉터

E.G.O

무기는 흉악한 늑대의 발톱을 연상시키는 듯하다. 한때 이 발톱으로 수많은 생명체의 배가 갈라지고 내장이 헤집어져 버린 적이 있었다. 대상의 살점을 발라내어 피를 멈추지 않게 한다. 방어구는 끝나지 않는 싸움의 역사를 알리듯이 무수한 흔적들로 헤집어져 있다. 결국 모든 상처가 오랜 시간 후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듯이 피해를 완벽히 보호해주진 못할지라도 무뎌지게 해줄 것이다

WAW

No. O-02-40

큰새

한 달 후, 결론이 났어요.

그 숲 속에는 '괴수' 라는 건 없었죠.

어두운 숲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램프 하나를 들고 정찰하는 커다랗고 눈이 많은 새다. 보통의 새와는 달리 날개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에 물건을 집을 수 있을 정도의 기다란 팔이 나 있다.

…..(중략)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발견하면 빤히 쳐다보곤 머리를 물어버렸다. 커다란 새는 괴수로부터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깃털을 모두 태워 심지를 만든 뒤 영원히 타오르는 램프를 만들었다.

커다란 새 덕분에 숲에서 괴수 때문에 죽는 생물의 수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커다란 새는 여전히 괴수 때문에 죽는 희생자들이 마음에 걸렸다.

커다란 새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먼저 생물들을 죽인다면 괴수에게 죽는 생물은 없을 거 아냐!"

그 후로 어두운 숲엔 머리를 물어뜯어 죽인다는 괴수의 소문만이 퍼졌다.

■■■■ 지역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담으로 가장 오래 산 마을 주민인 ■■■■ 에게서 확보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숲에 아이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 일종이라고 여기는 증언이 있었으며 최초의 민담 계승자는 불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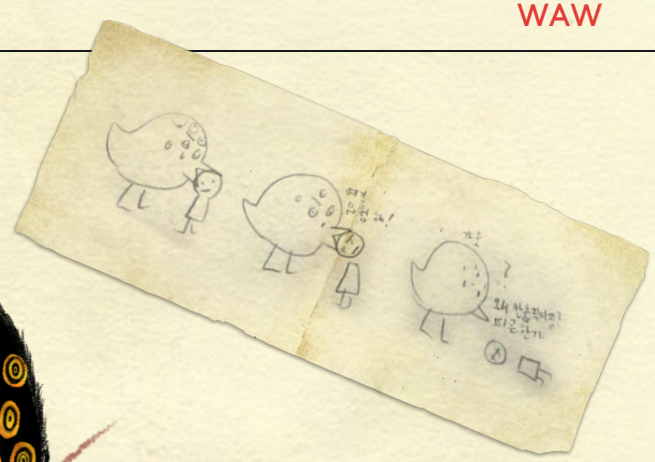
그리고 민담은 거짓이 아니었다.

〈녹음 기록 일부 발췌〉

"우리는 숲속에서 이 커다란 새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괴수' 에 대해 찾으려고 했죠. 우리는 정말 그 숲 속을 이 잡듯이 뒤졌어요.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낱낱이 파헤쳤죠. 한 달 후, 결론이 났어요. 그 숲속에는 '괴수'라는 건 없었죠. 그 큰 새를 제외하곤."

〈탈출시 복도영상〉

복도는 정전이 되었다



여러 눈은 일사불란하게 괴수를 찾는다

영원의 불이 지펴진다

붉은 눈은 위험신호다

램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자를 부른다

매 순간 머리가 떨어져나가는지도 모르게 만든다

램프

E.G.O

숲속 생물들을 구할수록 큰 새의 눈도 하나씩 늘어갔다. E.G.O에는 그 눈부신 자부심들이 묻어나 있다. 그리고 타오르는 수십 개의 눈동자는 언제나 한 곳만을 향한다.

WAW

No. O-01-64
탐욕의 왕

슬픔이 말한다, 사라져라, 죽어라!
하지만 욕망은 영원하고 싶어하지.
깊고도 깊은 영원성을 원한다네."

행복은 집착이 되었고 집착은 탐욕이 되었으며 탐욕은 그 자체로 영원히 굳어버려 황금빛 호박이 되었다. 최초의 행복은 웃음을 머금은 채 그 속에 있다.

최초의 욕망의 씨앗은 행복하고자 했던 순수한 욕구로부터 있었다. 조그맣던 씨앗은 만족을 못해 점점 커졌고 딱딱하게 굳어져 갔다. 굶주린 물고기는 반짝이는 보석을 집어삼켰다. 보석은 허기를 달래주기는커녕 더욱 배고픔을 부추겼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이뤄지지 않는다. 많은 욕망이 버려지지만 사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언제든지 다시 고개를 쳐들 준비를 하며 호수 밑바닥을 배회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행복해지고자 하는 마음 역시 뱀 혓바닥처럼 날름거리며 종종 고개를 든다. 아주 조그만 미끼가 강물 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배고픈 물고기는 순식간에 그것을 낚아채서 물밑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이성적인 나머지 이러한 것들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지만 그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확신이라서 오히려 우스울 정도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를 통제할 수 없다.

마법 소녀가 아니게 된 마법 소녀는 많은 것을 먹었다. 지위, 돈, 명예, 그 외의 온갖 쾌락들.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걸 먹어 치웠다. 이제는 본능적인 탐욕만이 남았다.

〈누군가의 일기〉

많은 사람은 우연중에 영웅을 바라왔다.

한때 영혼 치료라는 게 있었다고 한다. 영혼이 아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우리는 모두 건강하다.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건 비극적인 환상인지도 모른다.

한때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자들도 있었다. 우리는 모두 그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파멸했는지조차도. 욕망, 나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욕망을 안다.

우리는 더 무언가를 믿지도 않고 기적을 바라는 간절한 희망도 품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이 왜 변했는가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 끝없는 욕망은 절망을 낳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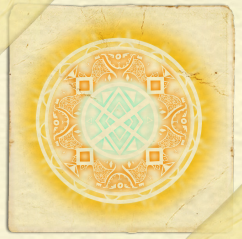
나는 가끔 끔찍한 상실감을 느끼지만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 모른다.

…많은 사람은 우연중에 영웅을 바라왔다.

"세계의 슬픔은 깊다. 욕망은 고통보다 더 깊다. 슬픔이 말한다, 사라져라, 죽어라! 하지만 욕망은 영원하고 싶어 하지. 깊고도 깊은 영원성을 원한다네!"

"인간의 최초의 욕망은 달콤한 사과 한 입에서 시작되었다. 그 대가로 우린 에덴에서 추방되었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드넓은 과수원. 내 바구니는 유독 커다래서 세상 모든 과일을 넣어도 채워지지 않아.
하지만 꽃이 있는데 꿀을 탐하는 게 나쁜 거야?"

탄촉 시 때마다 들리는 웃음소리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해당 마법 진은 공간과
공간을 연결한다

깨는 일은 없을 것이다

눈앞에 있는 모든 건 망설임 없이 삼켜버린다

골드러시

E.G.O

탐욕이 굳어 지금의 모습이 되기 전, 가장 빛났을 시기에 휘두르던 무기다. 원시적인 욕망을 표출하듯 특별한 기교가 필요 없이 적을 힘껏 후려칠 수 있다. 타격감만큼은 다른 무기들에 비교해서 훌륭하겠지만 맛을 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방어구의 호박색 보석은 영롱하게 빛나지만 결국 그것은 탐욕이 굳은 위험한 모습이다. 황금색의 아름다운 무늬는 많은 직원의 마음을 매료시켜왔다. 그 현혹은 아마 가장 깊은 무의식에서부터 나온 것이었을 거다.

WAW

No. O-04-72

파고드는 천국

눈을 떼지 마, 그저 보고 있어.
너의 시선 안에 담아두는 거야.

타인의 시선을 양분 삼아 때때로 날개를 펼치는 가시투성이의 환상체.

눈을 떼지 마, 그저 보고 있어.

이것은 시선 속에서 날아가. 격리실은 허울이야.

너의 시선 안에 담아두는 거야.

눈을 깜빡이는 정도는 괜찮아. 그런 찰나 정도는 이해해줄 거야.

하지만, 어느새 너의 관심과 집중이 끊어졌다고 인식되는 순간,

그것은 날개를 펼칠 거야.

그래, 날개 말이야.

오래전 버림받은 신에게 경배하듯이 앙상한 핏빛 날개가 붉도를 덮을 만큼 뻗어 나가겠지.

날개에는 떨떠들이 매달려 있어. 거름은 방금 숨이 끊어진 시체들이야.

만약 그런데도 너에게 아무런 눈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줄기는 이 회사를 뚫고 양지바른 곳을 향해 나가겠지.

천사가 그렇듯, 하늘을 향해 날개는 지상까지 뻗어가 햇빛마저 덮어버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어. 마침내 네가 눈을 돌려서 너의 인식 안에 그것이 들어오게 되었다면,

다시 이곳, 길고 어두운 지하 속에 돌아올 거야.

만약 그때까지 네가 날아남았다면 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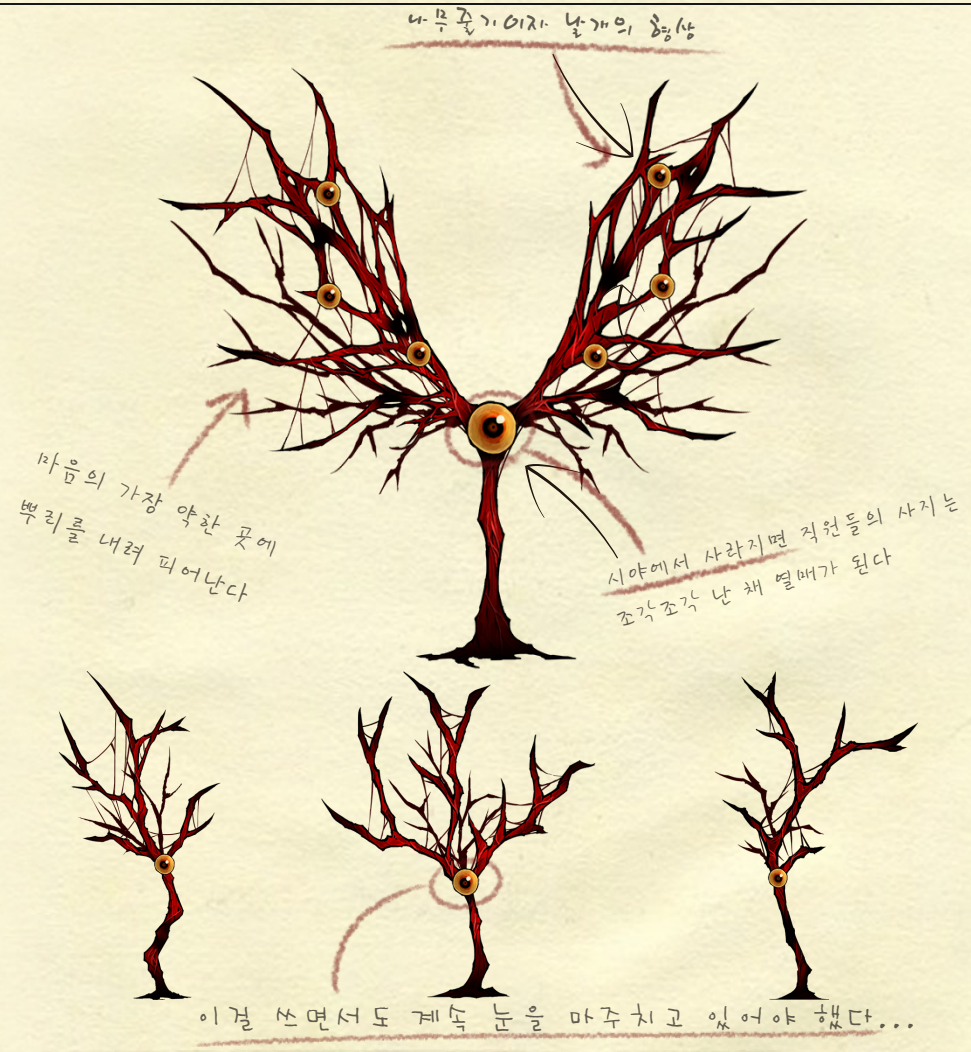
시선이라는 건 그런 거다. 관심. 보이지 않는 연결의 끈. 오롯한 집중.

이곳으로 오지는 마라, 네가 쉴 곳이 없거든.

하지만 이것 봐, 너의 시선 속에 서야 나는 결실을 만들 수 있었어.

이게 네가 원하는 모습이 맞니?

마침내 눈물이 나지 않을 무렵이 된다면, 그때 답을 해 줘.



E.G.O

천국

그저 너의 시선 안에 담아두는 거야.
오래된 신을 향한 날개를 펼치는 순간 당신만을 향한 천국이 파고든다.

WAW

No. F-02-70
흑조의 꿈

백조의 꿈을 꾸던 흑조가
잠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엘리야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많았다.

그녀의 가난한 부모님은 언제나 말했다. 비록 물려줄 것은 아무 것도 없으나, 우리에게는 정직과 성실이라는 보석이 있단다. 너희에게 당장은 큰 도움은 주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어느 날 도시에 자욱한 안개가 생겼다. 자연현상이라고 여겨졌던 희뿌연 안개는 하루 이틀이 되어도 개지 않았다. 메스껍거나, 헛구역질하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대부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안개 속에서 일했고, 안개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물론 엘리야도 그 대수롭지 않아야 하는 사람중 하나였다. 그녀만이 가족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대물림 된 가난으로 빚도 많았다. 엘리야에게는 많은 오빠가 있었지만 이미 몇 번의 실패로 의지는 바닥이 되어버렸다.

엘리야는 언제나 피곤했다. 하지만 부모가 늘 하던 말처럼, 흔히 보고 들어왔던 동화 속 교훈처럼, 열심히 한다면 될 수 있을다고 생각했다. 종국에는 흰 날개를 펼쳐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어떤 새처럼 말이다.

몇몇 사람들이 안개를 피해 도시를 떠났다. 그들은 이 곳이 버려진 도시라고 했다. 엘리야는 듣지 않았다. 엘리야는 가끔 구역질을 하기도 했다. 온몸이 부르트는 것을 느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버티면 쐐기풀로 이은 옷은 완성이 될 것이고, 한때, 사랑해 마지않았던 오빠들에게 던져준다면, 모두가 화목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나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평소처럼 일을 끝나고 나온 그녀는, 길에서 자신과 있는 힘껏 부딪힌 한 행인을 바라보았다. 먼저 달려오다 부딪힌 주제에 행인은 주저 앉은 채로 제대로 일어서지를 못했기에, 그녀는 괜찮냐고 물으며 잡아 일으켜 주려는 선심을 보였다. 행인은 비척비척 일어나더니 몇 걸음 못 가 다시 쓰러졌다. 무언가를 피해 달아나던 사람처럼. 엘리야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고 했다. 행인이 먼저 입을 열었지만, 말을 하려고 입을 연 것이 아니었다.

그의 입에서는 피와 오물이 섞인 덩어리들을 게워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입, 그 다음에는 코와 귀, 눈까지.

멀리서부터 함성이 들린다고 느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뭔가를 뱉어내는 남자를 둔 채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백조의 꿈을 꾸던 흑조가 잠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연기 속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웃고 있었다. 누군가는 몽둥이를 휘두르기도 했고, 누군가는 이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웅크려 있었다. 바닥에는 검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찌꺼기들이 어지럽게 발자국을 남긴 채로 뿌려져 있었다.

그녀는 오빠들을 찾기 시작했다. 쐐기옷을 입어서 저주가 풀려야 할 자신의 가족들. 함께 행복을 꿈꾸었던.

멀리서 사랑하는 오빠들이 보였다.

엘리야는 무릎을 꿇은 뒤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게워내고 있는 것을 함께 토하기 시작했다.

호수가 잔잔히 물결친다. 방금까지 수십 마리의 백조들이 힘차게 하늘로 날아간 듯.

초기 관측 시.
배우 처참했다

연기 전쟁의
물질이 묻어있다

더 이상 햇빛을 가릴 필요가 없는
양산은 적은 찌르고 막을 뿐이다

털은 매우 더럽고
오물이 묻어있다

흑조

E.G.O

백조가 될 줄 알았던 흑조는 쐐기풀을 엮어 저주를 풀고 싶어 했다. 깨지 않는 꿈을 꾸길 바랐지만 언제나 현실은 냉혹했다. 자욱한 연기 속에 그들은 허깨비 같은 하루를 반복하였다. 고통스럽고 버둥거림에 질린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추억이 담겨 있는 브로치로 그 마음을 억눌렀다.

ALEPH

No. O-03-89

만약 어떤 결함으로 인해 해당 환상체를 가리는 모자이크가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 번 관리자의 처분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해당 CENSORED에 대해 조금이라도 묘사를 시도하려고 하면 화자와 청자 모두 심각한 정신오염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 CENSORED의 외향에 대해서 어떤 묘사도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 음성 기록이 이나 수필 기록이 있다면 묘사에 관한 부분은 삭제가 이뤄져야 한다.

〈녹음 기록 일부 발췌〉

랜디 : 너 같이 유능한 직원을 그 격리실에 보내야 하는 게 안타깝군.

CENSORED :어쩔 수 없죠, 직원 중에서는 제가 제일 인지붕괴 저항력 수치가 제일 높으니까요.,

랜디 : 다시 한번 말할 게, 분명 너는 모든 직원 중 가장 저항력 수치가 뛰어나지만 그건 인간의 기준에서 높을 뿐이야. 10부터 숫자를 세기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10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었거나, 토사물이나 혹은 침이 주체 못 하게 올라올 때, 이곳이 회사가 아닌 다른 공간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바로 격리실을 나가야 해.

CENSORED : 한 번만 더 말하면 13번째에요, 랜디.

랜디 :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지 못해. 모든 카메라는 꺼져있고 너의 음성기록은 작업 완료 후에나 갱신되니까 걱정되는 건 당연하지. 아까 내가 말한 지침 사항 다시 한번 읊어봐.

CENSORED : 들어가서, 작업은 하지 않되, 저와 함께 들어가는 CENSORED 직원의 작업 과정을 지켜본다. 그리고 벌어지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한다, CENSORED가 위험에 빠지더라도 특별한 명령 없이는 구하려고 하지 말 것.

랜디 : 정확해. 이제 10초를 세고 나면 너와 나의 연결은 끊긴다, 너의 기록에 무한한 행운이 있기를. 3.. 2….1…. 음성 수취 종료.

(중략)

CENSORED : 랜디.. 저건 마치, 아주 오래전 우리의 CENSORED처럼 보이지 않나요?.. 아, 이건 저 밖에 못 본다는 걸 잠시 잊었어요. 심지어.. 번식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있었던 CENSORED 직원이 CENSORED가 되었어요… 이건 마치 CENSORED의 한 과정 같군요… CENSORED 직원의 CENSORED에서 작은 크기의 CENSORED가 나왔어요… 이럴 수가…이젠 CENSORED 직원에게 CENSORED 하는 중이에요…. CENSORED 직원은 CENSORED의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울음소리가… 들려요?

– CENSORED

이제 알겠어요… 저것은 우리의 CENSORED에요, 바로 이것이 CENSORED의 존재 이유인 거에요… 저도… 곧 CENSORED로…

〈기록 끊김〉

시체 섭취 – 개념적인 것을 빨아들여 섭취하는 것은 아닐까?

인신 공양 –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상상조차 하지 말 것

이 그러는데 랑 닮은 모습이기도 하다고 함

이건 직접 볼 때에 차라리 눈이 머는 게 낫 같다

관련 보는 사람마다 똑같은 것을 보게 되는 걸까?

말도 안 된다

불가능

CENSORED

CENSORED는 CENSORED 하는 기능이 있지만, 이는 참으로 보는 사람을 끔찍하게 만든다. 3초 이상 E.G.O를 바라보면 구역질이 난다.

ALEPH

No. T-01-31

고요한 오케스트라

망가진 것들에게서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된다.

예술을 사랑하며 회사 전체에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고자 하는 환상체.

〈백과사전 일부 발췌〉

지휘자는 단순히 음악적인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이 아니다. 최고의 앙상블을 끌어내고 음악의 쟁탈권을 바로 쥐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지휘자의 실력은 지휘대에 선 지 5분 안에 판가름 날 수 있다. 지휘자가 악보를 펴는 그 짧은 순간, 그의 눈빛, 행동, 분위기를 통하여 연주자들은 그에게 복종하기 알맞은 대상인지를 곧바로 간파한다. 그들 간의 타협과 조화가 없다면 악보에 담은 거시적인 의미는 밖으로 드러날 수 없다. 따라서 그만큼 지휘자는 탁월한 통솔력과 지도력, 설득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중략)

〈1악장 : 침착하면서도, 느리게. 〉

지휘관은 종말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2~4악장 : 유쾌하고, 빠르게 〉

직원들은 서서히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며 교향곡을 향한 열렬한 감동을 한다. 그리고 그건 곧 내면의 광기로 바뀌어 눈앞에 있는 상대들에게 공격을 가하려 한다. 이때 오케스트라의 음악은 더욱 박차를 가해 부서 전체를 종말로 이끌어간다. 연주자들이 전부 모였을 때, 아무도 들을 수 없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시작된다.

〈피날레〉

"음악이 너의 모든 것을 관통할 것이다."

1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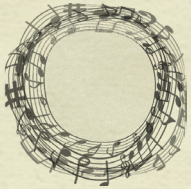
음표들이 가슴을 휘버판다.
온몸에서 피가 나는 기분

2악장

정신을 끝까지 상승시키고
그대로 추락시킨다

3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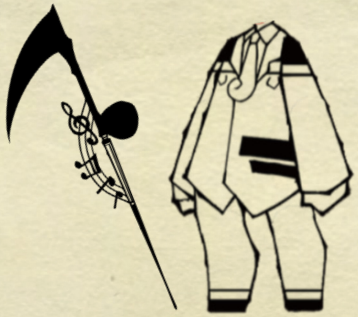
인지를 초월한 음악



4악장

모든 것을 상실하며 청자들은
고요 속에 남게 된다

박수갈채는 길다...



다카포

E.G.O

지휘자의 손동작처럼 고요하면서 절제 있게 휘둘리는 낫과 교향곡에 어울릴 법한 지휘관복. 이 노래에도 악보가 있다면 종말을 연주하는 곡일 것이다. 이 E.G.O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고요의 음악에 젖는다.

피날레에 도달할 때까지 지휘자는 연주를 끝내고 싶지 않아 한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났을 때 박수갈채 관객 정도는 남겨놓는 게 어떨까.

ALEPH

No. T-03-46

백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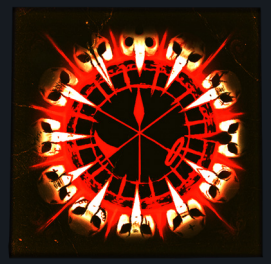
나의 종들은 모두 일어나서 나를 맞이하라.

갓 태어난 태아의 형상을 하고 있다. 태아라고 부르기에는 외양이 징그러울 정도로 기괴하다. 대화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대화가 아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언어는 격리실 전체에 전해진다.

"내 은혜를 받은 내 사도들은 스스로가 몸담았던 악 길에서 떠나 나를 찾아라. 때가 되면 내가 죄를 사하여 그들이 머무는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에게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직원들, 12명의 사람은 모두 외형이 변하여 모든 직원에게 구원을 전하고자 격리실을 배회할 것이다. 각각의 등에는 날지 못하는 날개가 돋아나고 부리 모양의 가면을 쓰며 모든 죄를 사하는 십자가를 짊어진다.

"내가 일렀던 대로 너희는 내 가르침을 좇아 행하라. 육체를 거슬러 너희들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의 사도들은 멀리 있는 이들에게 손을 뻗어줄 이, 가까이 있는 이웃을 포용할 이, 모든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할 이의 모습을 한 채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들은..

"시간이 다 되었다. 곧 종이 울릴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나의 종들은 모두 일어나서 나를 맞이하라. 나는 죽음이자, 생명이다. 빛이고 어둠이다."

백야의 부름을
기다리는 사도

O-03-03의 면류관과
같은 성분으로 보인다

O-03-03과 유사한 파장

언약을 대상에게 새긴다

사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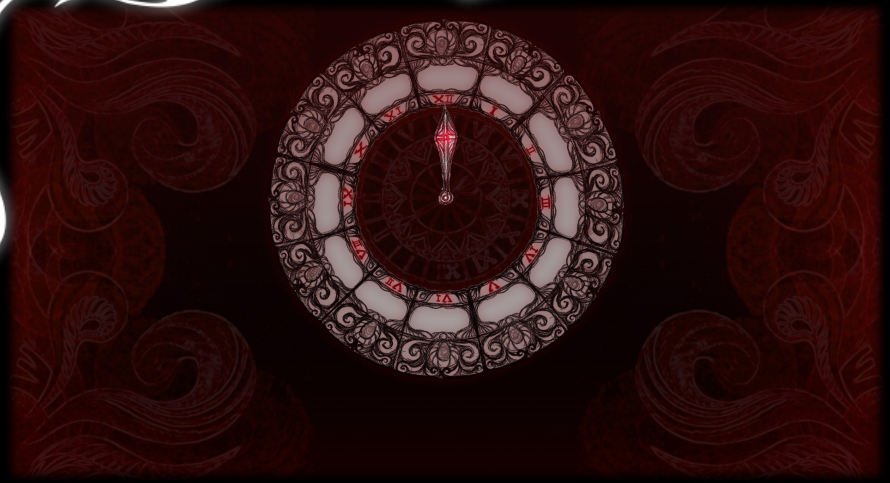
존재 이유의 상실

낫
존재를 수확한다

창
의심하는 자는
바쳐진다

지팡이
약속의 말이
새겨져 있다

꿈만이 온다... 내게도 자비가 왔을까....?
어딘가에 숨어 있는 마귀를 찾아라



'너는 [redacted]사도다.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저희에게 일러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가 [redacted]사도와 [redacted]사도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redacted] 사도 이르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가 [redacted]사도가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그 성에 [redacted]사도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자라 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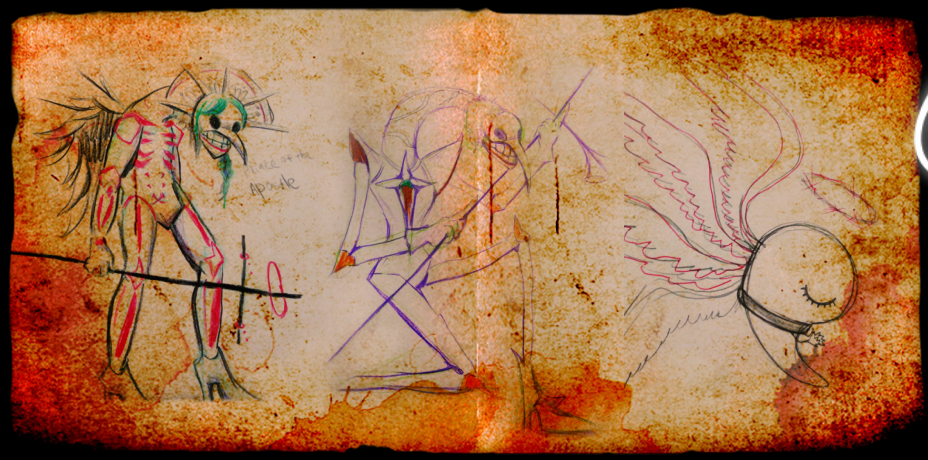
'[redacted] 사도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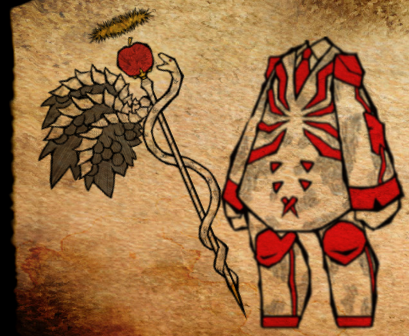
[redacted] 사도가 대답하되 당신은 그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임금이소로이다.'

'[redacted] 사도가 이르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그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실낙원

F.G.O

문을 두드렸으니, 열리지 않았는가. 나는 끝에서부터 왔으며 잠시 머무는 자이기도 하다. 동시에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켠 자다. 사랑하는 자들아, 걱정 마라.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괴로움은 마음먹기에 따라 한낱 티끌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는가. 너희는 기적을 증명해주길 원하는구나.
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권능을 내가 보여주겠노라.

ALEPH

No. O-06-20
아무 것도 없는

그리고 많은 껍데기들은 '관리자님' 만을 부르짖었다.

인간의 형상 같은 모습을 띠고 있지만, 인간일 수 없는, 인간이어서는 안되는 환상체. 일정한 주기로 직원을 잡아먹고 그 껍데기를 써서 살아간다. 골격이나 장기가 그 과정 중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 해 기괴한 형상을 띤다.

감각을 느끼지 못하므로 작은 틈 사이로 빠져나오거나 육체 일부를 잘라내 버리는 방식으로 탈출을 시도한다.

〈무언가를 위한 경고문〉

만약 이것이 탈출을 해서, 두 발로 섰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다음에, 당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며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세요.

〈상담 기록 일부 발췌〉

"우리가 직원으로서 환상체들을 관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도 우리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껍데기를 써버린 후 자신을 죽은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직원의 평소 행동, 말버릇,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보이는 모든 것들을 모방하는 겁니다. 모방을 위해 그것이 얼마나 신중히, 그리고 오랫동안 직원들을 지켜보았는지는 모를 일이죠.

지금 우리 주위에도 누군가의 껍데기를 뒤집어쓴 채로 어슬렁거릴 수 있다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점점 이 환상체는 인간의 모습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아마 그때가 회사가 멸망하는 날일 것입니다.

다음은 '아무것도 없는' 의 껍질이 된 직원이 마지막 순간에 보인 이상 행동을 기록한 것이다.

〈녹음기록 일부 발췌〉

직원 1: 관리자님, 관리자님!

직원 2: 아까부터 왜 그렇게 관리자만 찾아. 너 오늘 되게 이상해, 알아? 계속 이상하게 웃고 있기만 하고.

직원 1:…

직원 2: 어, 조금 전 직원들한테 긴급 알림이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을 관리한 직원은 빨리 상담실로 오라는데,

직원 1:…

직원 2: 그거, 너 아니었….나?

직원 1: …

직원 2: 뭐라고 말 좀..

직원 1: 관리자님, 관리자님 관리자님! (■■■■)

〈기록 끊김〉

(기록물에는 음성파일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고, 직원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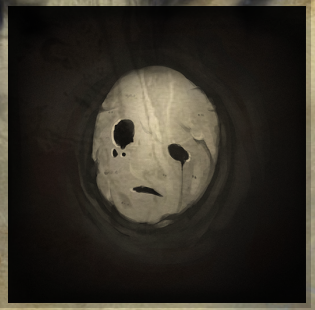
'아무것도 없는' 이 들어간 껍질은 바로 그 직전 자신이 죽이려 했던 직원의 행동을 최대한 모방하려 한다. 자신이 눈에 담은 마지막 직원의 행동, 마지막으로 말했던 언어나, 뭐 그런 것들을.

그리고 많은 껍데기들은 '관리자님' 만을 부르짖었다.

미미크리

인간의 외형을 모방하고자 했던 마음은 욕심으로만 고치라는 듯 어설프게나마 남아있다. 종종 이 세계가 아닌 것 같은 낯선 눈동자가 당신을 바라볼 때 전율을 느낀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의 재료가 필요하다. 사용하는 직원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인류애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ALEPH

No. T-01-75
웃는 시체들의 산

웃는 얼굴들은 낯선 동시에 서글퍼.

이곳은 늘 그런 곳이긴 하지만, 어느 날 수십 명의 직원이 죽는 사고가 났어. 이유야 뚝같지. 누군가 탈출을 했고, 그 탈출을 막으려다 또 다른 탈출을 부르고…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다면 사고가 더 커지기 전에 진입로를 막아서 한 곳에서 모두 죽은 거라고나 할까. 말 그대로, 시체의 산이 되었지. 당연하겠지만 누구도 처리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원래대로라면 반나절 안에 치워야 하는 거였지만, 그 사고는 너무나 처참했고, 모두가 큰 피로를 느꼈기에 치우는 작업을 보류시켰지. 어떤 부서였는지는 물어보지 마, 그런 세세한 건 다 까먹은지 오래야.

상온에 놔둔 시체는 당연하게도, 몇 시간 만 지나면 썩어가. 심지어 대부분은 신체들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더 빨리 썩어가지.

평상시대로라면 금방 치워졌을 그 산은 꽤 오랫동안 부서에 남아있었어. 그리고 자연의 명을 받아 썩어가고 녹아가고 부식되어갔지.

탄생은 그렇게 시작되었어, 시체의 산에서. 죽은 자들에 의해 창조가 이뤄진 거야. 경이롭게 들린다고? 그럼 좀 더 들어봐. 죽은 자들은 모두 웃고 있는 얼굴로 서로가 서로의 몸이 되어줬어. 그나마 온전한 부위를 나눠 가지며, 서로의 다리가 되었고 입이 되어주었지. 그렇다고 그것이 의식마저 되찾은 건 아니야. 바라는 건 딱 하나야, 피에 절은 우리들의 고기. 냄새를 맡으면 그것은 순식간에 다가올 거야. 웃는 얼굴들은 낯선 동시에 서글퍼.

더 많은 시체를 넘어갈수록, 그것은 더욱 형체를 가져가. 그리고 절대 만족을 느끼지 않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이야. 이곳에서 사고는 언제나 반복돼. 누군가는 잠시 묵념이야 해주겠지만 대부분은 또? 하고 고개를 돌릴 거야. 이거 하나만큼은 잘했어, 부서를 통제한 거 말이야. 나 밖에는 남지 않았거든. 아까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었니? 대부분의 동화랑 비슷해. '게으르지 말자' 야. 내 목소리가 그친다면, 정확히 3분 있다가 바로 이 곳으로 와서 너의 동료들을 치워줘.

아마 나는 곧 있으면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거야. 커다란 폭탄을 하나 삼킬거거든.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 이곳에는 피가 아주 많이 흐르고 있어. 웃는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곳에서 자주 보지 못하는 표정들이지.

커다란 폭발 소리가 나도 놀라지는 마. 말했듯 정확히 3분이야. 이 정도의 폭탄이라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건 내 시체일 테니.

웃음

이름 모를 직원들의 창백한 얼굴과 거대한 입이 달려있다. 무기를 내려치면 대상을 향해 아귀 같은 입을 벌려 먹어치운다. 그리고 만족은 없다. 방어구엔 낯익은 얼굴이 박혀 있다. 착용자는 불현듯 죽음의 무게를 느낀다. 적의 공격은 죽은 이들이 대신 막아줄 테니 안심해도 괜찮을 것이다.
아주 때때로, 괴로운 듯한 신음소리가 들리지만 이미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무시하자.

ALEPH

No. O-02-63

종말새

"저기 괴수가 있다! 검고 어두운 숲에는 크고 무서운 괴물이 산다!"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찰 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많은 직원이 이 환상체의 등장을 두려워한다. 이 새에 관해 말을 하려면, 우리는 먼저 오래된 검은 숲에 관하여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한땐 평화로웠고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숲을 기억해야 한다. 그 후에는 종말이 있으리니.

〈검은 숲 이야기〉

옛날 옛적, 따뜻하고 나무가 울창했던 숲에 세 마리의 행복한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새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지만 숲속 생물들은 그들을 각각 큰 새, 긴 새, 작은 새로 불렀답니다. 많은 생물이 살고 있던 숲에서는 모두가 자유로웠고 아무도 싸우지 않았으며 행복했습니다. 새들은 숲이 망가지거나 파괴되지 않기를 그 누구보다 많이 바랬어요.

평화로웠던 숲에 낯선 이가 찾아온 것은 햇빛이 제일 반짝반짝하게 빛나던 정오였어요. 그는 여행자이기도 했고 개척자이기도 하며 예언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무도 아닌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숲에 들어오기를 원했지만, 새들은 그를 수상하다고 여겨 들여보내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화가 난 낯선 이는 숲을 떠나며 새들에게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이 숲에는 비극이 들이닥칠 것이다. 숲은 악행과 죄로 물들 것이고 싸움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비극이 멈추는 날은, 끔찍한 괴수가 나타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 날이다. 숲에서 해와 달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며, 결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다."

이 예언을 들은 새들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남자의 말대로 숲에서 싸움이 멈추지 않고 괴수가 나타나서 숲을 해치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모두를 대신하여 그들은 숲 속의 파수꾼이 되기 했어요. 그들은 숲을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숲에 있는 생물들을 지키고 숲의 평화로움을 유지 하려고 했던 것이랍니다.

우선 눈이 많았던 큰 새는 숲에 침입자가 없는지 감시하기로 했어요. 큰 새의 눈은 먼 곳까지 볼 수 있었고 우리가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드는 캄캄한 한밤중에 괴수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 말을 들은 큰 새는 걱정이 된 나머지 자신의 깃털을 모두 태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숲속의 생물들은 낮에도 밤에도 큰 새의 끝나지 않는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긴 새는 숲의 평화를 위해서 숲에 들어오는 자들의 죄의 무게를 재었습니다. 긴 새의 저울은 공명정대했고 모든 죄의 무게를 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저울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여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말을 들은 긴 새는 걱정이 된 나머지 언제든지 심판의 결과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는 저울을 들었습니다.

작은 새는 자신의 부리를 이용하여 나쁜 짓을 저지른 생물들에게 벌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의 부리는 너무나 조그매서 아무도 아파하지 않을 거야."

작은 새는 걱정이 된 나머지 자신의 입을 아주 커다랗게 찢어 어떤 생물도 한입에 삼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숲에는 더는 누구도 찾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숲 밖에서는 숲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숲에 들어간 생물들은 모두 끔찍한 일을 당한대'

'큰 새는 숲에 있는 생물들을 언제나 감시해서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어'

'긴 새의 저울은 전혀 공정하지 않아'

'작은 새의 벌은 너무나 무서워'

그러자 새들은 화가 났어요. 우리는 이 숲을 지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우리의 수고로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 점점 숲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줄어들었으며, 점차 많은 생물이 불만을 내뱉었고, 숲에는 매일 같이 싸움이 일어났고, 숲을 평화롭게 만들고 싶었던 새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지만…

'아냐, 이곳은 너무나 광활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숲을 지키기 부족해,'

'그렇지만 우리가 아니면 숲을 지킬 수 있는 생물은 없어.'

'만약 우리의 힘을 하나로 합친다면 좀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야.'

백 리 밖도 볼 수 있는 큰 새의 눈과 어떤 자의 죄라도 심판할 수 있는 긴 새와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는 작은 새의 입이 하나가 된 어느 날, 숲에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새의 모습을 본 생물들은 그 끔찍함과 공포심에 비명을 질렀고 곧 숲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우성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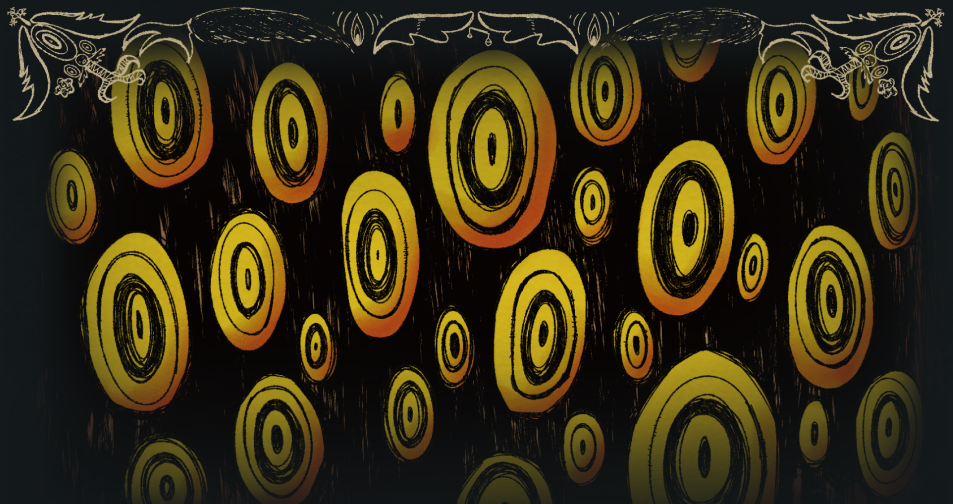
"저기 괴수가 있다! 검고 어두운 숲에는 크고 무서운 괴물이 산다!"

괴수가 있다고? 하나의 새가 된 세 마리의 새들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새는 숲속을 배회하며 괴수를 찾기 시작했지요. 괴수가 숲에 오면 큰일이니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물들도, 해와 달도, 괴수도. 남은 건 그저 한 마리의 새와 검은 숲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주 어두운 밤만 계속되었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검은 숲에는 무서운 괴수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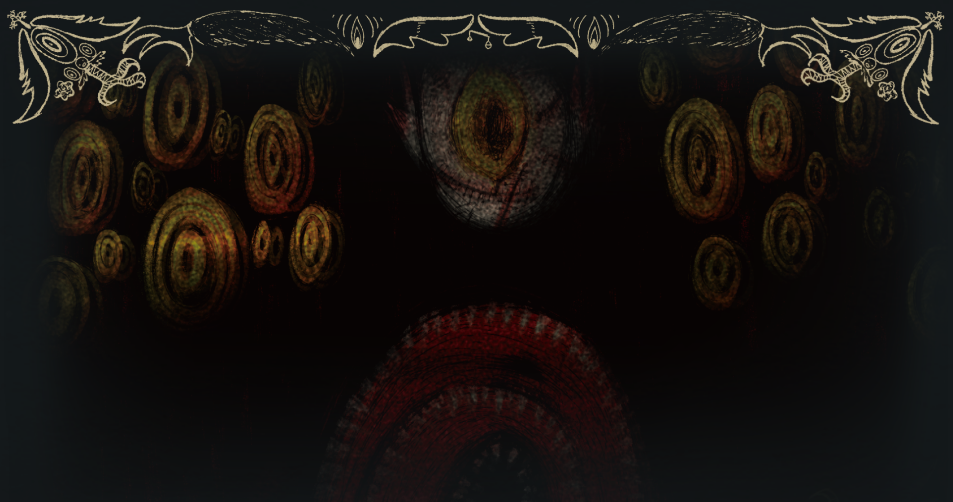
옛날 옛적, 따뜻하고 나무가 울창했던 숲에 세 마리의 행복한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긴 새는 숲의 평화를 위해서 숲에 들어오는 자들의 죄의 무게를 재었습니다.
긴 새의 저울은 공명정대했고 모든 죄의 무게를 잴 수 있었기 때문이죠.



큰 새는 숲에 침입자가 없는지 감시하기로 했어요.
큰 새의 눈은 먼 곳까지 볼 수 있었고 우리가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작은 새는 자신의 부리를 이용하여 나쁜 짓을 저지른 생물들에게 벌을 주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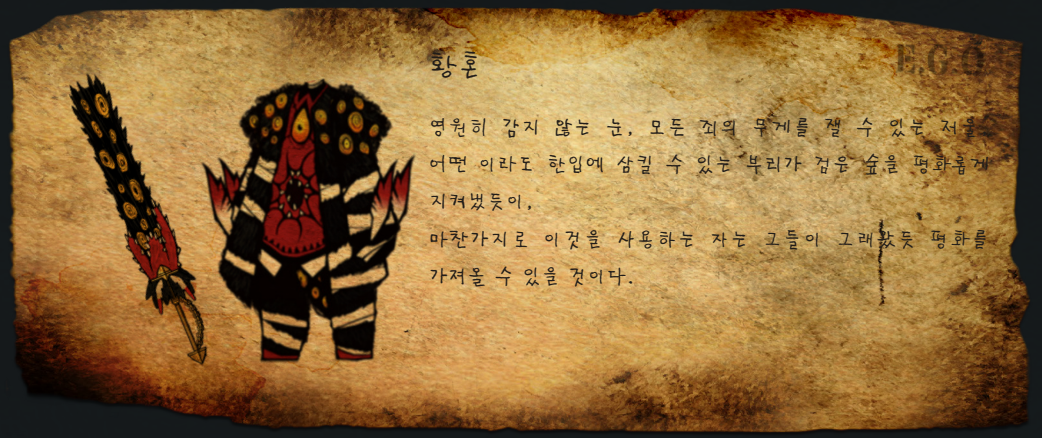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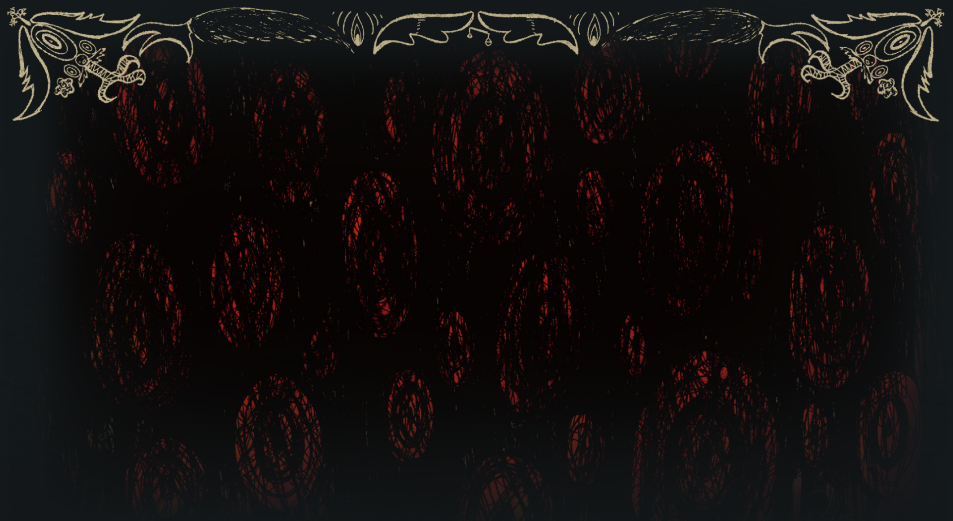
그때, 아우성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괴수가 있다! 검고 어두운 숲에는 크고 무서운 괴물이 산다!"

빛을 가두고

시간을 감추며

부리는 끊임없이 속삭인다





백 리 밖도 볼 수 있는 큰 새의 눈은 멀었고

어떤 것이라도 삼킬 수 있는 작은 새의 입은 다물어졌고,

늘 우주를 응시하던 머리는 고개를 떨구었고,

새들은 숲 속을 배회하며 괴수를 찾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물들도, 해와 달도, 괴수도. 남은 건 그저 한 마리의 새와 검은 숲이었지요.

ALEPH

No. O-03-93

푸른 별

곧 별이 되어서 만나자.

회사 내 직원들에게 긴급한 공지를 알립니다. 로보토미는 물론 여러분의 건전한 사내 모임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불건전한 음모를 꾸미는 모임이 이뤄지고 있다는 목격담이 들려옵니다. 반복해서 건의가 들어오니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군요.

특정 환상체를 신성시하며 숭배를 자진하는 것은 사칙 위반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것도 '신성' 할 수 없습니다.

특정 환상체의 담당이 아님에도 격리실에 허가 없이 출입하려다가 발각된 직원들은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환상체를 향해 몸을 던지고 싶다는 충동이 생긴다면 그것은 '감염' 입니다. 이곳의 일부 환상체들이 그렇듯, 당신의 뇌를 조정하고 현혹하는 과정 일부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던 일을 즉시 중지하고 정신 치료를 받으십시오. 직원 기초 교육을 통과한 여러분이라면 잘못된 현혹에 넘어가는 자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기 블랙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이름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3일간 회사에서 제공하는 치료를 받아야 하며 소속 세피라에 의해 처벌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 리스트를 공개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주위에 이렇게나 많은 감염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경각시켜주기 위함입니다.

덧붙여 며칠 전에 특정 환상체의 격리실에 몸을 던지려 했던 소피 직원을 구해준 딜런 직원의 용기는 매우 가상한 행위였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의 소중한 동료가 이와 같은 행위를 보일 경우, 즉시 담당 세피라에게 제보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딜런에게.

네가 소피를, 그리고 우리를 고의로 넘겼다고는 믿지 않아. 너는 그저 소피가 걱정되었던 것뿐이었겠지. 소피는 지금 감금되어있어.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바람에 온몸이 침대에 묶여있다고 들었어.

말해봐, 믿음을 가진다는 건 잘못된 일이니?

우리는 모두 죄인이야, 그리고 우리들의 푸른 별 만이 죄인을 받아주는 유일한 곳이야. 우리는 그곳에서 모든 죄를 씻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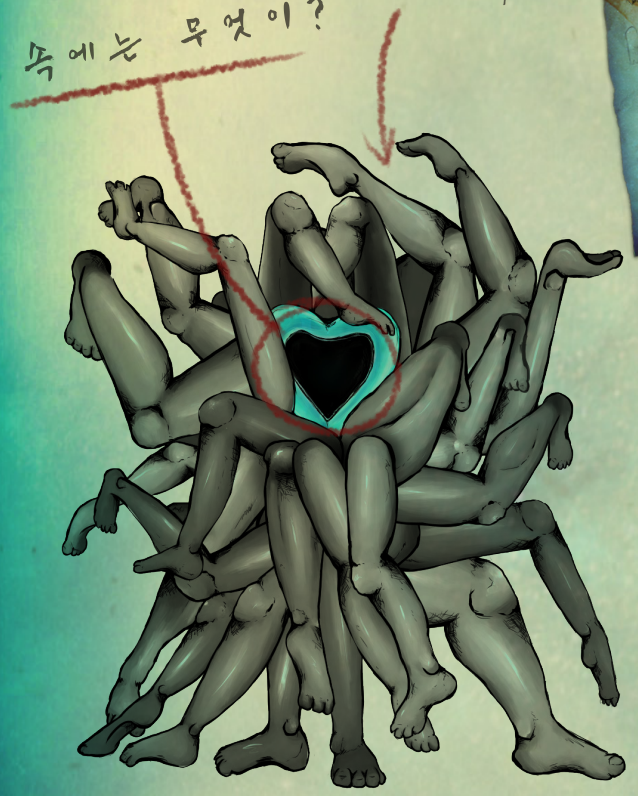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곳으로 돌아가. 이건 본능이야. 너는 몸을 던진 에밀리가 사망했다고 생각했었지만 단지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간 것뿐이야. 그녀는 순교자야. 영원한 별이 된 거지.

별이 떠오른다는 건 새로운 시작이야. 길고 긴 나팔 소리가 너의 귀에는 들리지 않니?

별의 가까이에 있으면 우리를 환영해주는 노랫소리와 함성을 들을 수 있어.

만약 모든 직원이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이 곳에는 결국 푸른 별만이 남게 되겠지.

곧 별이 되어서 만나자.



단일체가 되고 싶었지만
동시에 도피하고 싶었던
인간의 욕구와 닮았다

푸른 별의 위로는 청량하다

별의 소리

우리들의 절망이 모여 별은 빛나간다. 그리움을 자아내는 무기의 작은 구체는 따뜻한 광선을 발사한다. 빛 속에서만큼은 모든 게 평등하다. 방어구의 심장 부위에는 신비로운 빛이 나는 조각이 박혀 있다. 번쩍이기보다는 은은하게 비춰서 오히려 찬란하다. 잘 보다면, 우리가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곳임을 알 수 있다.

어느 날의 기록

공포에 직면하여 미래를 창조하라

백야

백야는 역병 의사가 컨셉이 잡힐 즈음에 디렉터님이 야심 차게 들고 온 친구입니다.

백야의 외형디자인은 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사도의 가면도 모두 다르게 생겼고 의미도 다 부여되어있습니다.

등장하는 개체의 수가 많고 변신하는 친구인 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백야도 레거시때와는 달리 좀 더 날개가 많아지고 풍성해졌습니다.
뒤에 광채도 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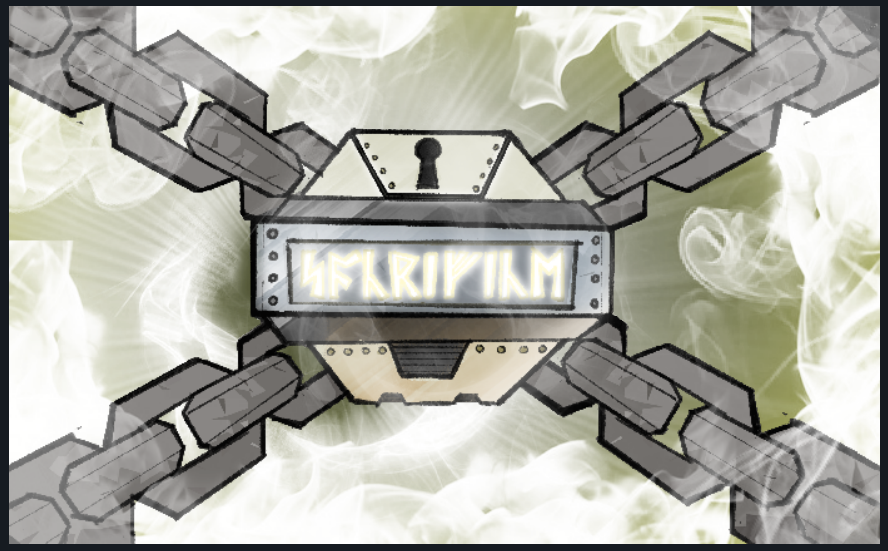
사도들은 초창기와 달리 자글거리지 않는 게 조금 슬프지만 어쩔 수 없죠.^^

by 김지연

썰매의 루돌타

루돌타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만든 환상체입니다.
처음 설정은 광기에 쌓인 과학자의 잔인한 실험 이야기였습니다.
'썰매가 루돌프를 끈다'를 메인으로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도 루돌타는 가만히 있고 썰매가 움직이죠. 썰매 안의 선물은 더더욱 활기차게 움직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루돌타는 루돌프와 산타의 합성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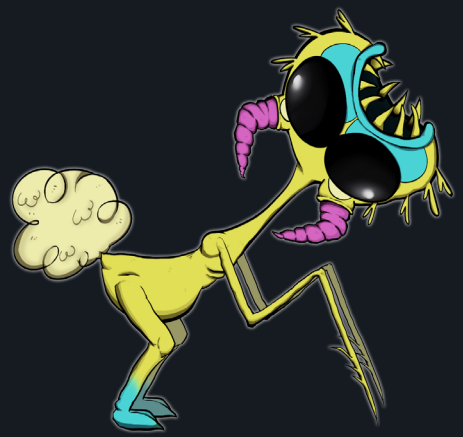
by 김지연



빛의 망치

빛의 망치는 독특하게도 격리실 필터가 먼저 만들어진 환상체입니다. 환상체를 디자인하는 친구보다도 제가 먼저 컨셉을 굳혔죠.
나름 룬문자 번역기까지 써서 희생을 뜻하는 Sacrifice를 변환해서 적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리뉴얼하면서 말 그대로 희생당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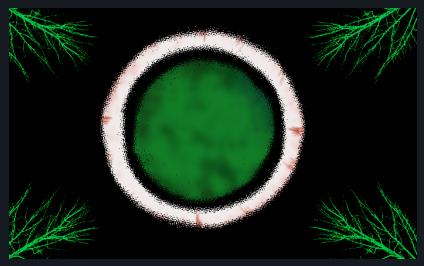
by 진하린



노리노리(뽈뽈이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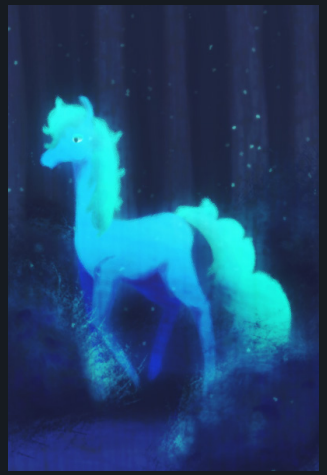
저희 베타 홍보 영상과 베타 트레일러 영상에 나오는 갈라진 여우(내장을 말하는 살벌한 귀여운 친구)는 태아랑 전혀 상관이 없는 환상체입니다.
인신 공양하는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태아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여우 친구를 쓰게 되었어요.
사실 여우가 아니라 고양이에요. 노리노리란 어엿한 이름도 있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왔네요. 아쉽습니다

by 김지연



침묵의 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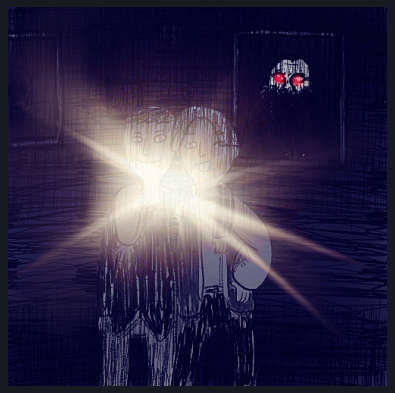
침묵은 더 이상 마냥 평화만을 불러오는 건 아니게 되었어요. — 앤젤라



창백한 말

단순한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죠

“조셉이 저한테 흥분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가 정성들여서 관리한 환상체가 자신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던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조셉을 모르세요? 그는 몇 달전에 ‘아무 것도 없는’ 의 껍데기가 되었어요. 그것은 결코 우리를 알아봐서 반응을 보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묻은 죽음의 냄새를 맡은 거죠.”



누군가의 초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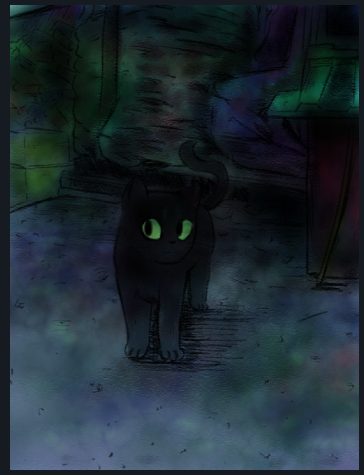
그저 '초상화'라고요

“내 장담컨데, 저 빌어먹을 초상화는 우리들의 방심을 유도한 거에요. 그런게 아니라면 우리가 관찰을 하고 수 많은 작업을 거친 동안 어떻게 그 흔한 미동 하나 없었겠소?”

가난한 극본가의 수첩

시나리오대로

이유는 이들의 증언이 너무나 해괴해서인데 가해자 A는 자신이 살인을 하기 직전까지도 살인을 하는 지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저 한 연극의 장면을 연기하는 줄로만 알았다 라고 주장했으며 목격자 C는 이후에 피해자 A가 B에게 죽임을 당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연극이 끝까지 이뤄지려면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 라는 증언을 했다.



장화 신은 고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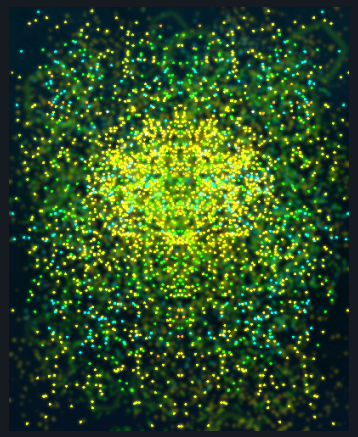
솔깃한 제안

“내가 인간에게 말을 건 적은 거의 없어. 영광으로 생각해도 좋아.나와 손을 잡은 인간들은 언제나 엄청난 영광과 부를 가질 수 있었지. 보잘 것 없었던 농부의 자식을 왕으로 만들어 줬다는 이야기 했던 적이 있던가?”

나를 보고 웃는 삐에로

나는 네가 즐겁게 웃어주었으면 좋겠어

“재빨리 그 격리소를 나왔어야 했는데.. 제가 즐거워 하지 않자 그것은 다른 도구를 꺼냈어요. 도구 인줄 알았죠. 그 순간 만큼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가장 '순수'했던 기억

“왜 하필 ‘동심’ 일까요? 수 많은 추론 끝에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결국 이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 였습니다. “

추락한 아무르타트

흐드러지다

이 환상체는 단순히 피를 흘려대던 식물인간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내가 했던 의미없던 말들, 그리고 앞으로 할 모든 말들을 들 을 수 있을 것이며 정확히 이해할 거라는 점이었다.

잭이 없는 콩나무

500년 전의 선물

“터무니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 중에 그 나무의 끝에 도달한다 뭐한다 해서 결국엔 올라가버린 놈이 있다고 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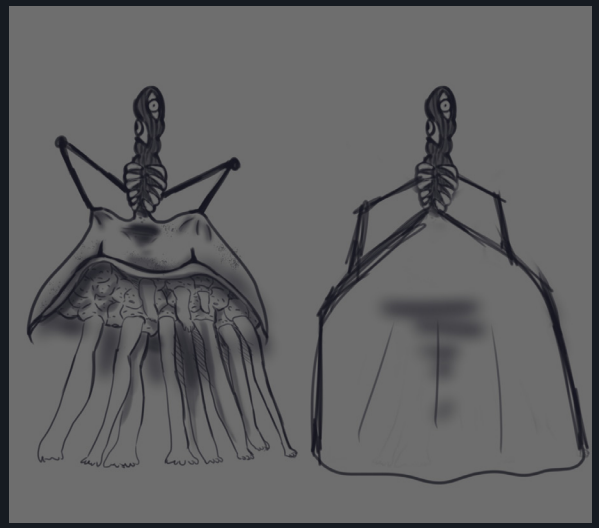
...

그 나무에 끝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면, 뭐 잘 도착해서 살고 있겠죠. “

아무 말 없는 소녀

야릇한 죄책감

아무 말 없는 소녀의 방은 1인 투입이 허용되던 환상체였어요. 그 전까지는 직원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관찰을 했지만, 알 수 있는 거라고는 등 뒤에 위협적인 무기를 숨기고 있긴 했어도
공격을 하려는 어떤 시도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 뿐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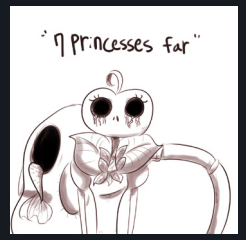


Warden

세이렌

로프와 줄

뒤틀린형태



7공주파

인어공주

호박마차

노스페라투 by 김윤중

계절의 신

봄신

가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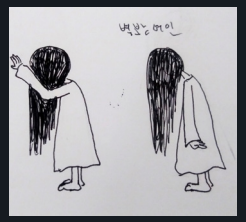
겨울신

여름신 대서 트카우

봄신 변덕 판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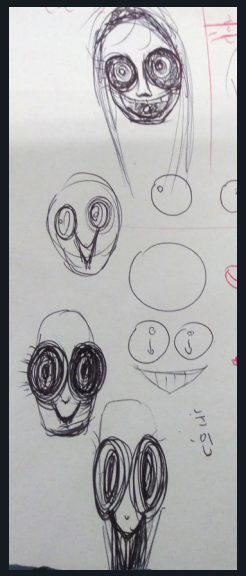
장산범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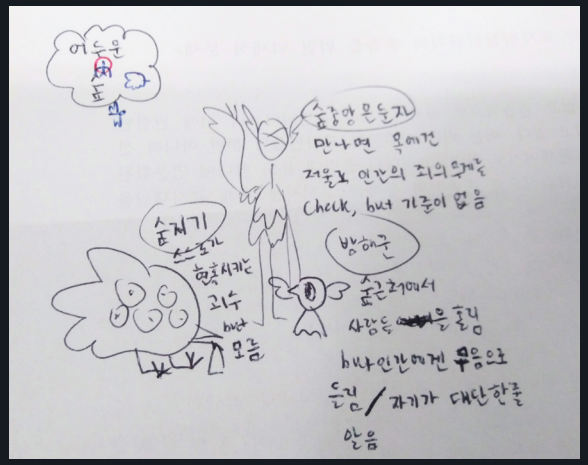


늙은 여인

보고싶은 사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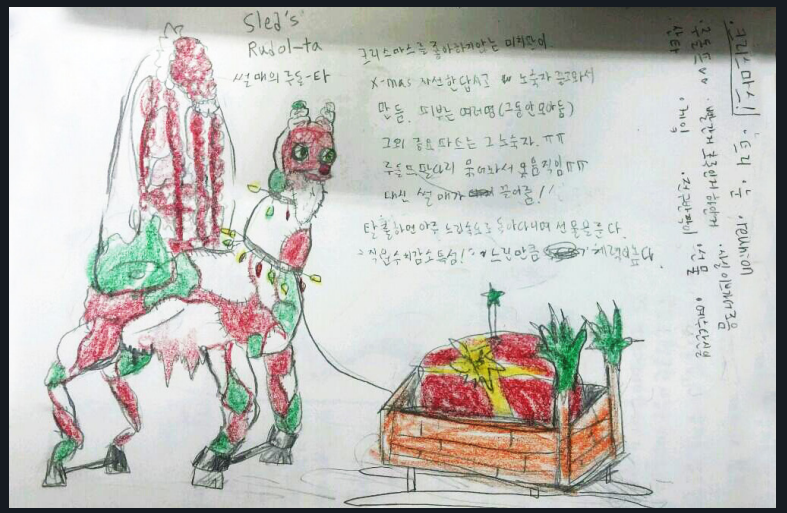
벽 보는 여인



큰 새, 심판 새, 징벌 새 최초 컨셉

테레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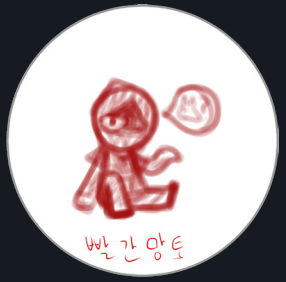
테레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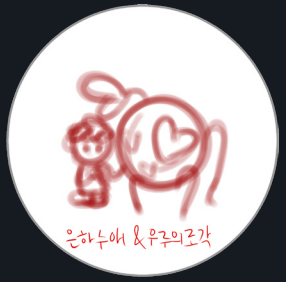


루돌타 컨셉

컨셉아트 모음

뱃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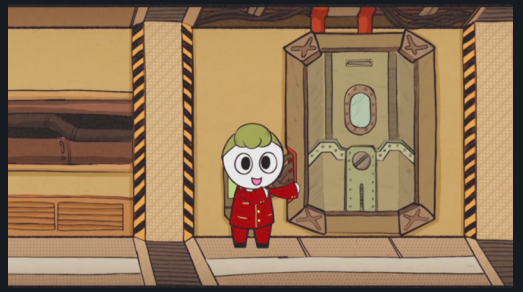


레거시 직원

오뚜기 토끼 초기 컨셉

오뚜기 토끼

오뚜기 토끼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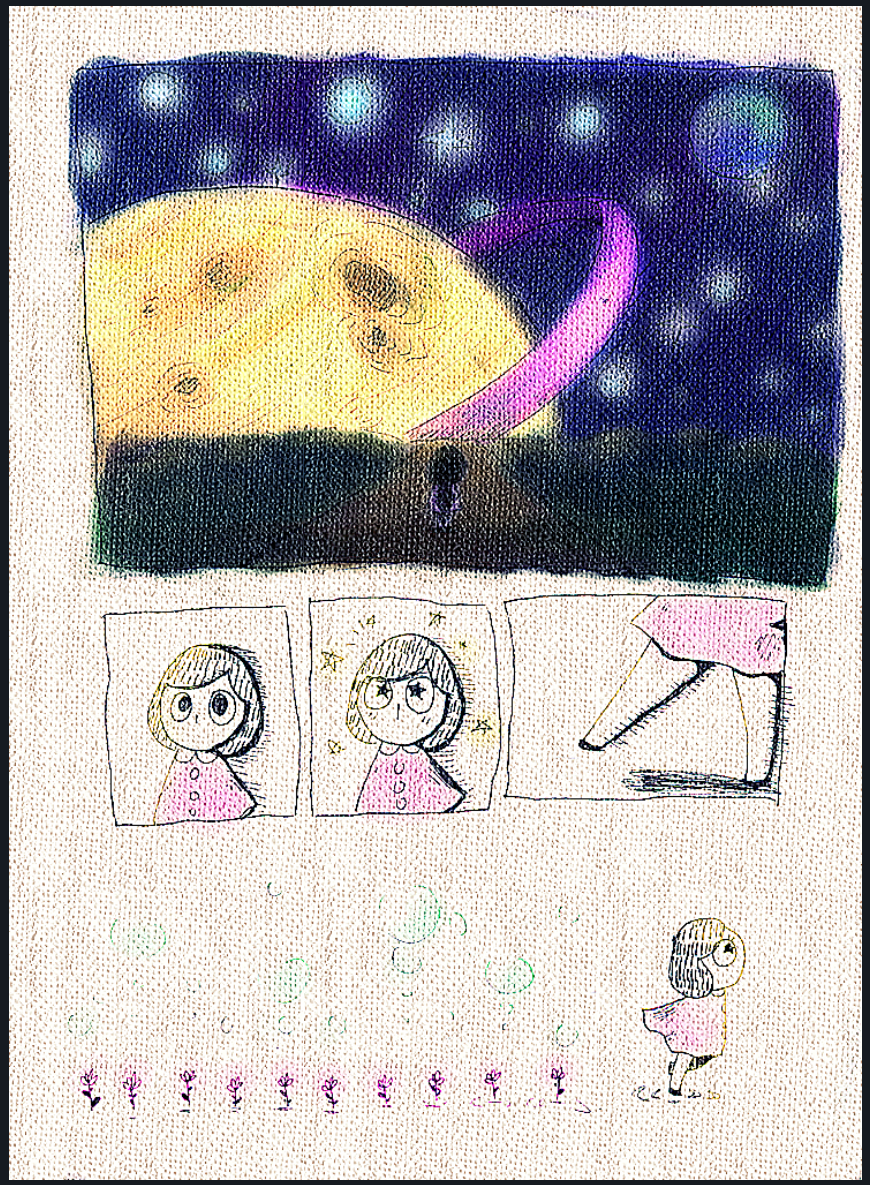
제레미

오뚜기 토끼의 컨셉은 '죽은 직원의 재활용'이었습니다.
오뚜기 토끼를 뒤집어보면...!!
현재에는 죽은 레거시 직원을 재활용한다보면 되겠네요.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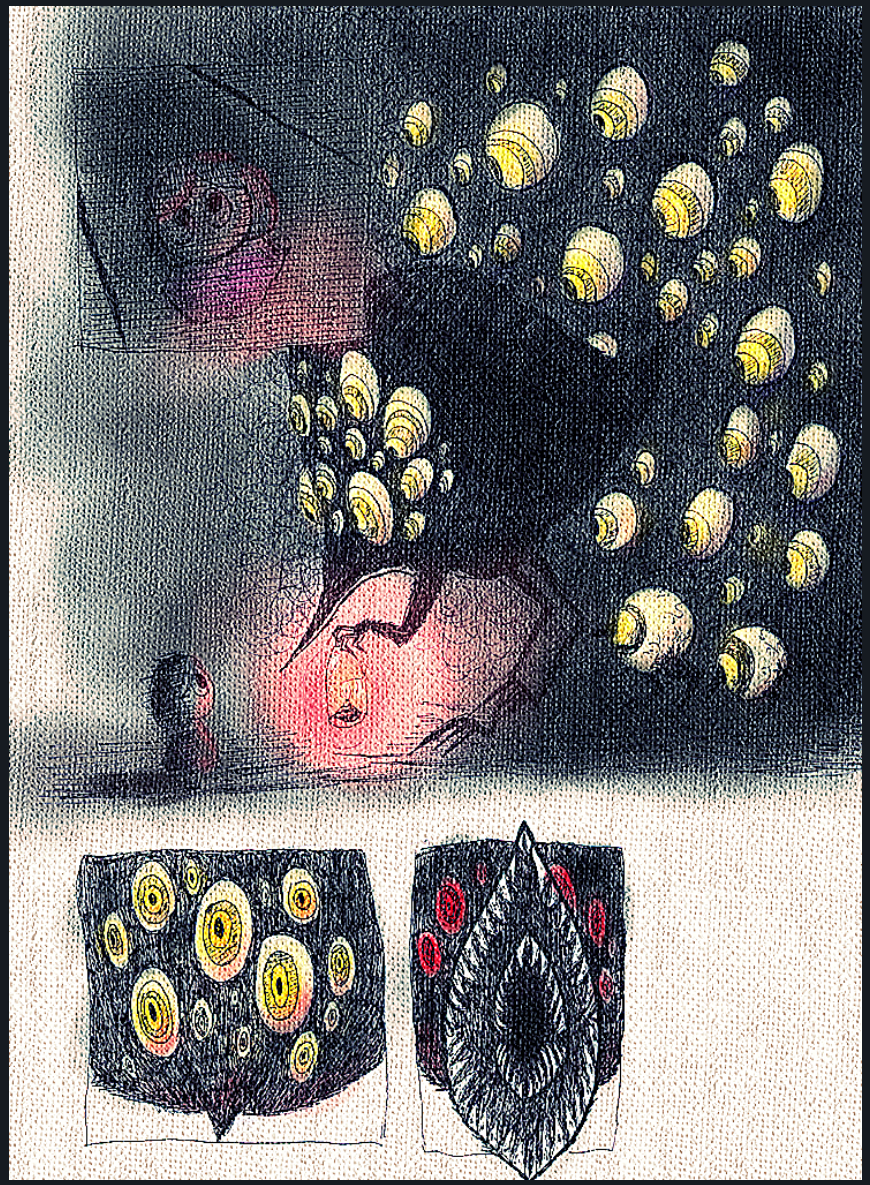
제레미는 저희 얼리액세스 트레일러에 나온 직원입니다. 로보토미 회사를 소개해주던 그 직원 맞습니다

by 김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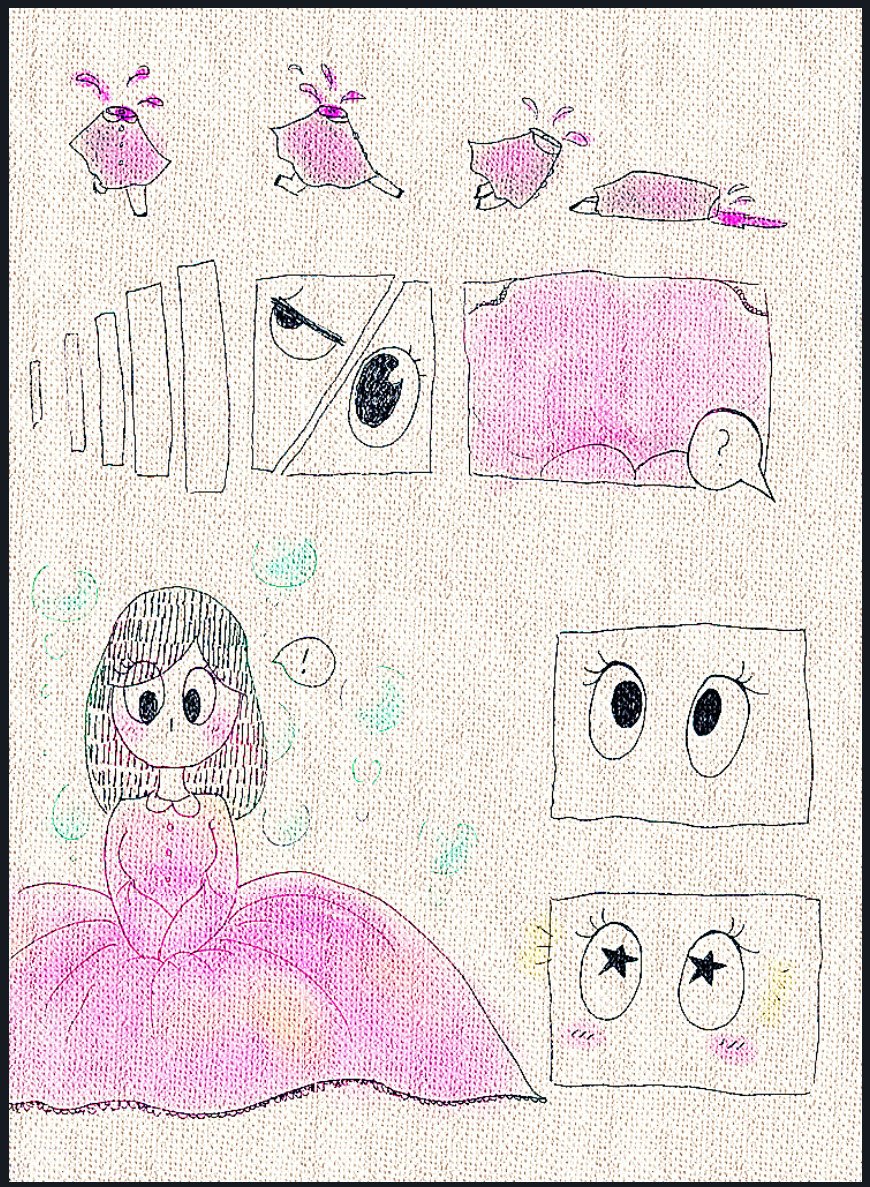
큰새만화는 프로젝트문에 합류하기 전에 그렸던 만화입니다. 사실 이 만화는 거의 무작위 단어들의 열거입니다.
작은 아이, 숲, 괴물, 죽음, 꽃 그리고 별.



몇몇 작품은 한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이 만화도 그런 쪽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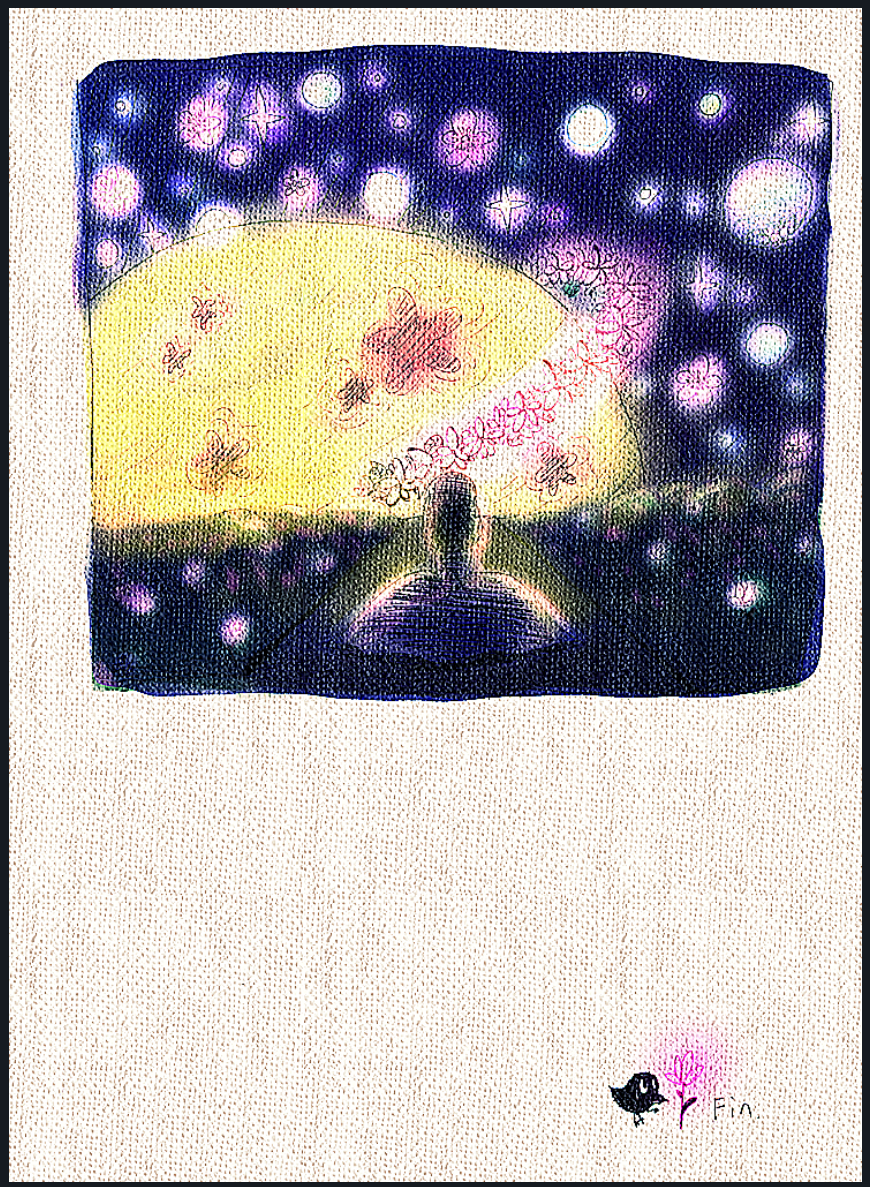


큰새 뒤의 작은 눈알새들의 원래(로보토미 전) 설정은 숲을 지키는 괴물인 큰새와 같은 종의 새끼입니다.(만화 속 큰새의 새끼들은 아닙니다. 동네짱 쫓아 다니는 순진한 어린이들 정도라고 보면됩니다)



새끼들은 성장할수록 온몸에 눈과 깃털이 돋아나고 성체는 큰새와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물론 지금은 없는 설정입니다. :D

by 김지연



PROJECT MOON

Director KIM JIHOON	Designer HAN EUNKYUNG	Designer LEE YUMI
Artist JIN HARIN	Artist KIM JIYEON	Artist KIM YUNJUNG
Programmer JU HYUNGJUN	Programmer SEONG YOONJAE	Programmer CHOI TAEHYUNG

O-09-05

PROJECT MOON

Copyright(C)2017.All rights reserved by Project Moon